

국립국어원 2008-1-57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40-01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목 차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목적	
1.1.2 이론적 배경	
1.1.3 국내외 연구 동향	
1.2 조사 개요	
1.2.1 조사 추진 경위	
1.2.2 조사 방법	
1.2.3 모수 추정 방법	
1.3 문해력 조사 도구 개발	
1.3.1 문항 개발 틀	
1.3.1.1 사실적 문해	
1.3.1.2 추론적 문해	
1.3.1.3 비판적 문해	
1.3.2 문항 개발 과정	
1.3.3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3.3.1 1차 예비 조사 결과	
1.3.3.2 2차 예비 조사 결과	

제2장 비문해자 조사 결과 분석

2.1 조사 결과 개요	
2.2 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	
2.2.1 성별 비문해율	
2.2.2 연령별 비문해율	
2.2.3 지역별 비문해율	
2.2.4 직업별 비문해율	
2.2.5 학력 수준별 및 연령별 비문해율	
2.2.6 소득 수준별 비문해율	

2.3 비문해자의 반응에 대한 기술적 분석	
2.3.1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2.3.1.1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성별	
2.3.1.2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연령별	
2.3.1.3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지역별	
2.3.1.4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소득 수준별	
2.3.1.5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학력 수준별	
2.3.2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2.3.2.1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성별	
2.3.2.2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연령별	
2.3.2.3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지역별	
2.3.2.4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소득 수준별	
2.3.2.5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학력 수준별	
2.3.3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2.3.3.1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성별	
2.3.3.2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연령별	
2.3.3.3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지역별	
2.3.3.4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소득 수준별	
2.3.3.5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학력 수준별	
2.3.4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2.3.5 비문해자 실태에 관한 논의	

제3장 문해자 조사 결과 분석

3.1 문항분석	
3.1.1 문항별 평가 영역 분석	
3.1.2 문항별 난이도 분석	
3.1.3 문항별 변별도 분석	
3.1.4 문항별 응답자 반응 분포	
3.2 문해력 점수 분석	
3.2.1 문해력 점수 결과 개요	
3.2.1.1 문해력 점수 분석	
3.2.1.2 성인과 중학생의 문해력 점수 비교	
3.2.2 소요 시간	
3.2.3 점수대별 분포 현황	
3.2.4 평가 영역별 문해력 점수	
3.2.5 응답자 특성별 문해력 점수	
3.2.6 문해력 평균 점수 교차 분석	

3.2.6.1 연령별/학력수준별 문해력 평균 점수	
3.2.6.2 성별/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	
3.2.6.3 점수대별 교차 분석표	

3.3 문해자 국어생활 관련분석	
3.3.1 월평균 독서량	
3.3.2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	
3.3.3 하루평균 인터넷 이용량	
3.3.4 하루평균 TV시청량	
3.3.5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 이용 여부	
3.3.5.1 사전을 찾는 경우 찾아보는 사전 종류	
3.3.5.2 사전을 찾지 않는 경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이해 방법	
3.3.6 보유하고 있는 사전 종류	
3.3.7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	

제4장 결 론

4.1 국어 기초 문해력 조사의 의의	
4.2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안 제시	
4.2.1 비문해율,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의 활용	
4.2.2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	--

부록 : 문해력 질문지	
--------------------	--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1.1.1 연구 목적

인간의 자유, 평등, 행복은 모든 개개인이 누려야 하는 천부적 권리로 일찍이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권 선언에, 그리고 1948년 유엔의 인권 선언에서도 선포된 바 있다. 이 선언들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유엔에서 채택한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를 인권의 차원에서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이 선언은 “교육, 특히 초등 수준의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지야 하며 또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을 모든 인간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과 교육권의 선언은 현대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해권’(Right to Literacy)의 선언이기도 하다. 인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보장되는데, 교육은 바로 이러한 인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문해(literacy)가 있다. 따라서 문해는 교육권과 인권 모두를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해, 즉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글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문해 능력은 개인의 자본적 가치 향상과 사회의 경제적 생산 증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민의 문해 능력 향상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왔으며, 문해 연구자와 현장의 수많은 문해 교사들 또한 국민의 문해 능력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민의 문해 능력을 국가 및 범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문해 교육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5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문해력 평가를, 1991년에는 구직자들에 대한 문해력 평가를, 1992년에는 성인 문해력 조사(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NALS)를, 그리고 2003년에는 성인 문식성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NAAL)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문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NCES,

2005).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20여 개 국가들은 1994년, 1996년, 1998년 3단계에 걸쳐 범국가적인 수준에서 성인 문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의 후속 프로그램인 국제 성인 문해력 및 생활 기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AL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국민의 문해 능력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한 국제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문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기본 정책으로 국민의 문해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8.15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이후 높아진 의무 교육 취학률은 우리 국민의 문맹률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총조사의 일환으로 1966년 10월과 1970년 10월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문맹률)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글을 쓸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6세 이상의 무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은 각각 8.9%, 7%로 보고되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문맹률이 5% 내외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70년대 이후의 인구 총 조사에서부터 국민의 문해 능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문해 실태 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현재의 문해 연구자나 현장에서 문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리 국민 가운데 비문해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희수, 박현정, 이세정, 2003). 물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국민의 비문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이희수 등, 2001)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OECD 국가를 포함하여 20여 국가에서 실시된 성인 문해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도구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희수 등, 2002)이 자체 개발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읽기, 쓰기, 셈하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수행된 이러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차례의 조사는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는 데 사용했던 문해력 검사 도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났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이희수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해력 검사 도구’는 국민의 문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문해 능력 가운데 사실적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또 다른 하위 문해 능력인 추론적 문해 능력 및 비판적 문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검사 도구는 성인이 접하는 문해 자료 가운데 문서 문해(documentary literacy)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일상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산문 문해(prose literacy)에 대한 문해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의 문해력, 특히 읽기 문해력을 단지 9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해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한 ‘새로운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 4,700여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에는 43,000여건에 달해 지난 15년 동안 915%라는 엄청난 증가를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 또한 2005년 6,100여명에서 지난해 13,400여명으로 지난 2년 동안 대략적으로 119%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성인 문해 조사가 간과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정책 및 문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언어 현실에 기초한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 및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1.1.2 이론적 배경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복잡한 인간의 지적 행위인 “문해(literacy)란 무엇인가?” 대충 ‘인쇄된 글을 해독하는 능력’ 혹은 ‘문서에 자신의 서명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아마도 한 두 문장으로 대답하기 녹록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해의 개념은 ‘언제, 어디서’, 즉 ‘언제의 문해, 어디서의 문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뭇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수메르인들에게, 플라톤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세 사람들에게, 근대 사람들에게,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22세기 미래인들에게 “문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문해에 대한 정의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문해의 개념은 결코 정지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해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의미장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고,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의미역을 확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문해의 개념에 대한 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의 기초 문식성’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기원전 3,3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수메르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잘 정의된 문해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옛날부터 수메르인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우 극소수의 수메르인들은 개인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원시 문자를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문해 행위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 있다. 물론 그들의 문해 행위가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한 고차원적인 지적 행위는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원시 문자를 사용하여 문해 행위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5천여 년의 인류의 문해 역사를 살펴보면 문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5천여 년 동안 문해에 대한 관점은 전달 관점(transmission)에서 번역 관점(translation)으로 그리고 상호작용 관점(interaction)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그러한 관점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해에 대한 관점은 전달 관점(transmission)이다. 문해 행위를 메시지의 전달로 보는 이 관점은 5천여 년의 문해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문해 행위를 설명해 온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해에 대한 관점은 종종 ‘항아리’, ‘수도관’, 혹은 ‘전보’에 비유되곤 한다. 왜냐하면 전달 관점은 문해 행위를 저자가 생성한 메시지를 글(텍스트)이라는 매체에 실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독자는 메시지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전달 관점에서 저자는 의미의 장소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즉, 의미는 전적으로 저자로부터 온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저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독자는 저자의 권위로부터 온 의미(메시지)를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독자란 저자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들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대로 기억(암송)할 수 있는 독자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전달 관점의 예는 중세 시대의 문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글(텍스트)을 직접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글(책)은 손으로 제작되었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고가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는 달리,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 문해는 성직자의 말을 통해 신의 말씀을 듣는 ‘음성(듣기) 행위로서의 문해’가 가장 보편적인 문해의 형태였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문해 또한 오늘날과 같이 글을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묵독(默讀)의 방법이 아닌 소리 내어 읽는 음독(音讀)의 방법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쓰기를 소리 없는 상징 기호(문자)를 사용하여 저자의 목소리를 포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문해를 저자의 목소리를 다시 포착하여 의미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Straw & Sadowy, 1990).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문해는 소리 없는 상징 기호로 구현되어 있는 저자의 목소리를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음성으로 재생할 때 일어나는 행위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문해는 오늘날과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문해’ 형태를 띠었다. 즉, 문해는 즐거움이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적 행위라기보다는 신의 말씀을 성직자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회적·종교적 행위였다(Boyarin, 1993). 이러한 문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성직자의 말씀, 즉 신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만약 해석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일반 독자들의 몫이 아닌 소수 성직자의 몫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해에 대한 전달 관점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읽기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과 함께 번역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해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문해에 대한 전달 관점은 사람들이 문해 행위에 동원하는 심리적 기능들(skills)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과 함께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심리학자 휴이가 말했던 것처럼, 심리학자의 꿈의 성취와도 같은 책을 읽을 때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인지 작용에 대한 그들의 도전이 문해 역사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 전통적인

전달 관점에서 번역 관점(翻譯, translation)으로의 변화는 의미의 장소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저자의 권위가 의미의 장소로서 글(텍스트)로 이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문해에 있어 저자의 시대는 가고 글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해에 대한 번역 관점은 종종 ‘피즐 맞추기’ 혹은 ‘보물찾기’에 비유되곤 한다. 무엇보다도, 번역 관점은 문해 행위를 글(텍스트)에 숨어있는 의미를 독자들이 여러 문해 기능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찾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해는 선생님이 어딘가에 꼭꼭 숨겨 놓으신 쪽지를 여러 가지 방법들(예를 들면, 돌 밑을 들추어 보거나, 나뭇가지 사이를 살펴보거나, 혹은 나무 아래 흙을 파 보거나 등)을 사용하여 그것을 찾는 보물찾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숨겨진 쪽지를 찾기 위해 아동은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겠지만 방법들 자체가 쪽지의 위치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다만 아동이 얼마나 효과적인 탐색 방법들을 가졌느냐에 따라 보물찾기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문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쪽지를 효과적으로 찾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데 있었다. 여기서 쪽지는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의미(메시지)를, 쪽지를 찾는 아이는 문해자를,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문해에 동원해야 하는 인지 기능 및 전략들(예를 들면, 낱자에 대한 지식, 낱자와 소리와 의 규칙에 대한 지식, 단어를 해독하는 지식 등)을 나타낸다.

또한 문해에 대한 번역 관점은 용어 자체가 말해 주고 있듯이 문해를 ‘번역 행위’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해 행위는 번역가가 해당 언어에 대한 의미 지식 및 문법 지식(해당 언어의 의미 및 문법 지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지식이라기보다는)을 토대로 해당 글의 의미를 옮기는 번역 행위와 유사하다. 이때, 번역가는 해당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 다양한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지만 글의 의미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번역가가 얼마나 능숙한 번역 기술을 가졌느냐에 따라 번역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번역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번역가가 효과적인 번역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번역은 자동적인 과정이 된다고 여겨진다.

번역 관점에서 글은 의미의 장소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즉, 의미는 전적으로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독자의 임무는 글 속에 있는 의미(메시지)를 찾는 데 있다. 이전 시대와 같이 성직자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신의 메시지(의미)가 명백할 때에는 문해자의 역할은 저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면 된다. 그러나 글의 메시지가 명시적인 것에서 보다 암시적인 것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문해자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할, 즉 글로부터 의미를 찾는 적극적인 탐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문해자란 다양한 문해 기능들을 동원하여 글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찾는 독자일 것이다. 이것은 보물찾기에서 유능한 아이란 돌 밑에 있는 혹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져 있는 쪽지를 잘 찾는 아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해 관점의 변화는 아동들이 사용하는 문해 교재의 내용에는 물론 구체적인 문해 수업 방법에도 뚜렷이 반영되었다. 교재의 내용은 이전의 종교적인 색채에서 보다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문해의 목적 또한 종교적 진리의 수용에서 시민적 자질과 책임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습득으로 바뀌었다(Smith, 2002). 그리고 이전의 저자 우위 시대에 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던 메시지들이 종종 암시적인 메시지로 바뀌면서 아동들은 암시적인 글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문해 기능들을 습득할 필요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문해 교육은 독자에게 글로부터 의미를 찾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해의 하위 기능들(예를 들면, 낱자에 대한 지식, 낱자와 소리와 의 규칙에 대한 지식, 단어를 해독하는 지식 등)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것은 동전을 넣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커피를 쏟아내는 자동판매기처럼 아동들이 문해 기능들을 제대로 습득하여 적용하기만 하면 의미는 글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20세기 중반까지 60여 년 동안 서구의 문해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혁명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해 행위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은 문해에 대한 번역 관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상호작용 관점을 앉혀 놓았다. 문해 행위에 있어 의미 보유자로서 글(텍스트)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의구심은 의미 구성자로서의 문해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문해 행위에 있어 문해자가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타난 문해에 대한 관점은 상호작용 관점(interaction)이다. 문해 행위를 문해자와 글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이 관점은 문해를 ‘쓰인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재구성)하는 과정’(McNeil, 1987, p. 1)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눈여겨볼 것은 ‘문해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과 ‘문해가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읽기는 4분의 1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수동적이고 단순한 과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해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문해 행위는 종이 위에 쓰인 낱자와 단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해야 하고, 단어를 재인해야 하고, 심성 어휘집을 탐색하여 의미를 할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좀 더 큰 단위인 문장 및 문단으로 통합해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상향적 사고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문해자 자신의 세상 지식을 적절하게 관련시켜야 하는 하향적 사고 과정도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해는 상향적 사고 과정과 하향적 사고 과정이 만나서 의미를 구성하는 일련의 상호적인 인지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문해 행위는 낚시꾼이 물속에서 물고기를 끌어 올리듯이 글로부터 의미들을 끌어 올리는 명백한 과정이 아니다. 문해는 단어와 문장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그것들로부터 활성화되는 독자의 배경 지식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미의 구성·재구성 과정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재구성된 의미는 글이 가지고 있던 의미도 아니며 독자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항상 양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3의 그 무엇이며, 그 무엇은 특정한 문해자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 재구성한 의미이다.

이러한 문해에 대한 관점은 종종 ‘홍정’ 혹은 ‘피드백’에 비유되곤 한다. 왜냐하면 상호작용 관점은 문해 행위를 글(텍스트)에 실려 있는 정보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문해는 주인이 매겨 놓은 가격을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제 3의 새로운 가격으로 협상해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가격은 주인의 가격도 어머니가 애초에 생각했던 가격도 아닌 양자의 상호적인 홍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가격, 즉 특정한 손님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주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해 낸 가격이다. 여기에서 주인의 가격은 글(텍스트)을,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처음의 가격은 문해자의 배경 지식을 나타낸다. 그

리고 새로운 가격은 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나타낸다. 상호작용 관점에서 문해자는 글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의미는 글에 내재해 있지도 않고 문해자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문해자는 항상 글과 자신의 배경 지식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예전처럼 저자나 글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해자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저자의 의도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도, 글에 숨겨있는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닌 나름대로의 의미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즉, 문해자는 할머니가 넣으시는 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빈 절미 향아리도, 보물찾기에서 쪽지를 찾기 위해 돌 밑을 살펴보는 아이도 아니다. 문해자는 물건 값을 새로 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흥정하시는 어머니이다.

전술한 문해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대적 개념의 문해는 문자의 해독 혹은 계약서나 개인 수표에 서명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문해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역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문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활용 능력, 즉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향은 문해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성인 문해 조사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는 문해를 ‘일상적인 활동,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OECD/PISA(2003)는 문해를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글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고찰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이희수 등(2002)은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에서 문해를 ‘개인의 일상에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기초 능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기초 문해’를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물론 최근에는 문자 언어를 능숙하게 부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던 전통적인 문해의 개념에 컴퓨터 혹은 매체 문식성(computer or media literacy), 즉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조직하고, 평가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덧붙여지기도 했다(Au & Raphael, 2000). 아주 최근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수 형태의 문해(literacy)보다는 다양한 상징 체계(문자 언어, 음악, 음향 효과, 이미지, 몸짓 언어 등)를 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문해 행위를 복수 형태의 ‘문해들(literacies)’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노력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아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공간적 매체 및 전자 텍스트를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문해를 재개념화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매체와 관련된 문해 현상을 문해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과 함께, 국내외 성인 문해 조사에서 수 문해(numeracy), 즉 다양한 상황에서 수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성인의 기초 문해에 포함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해의 개념은 과거 문자 언어로서의 문해가 급진적으로 테크놀러지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문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국민의 기초 문해를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규정한 것은 성인 문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해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성취해야 하는 ‘기초 문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1.1.3 국내외 연구 동향

8.15 해방 이후 수차례 이루어진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이후 높아진 의무 교육 취학률은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문해율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문맹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자연스럽게 국민의 문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 실태에 대한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해 교육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 실태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58년 문교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당시 문교부는 하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문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민의 4.1%가 초등학교 2학년 수료자 수준의 국문 해독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문해 조사는 1959년 중앙교육연구소의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유네스코(UNESCO)의 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의 개념(즉,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해자로 참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읽기와 쓰기의 지식과 기능 습득)을 도입하여 전국의 12세 이상 인구의 0.5%를 표집해 가구 방문 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22.1%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문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국가 수준의 문해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총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66년 10월과 1970년 10월 두 차례 실시된 국민의 문맹률 조사에서는 6세 이상의 무학력자를 대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글을 쓸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은 각각 8.9%, 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문맹률이 5% 내외로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70년대 이후의 인구총조사에서는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7년 황종건의 ‘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문해 문제와 사회교육 참여 조사’를 필두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부터 국민의 문해 실태 조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황종건의 조사 연구는 소외 집단에 대한 문해 연구로 서울,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의 저소득층 여성 37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는데, 조사 대상의 48.8%가 비문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이어, 보다 본격적인 전국 규모의 문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89년과 1990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1989)’와 ‘한국인의 문해 실태와 문해 교육’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전국의 13세 이상 인구의 0.007%인 2,116명을 표집하여 면담원에 의한 직접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는데, 조

사 대상자 가운데 5.9%가 비문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정도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는 기초 비문해자는 9.1%(남성 7.0%, 여성 11.0%)로, 실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기능(life skills)을 보유하지 못한 생활 기능 비문해자는 남성이 6.3%, 여성이 11.7%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국민의 문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1년과 2002년에 수행한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와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1년 16세 이상의 우리나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OECD 국가를 포함하여 20여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성인 문해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도구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을 국제 비교하였다. 이 조사에서 문해는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의 세 영역으로 평가되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문해 능력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문서 문해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읽기, 쓰기, 셈하기)를 사용하여 20세 이상의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의 74.8%(2,247명)가 기초 문해 3수준(일상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글을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수준), 16.8%(504명)가 기초 문해 2수준(글을 읽고, 쓰고, 셈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준), 그리고 8.4%(245명)가 기초 문해 1수준(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의 경우, 성인 문해에 대한 실태 조사는 OECD의 국제 성인 문해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인 국제 성인 문해 성 및 생활 기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ALL 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는 국제 규모의 성인 문해 조사 프로그램인데, 1994년, 1996년, 1998년 3단계에 걸쳐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20여 개 국가들이 범국가적인 수준에서 성인에 대한 문해를 조사하여, 국제 비교하였다.

이 국제 문해 조사는 문해를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문해 능력을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 조사는 개인의 문해 점수를 토대로 문해 능력을 5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의약품 설명서에 나타난 정보로부터 아이에게 투약할 약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의 매우 취약한 문해 능력을 갖고 있는 수준으로, 2단계는 복잡하지 않은 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3단계는 복잡한 일과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와 5단계는 고도의 정보 처리 기술 및 기술 능력을 구사하는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성인 문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의 문해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미국 성인의 40%가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해 수준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문해 국제 비교 조사는 국제 성인 문식성 및 생활 기능 조사(ALL 조사)인데, 이것은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이전 문해 조사에서 활용되었던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에 문제 해결, 협동, 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성인의 생활 기술과 관련된 문해 영역이 추가되어 실시되었다. 2003년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6개 국가의 16~65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 및 생활 기술 문해가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서 문해에서는 노르웨이, 버뮤다가 높은 문해 수준을, 미국, 이탈리아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량 문해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가 높은 수준을 미국, 이탈리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후에 수행된 2005-2007년 2주기 조사에는 호주,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 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2년에 ALL 사업에 참여하여, 2003년에 예비조사를, 2004년에는 5,000여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영역별 분석은 지양하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군에 따른 한국인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임언 외, 2005).

1.2 조사 개요

1.2.1 조사 추진 경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본조사 결과 발표까지의 추진 과정을 일자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월 28일: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실시 계획 보고
- 2월 1일~5일: 전문가 대상 문해력 개념, 등급에 관한 이메일 조사(4명)
- 2월 12일: 조사 방향, 내용에 관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4명)
- 2월 20일: 2차 전문가 자문회의(4명)
- 3월 12일: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자문위원 (김창원(경인교대), 서혁(이화여대), 윤준채(대구교대), 이관규(고려대)) 구성 및 질문지 작성 1차 회의
- 3월 19일: 질문지 작성 2차 회의
- 3월 30일: 질문지 작성 3차 회의
- 4월 11일~12일: 질문지 작성 4차 회의
- 4월 16일: 예비 조사 문항 검토 회의
- 5월~6월 5일: 조사 기관 공모 및 선정(한국개발조사연구소 선정)
- 6월 9일, 17일: 한국개발조사연구소와 업무 협의
- 6월 20일: 한국개발조사연구소 착수보고회 겸 자문회의
- 7월 1일: 한국개발조사연구소, 면접 조사원 교육

- 7월 4일: 관계 기관(통계청, 평생교육진흥원, 국방부) 회의 개최
- 7월 1일~8일: 1차 예비 조사 실시(122명 대상)
- 7월 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 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
- 7월 14일: 1차 예비 조사 결과 분석 회의
- 7월 23일: 관계 전문가(평생교육진흥원 박인주 원장 외 3명) 회의 개최
- 7월 22일~29일: 2차 예비 조사 실시(275명 대상)
- 8월 7일: 본조사 문항 확정을 위한 2차 예비 조사 결과 분석 회의
- 9월 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조사 면접원 교육
- 9월 9일~10월 28일: 본조사 실시(12,137명 대상)
- 10월 15일: 본조사 1차 결과 분석 회의
- 11월 12일: 본조사 2차 결과 분석 회의
- 12월 19일: 본조사 결과 발표 기자 브리핑 개최

먼저, 2월에 있었던 전문가 이메일 조사와 2차에 걸친 자문회의에서는 조사 영역을 문맹률을 비롯한 기초 문해력에 한정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수 문해(numeracy)는 제외하고 읽기 중심의 기초 문해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질문지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와 국어원 관계자로 구성된 질문지 전담팀이 직접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12일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자문위원(김창원(경인교대), 서혁(이화여대), 윤준채(대구교대), 이관규(고려대))과 국립국어원 관계자들이 질문지 작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질문지 전담팀은 3월~4월 중순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출제 범위를 한정하고 예비 문항을 작성하여 선제 작업과 문항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5월에 조사를 직접 수행할 조사 전문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조사 수행 기관과의 협의에서 조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국적 취득한 이주 여성도 이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었다.

또한 7월 1일부터 1주일간 1차 예비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를 수행하기 전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차 예비 조사 결과 분석 회의에서 성인의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비교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차 예비 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예비 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7월 4일에 있었던 관계 기관 회의에서는 통계청 관계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때 38년만의 공식 조사이므로 통계법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 과정을 거쳐 9월 5일 본 조사가 정부 공식 통계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승인번호 : 제11319호)

문항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1.3.2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2.2 조사 방법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조사 시기	2008년 9월 9일 ~ 10월 28일(7주간)
표본 크기	총 5,212가구 12,1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7,033명이 본조사에 협조하였음
표본 추출 방법	가구방문면접조사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본조사의 질문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해 여부를 판단하여 비문해자인 경우는 비문해자용 질문지를, 문해자인 경우는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배경질문지에서 응답자 특성과 국어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조사하였다.(배경질문지 및 문해력 질문지는 보고서 끝에 첨부)

1.2.3 모수 추정 방법

모수 추정은 사후층화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모집단의 분석과 층화를 위해서는 2007년 12월말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하였는데 16개 시도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의 19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3% 정도였다. 이 경우 단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부분의 표본이 할당되어 타 지역의 경우 안정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한 최소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16개 시도별로 안정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도간의 표본 오차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기위해서 180표본 우선할당 후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지역별 표본수 산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nh = 180 + 4,120 \times \frac{\sqrt{Nh}}{\sum \sqrt{Nh}}$$

nh : h 지역 표본수

Nh : h 지역 만 19세 이상 인구수

16개 시도별 180개 우선 할당 후 제곱근 비례대상 표본 수 : 4,120

<표 1-1 : 시도별 인구 구성비와 표본 할당 결과>

지역	모집단 수	구성비 (%)	비례배분		제공근비례배분		180표본 우선할당 후 제공근 비례배분	
			표본수	표본오차	표본수	표본오차	표본수	표본오차
서울	8,070,748	21.35	1,494	2.6	878	3.4	698	3.8
부산	2,849,853	7.54	528	4.4	522	4.4	487	4.5
대구	1,903,380	5.03	352	5.3	426	4.8	431	4.8
인천	2,014,156	5.33	373	5.2	439	4.8	438	4.8
광주	1,034,784	2.74	192	7.2	314	5.6	365	5.2
대전	1,102,658	2.92	204	7.0	325	5.5	371	5.2
울산	810,693	2.14	150	8.2	278	6.0	344	5.4
경기	8,274,194	21.88	1,532	2.6	889	3.4	703	3.8
강원	1,169,747	3.09	217	6.8	334	5.5	377	5.1
충북	1,152,050	3.05	213	6.9	332	5.5	375	5.2
충남	1,542,394	4.08	286	5.9	384	5.1	406	5.0
전북	1,430,990	3.78	265	6.1	370	5.2	398	5.0
전남	1,504,749	3.98	279	6.0	379	5.1	403	5.0
경북	2,105,913	5.57	390	5.1	449	4.7	444	4.7
경남	2,428,111	6.42	450	4.7	482	4.6	463	4.6
제주	415,807	1.1	77	11.4	199	7.1	297	5.8
전국	37,810,227	100.0	7,000	1.2	7,000	1.2	7,000	71.2

최소표본 우선 할당 후 제공근에 비례하여 할당된 표본수는 모집단 특성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008년 9월 주민등록 통계 기준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기 위해서 지역과 성, 연령을 층화기준으로 하여 층별 모집단 비율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표 1-2 : 가중치 적용 표본 할당 결과>

지역	성별	모집단 비율(%)				표본 비율(%)			
		20~30대	40대	50대	60~70대	20~30대	40대	50대	60~70대
서울	남	5.05	2.28	1.72	1.48	2.14	1.12	0.94	0.68
	여	4.96	2.33	1.83	1.72	2.00	1.05	0.85	0.64
부산	남	1.58	0.82	0.71	0.59	1.59	0.91	0.88	0.63
	여	1.51	0.86	0.73	0.71	1.46	0.96	0.79	0.68
대구	남	1.11	0.60	0.42	0.35	1.07	0.74	0.69	0.42
	여	1.06	0.62	0.43	0.45	1.17	0.77	0.54	0.49
인천	남	1.25	0.70	0.43	0.33	1.11	0.81	0.58	0.40
	여	1.19	0.67	0.41	0.41	1.22	0.71	0.46	0.37
광주	남	0.65	0.32	0.20	0.18	1.14	0.64	0.55	0.38
	여	0.64	0.32	0.21	0.22	1.06	0.65	0.46	0.42
대전	남	0.69	0.35	0.23	0.18	1.24	0.82	0.71	0.38
	여	0.67	0.35	0.23	0.22	1.31	0.82	0.58	0.44
울산	남	0.51	0.30	0.19	0.11	1.29	0.75	0.70	0.34
	여	0.48	0.28	0.17	0.13	1.13	0.70	0.65	0.35
경기	남	5.23	2.88	1.65	1.37	2.18	1.37	1.00	0.75
	여	5.09	2.68	1.57	1.71	2.45	1.23	0.95	0.74
강원시	남	0.45	0.26	0.18	0.19	0.56	0.47	0.37	0.33
	여	0.42	0.25	0.18	0.24	0.57	0.44	0.35	0.40
강원군	남	0.17	0.10	0.08	0.10	0.27	0.16	0.15	0.21
	여	0.13	0.08	0.08	0.13	0.21	0.15	0.16	0.21
충북시	남	0.44	0.23	0.15	0.13	0.64	0.44	0.41	0.31
	여	0.42	0.23	0.15	0.17	0.64	0.49	0.32	0.34
충북군	남	0.22	0.12	0.10	0.12	0.36	0.19	0.21	0.29
	여	0.18	0.10	0.09	0.16	0.27	0.20	0.20	0.29
충남시	남	0.61	0.31	0.20	0.21	0.88	0.44	0.40	0.35
	여	0.56	0.28	0.19	0.27	0.88	0.49	0.39	0.37
충남군	남	0.27	0.14	0.13	0.18	0.39	0.20	0.27	0.25
	여	0.21	0.13	0.13	0.23	0.35	0.22	0.29	0.34
전북시	남	0.64	0.34	0.25	0.26	0.49	0.26	0.31	0.28
	여	0.59	0.33	0.25	0.34	0.55	0.29	0.29	0.35
전북군	남	0.13	0.07	0.06	0.10	0.08	0.07	0.05	0.12
	여	0.10	0.06	0.06	0.14	0.09	0.07	0.04	0.15
전남시	남	0.44	0.25	0.17	0.16	0.60	0.39	0.35	0.28
	여	0.40	0.23	0.16	0.22	0.58	0.41	0.29	0.29
전남군	남	0.31	0.18	0.16	0.26	0.38	0.26	0.22	0.40
	여	0.24	0.15	0.15	0.37	0.35	0.30	0.20	0.58
경북시	남	0.92	0.49	0.36	0.36	0.77	0.64	0.44	0.45
	여	0.83	0.47	0.36	0.48	0.86	0.57	0.48	0.48
경북군	남	0.21	0.12	0.11	0.16	0.19	0.17	0.12	0.16
	여	0.17	0.10	0.11	0.22	0.16	0.14	0.11	0.26
경남시	남	1.23	0.67	0.44	0.34	1.13	0.71	0.65	0.38
	여	1.15	0.64	0.42	0.46	1.34	0.77	0.54	0.47
경남군	남	0.18	0.11	0.09	0.14	0.17	0.18	0.11	0.12
	여	0.14	0.09	0.10	0.22	0.18	0.17	0.09	0.18
제주시	남	0.24	0.13	0.08	0.09	0.71	0.37	0.28	0.24
	여	0.22	0.12	0.08	0.12	0.72	0.37	0.22	0.39

그런 다음 ‘모집단수/표본수’를 해당 층별 사례수에 곱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1-3 : 층별 가중치 적용 결과>

지역	성별	연령	모집단 수	비문해율 산출용 전체 표본수 (부재자 포함)	조사 응답자	비문해율 산출 가중치	설문분석 가중치
서울	남성	20~30대	1,885,339	260	165	7,251.30	11,426.30
서울	남성	40대	850,827	136	74	6,256.08	11,497.66
서울	남성	50대	643,440	114	58	5,644.21	11,093.79
서울	남성	60대~70대	554,171	82	51	6,758.18	10,866.10
서울	여성	20~30대	1,850,141	243	164	7,613.75	11,281.35
서울	여성	40대	869,769	127	80	6,848.57	10,872.11
서울	여성	50대	684,011	103	58	6,640.88	11,793.29
서울	여성	60대~70대	641,413	78	55	8,223.24	11,662.05
부산	남성	20~30대	590,045	193	102	3,057.23	5,784.75
부산	남성	40대	306,861	111	54	2,764.51	5,682.61
부산	남성	50대	263,693	107	45	2,464.42	5,859.84
부산	남성	60대~70대	219,823	76	39	2,892.41	5,636.49
부산	여성	20~30대	562,380	177	94	3,177.29	5,982.77
부산	여성	40대	321,494	116	56	2,771.50	5,740.96
부산	여성	50대	272,471	96	46	2,838.24	5,923.28
부산	여성	60대~70대	263,615	83	50	3,176.08	5,272.30
대구	남성	20~30대	414,556	130	90	3,188.89	4,606.18
대구	남성	40대	225,246	90	53	2,502.73	4,249.92
대구	남성	50대	156,193	84	38	1,859.44	4,110.34
대구	남성	60대~70대	129,244	51	31	2,534.20	4,169.16
대구	여성	20~30대	397,101	142	94	2,796.49	4,224.48
대구	여성	40대	230,616	93	50	2,479.74	4,612.32
대구	여성	50대	161,352	66	40	2,444.73	4,033.80
대구	여성	60대~70대	166,210	59	42	2,817.12	3,957.38

이와 같이 표본추출은 4단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최종 추출단위인 가구의 추출확률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 일종의 자체가중설계이지만, 성별*연령대별로 조사 내용의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성별*연령대를 사후층화변수로 사용한 사후층화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3 문해력 조사 도구 개발

1.3.1 문항 개발 틀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필요한 문항 개발 틀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성인 문해 조사와 학생 문해 검사에서 문해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가 고찰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의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국제 성인 문해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성인 문해 조사에서, 그리고 만 15세 학생들의 문해력을 측정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정의된 문해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국제 성인 문해 조사)
- 일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능력(한국 교육개발원)
- 개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문자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OECD/PISA)

위의 문해 개념에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문해를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해에 대한 여러 개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문해의 핵심을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지식과 기능’, 즉 읽기 문해(reading literacy)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문해 검사 도구의 문항들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데, 문해 검사 문항들의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산문 및 문서 자료)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쓰기 문해나 수량 문해에 비해 읽기 문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문해 능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해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기초 문해’를 읽기 문해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성인의 문해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문항 개발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해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성인 문해력의 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성인 문해 조사와 학생 문해 검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해 능력의 하위 요소를 살펴보고,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에서는 문해력을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문해 능력의 하위 요소를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산문 문해는 논설 기사, (산문)시, 소설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문서 문해는 구직 서류, 월급 명세서, 열차 시간표,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

되어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그리고 수량 문해는 금전출납, 주문 양식, 대출 이자 계산 등 문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계산하거나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의 문항 개발 틀의 일부분을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 국제 성인 문해 조사 도구의 문항 개발 틀>

문항	내용	영역		
		산문	문서	수량
1-3	· 냉장고 관리 매뉴얼 문제 해결 지침서		√	
4-6	· 먼 기저귀 신문 기사에 대한 독자의 편지	√		√
7-9	· 주요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도표			√

그런데 위의 문항 개발 틀은 문해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항의 ‘내용 영역(자료 유형)’에 대한 정보, 즉 해당 문항이 산문 문해를, 문서 문해를 혹은 수량 문해를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문해자가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동원해야 하는 ‘인지적 요소’, 즉 사실, 추론, 비판, 평가 등과 관련된 인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문항 개발 틀은 학생의 문해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국가 수준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2002)와 OECD/PISA의 문해 성취도 국제 비교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NAEP는 문해의 하위 요소를 ‘문해 상황’과 ‘문해 양상’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해 상황’은 ‘문학적 경험을 위한 문해’, ‘정보 획득을 위한 문해’, ‘과제 수행을 위한 문해’로, ‘문해 양상’은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기’, ‘추론하기’, ‘독자와 텍스트 관련짓기’, ‘내용과 구조 비판하기’로 하위분류하였다.

<표 1-5 : NAEP 문항 개발 틀>

하위 요소	문해 상황	문해 양상
NA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경험을 위한 문해 · 정보 획득을 문해 · 과제 수행을 위한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내용 이해(대의 파악) · 추론하기 · 독자와 텍스트 관련짓기 · 내용과 구조 비판하기

OECD/PISA는 NAEP와는 달리 문해의 하위 요소를 ‘과정’, ‘내용’, ‘상황’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과정’은 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과정을 말하며, ‘정보 재인, 대의 파악, 추론적 이해, 내용에 대한 논리적 고찰, 형태에 대한 비평적 고찰’ 등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문항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자료의 특성을 의미하며, ‘산문(묘사, 서사, 해설, 논설, 지시) 및 비산문(서식, 광고문, 도표와 그래프, 그림, 표, 지도)’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상황(읽기 목적)’은 문해자의 지식이나 인지 과

정이 적용되는 맥락을 가리키며, ‘개인적, 공적, 직업적, 교육적’ 용도라는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들 세 차원은 문해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되며, 하나의 문해 평가 문항 안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아래의 <표 1-6>은 OECD/PISA의 문항 개발 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 : OECD/PISA 문항 개발 틀>

하위 요소	내용	과정	상황
NA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문(문학 및 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정보 추출하기 · 대의 파악하기 · 추론적 이해하기 · 내용에 대한 고찰 · 형태에 대한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 공적 · 직업적 · 교육적

이 연구에서는 국제 성인 문해 검사의 문항 개발 틀과 NAEP 및 OECD/PISA 문항 개발 틀을 참고하여, <표 1-7>과 같은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 틀’을 개발하였다. 아래의 문항 개발 틀에 나타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문해의 하위 요소를 ‘내용’, ‘과정’, ‘상황’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은 문해자가 접하게 되는 문해 자료의 장르적 특성을 의미하여, 산문(문학 및 비문학)과 문서(도표, 그림)로 나누어진다. ‘과정’은 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해야 하는 문해자의 인지적 기능을 말하는데,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로, ‘상황’은 문해자의 지식이나 인지 과정이 적용되는 맥락을 가리키며, ‘실용’과 ‘교양’으로 분류된다.

<표 1-7 :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 틀>

	내용	과정(인지)	상황
하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문(문학/비문학) · 비산문(도표,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특히, 이 문항 개발 틀에서는 성인 문해력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국제 성인 문해 조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성인 문해 조사의 개발 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해자의 인지 과정을 중요한 하위 요소로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문해자가 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인지 과정은 문해 능력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문해 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 평가 목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발 틀에서는 문해자의 인지 과정을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로 분류하였다.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1.1 사실적 문해

문해 행위에서 글은 필자와 문해자 사이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문해 행위에 있어 일차적인 의미 구성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문해자가 글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것 역시 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 요인을 중심으로 문해 능력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적 문해이다. 이는 글의 특정 부분에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단순한 추론을 통해 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적 문해 능력의 대표적인 예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해 능력’이다.

모든 글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보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글의 형식과 내용이 아무리 예측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완전히 예견할 수 없는 가변적 자료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글 자체의 정보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해에 혼란을 가져오기 쉽고 지루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성을 갖추고 있다면, 문해자가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단어 및 구의 정의 찾기,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 찾기, 명시적인 핵심 문장, 핵심 아이디어 찾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실적 문해 능력의 또 다른 예는 ‘대의를 파악하는 문해 능력’, 즉 글 전체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는 글에 나타나 있는 명시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글에 암시적으로 숨어 있는 정보를 추론하는 문해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실적 문해 능력에는 글의 주제 파악하기, 글의 목적 파악하기와 같은 문해 능력이 포함된다.

1.3.1.2 추론적 문해

문해란 글과 문해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문해 행위는 글과 문해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론적 문해 능력은 글 요인과 문해자 요인 사이에서 작용하는 문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추론적 문해 능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글의 비명시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즉, 글의 부분 혹은 전체에 나타나 있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추론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필자의 상황, 의도, 목적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글의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사건의 원인과 결과 추론, 인물의 행동의 원인 추론하기) 능력이 포함된다.

추론적 문해 능력의 또 다른 예는 ‘글의 특성(구조, 갈래, 내용)에 의거하여 글에 나타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객관적 혹은 주관적 관점으로 글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정보의 명확성 완결성 판단,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구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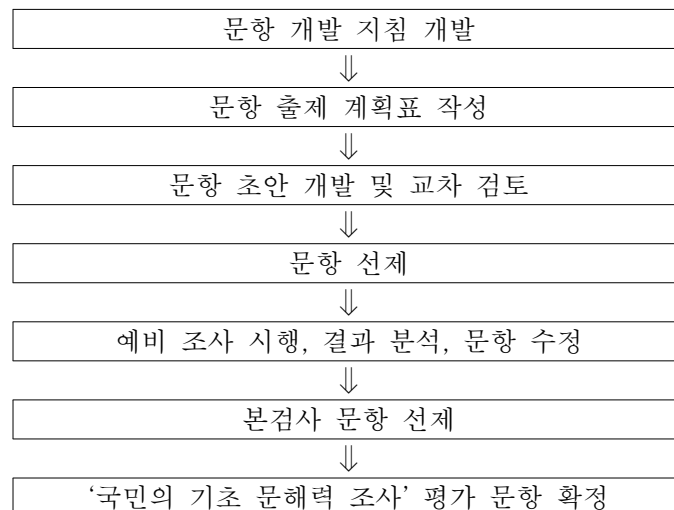
1.3.1.3 비판적 문해

글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실체이지만 그것을 읽는 문해자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문해자의 글은 각기 다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해자가 글과의 상호 교섭을 통해 고정된 의미와는 다르게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해자의 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해자의 관점에서 문해 능력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판적 문해 능력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비판적 문해란 주관적 혹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과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평가하는 문해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비판적 문해 능력에는 외부 지식으로부터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정보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미적 기준에 기초하여 비교할 수 있는 능력, 필자의 논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글에 있는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필자가 사용한 표현 및 구조의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필자의 스타일, 목적, 태도를 찾거나 논평할 수 있는 문해 능력 등이 포함된다.

1.3.2 문항 개발 과정

연구진은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위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은 ‘문항 개발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문항의 개발 방향 및 구체적인 평가 요소 설정에서부터 문항 개발, 문항 수정, 예비 검사 및 본검사 문항 확정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그림 1-1 : 평가 문항 개발 절차>

우선,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문항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문항의 난이도는 상 : 중 : 하 = 1 : 2 : 1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문항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배경 지식은 성인 수준으로 하고, 인지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현행 의무교육 연한을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수준으로 한다.
- 문항을 해결하는 데 동원해야 하는 인지적 과정은 사실적 문해 : 추론적 문해 : 비판적 문해 = 5 : 3 : 2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산문 문항의 경우, 지문의 길이는 한 문단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발 문항은 타 검사 도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 문항은 4지선다의 객관식 문항으로 개발한다.
-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실용 : 교양 = 6 : 4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며, 하위 요소인 미디어 : 공적 생활 : 일상생활 :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은 대체로 3 : 3 : 3 : 2 : 2 : 2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문항에 사용되는 내용(자료)은 산문(문학 및 비문학)과 문서(도표, 그림)를 고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 총 문항 수는 25문항으로 하나 60문항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선별한다.

문항 개발 틀, 시험 시간, 문항 수, 문항 유형, 지문 유형, 문항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문항 출제 계획표와 이것에 따라 개발된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 문항 출제 계획표>

하위 요소	실용			교양		
	일상생활	공적생활	미디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사실적 문해	A1 메모, 영수증 초대장, 명함 여행지, 편지	B1 노선도 이력서 가정통신문	C1 안내문(선거 공지 등) 방송편성표 표 예매	D1 소설, 수필 문학이론	E1 경제 육아 요리, 스포츠	F1 기후와 생활 정보통신 생태 동식물
추론적 문해	A2 제품설명서 복약설명서 안내문 일기예보	B2 기사문 관광지안내서	C2 광고, 세일전단지 인터넷사이트	D2 언어 종교 미술 교육 인류문명	E2 풍습 계약서 자연 정치제도	F1 의학 정보 환경문제 통신
비판적 문해	A3 은행송금 증명서발급 전입신고서 우체국 용무	B3 공문서 구인광고 부동산 정보	C3 신문사설 광고문	D3 역사 지리 철학	E3 법령문 전통문화	F3 신기술 우주과학 국제관계
문항 수	12	12	12	8	8	8

문 5) 다음의 날씨 생활 지수를 참고하면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2008년 6월 11일 날씨 생활 지수>

 벌레지수 - 20 잘 마르지 않아요	 외출지수 - 30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세차지수 - 20 세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우산지수 - 70 휴대 편리한 우산을 준비

- ① 이불 빨래를 한다.
- ②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
- ③ 먼지가 쌓인 차를 구석구석 닦는다.
- ④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 준다.

<그림 1-2 : 예시 문항의 일부>

위의 문항 출제 계획표에 따라 개발된 평가 문항의 초안(총 60개 문항)은 출제위원에 의한 상호 교차 검토와 수정을 위한 협의회를 비롯하여, 검토위원에 의한 여러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예비문항으로 확정되었다. 검토위원에 의한 1차 문항 검토는 평가 내용의 적합성 정도 및 문항 자체의 오류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차 문항 검토에서는 평가 문항을 통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 과정 또는 행동 영역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문항의 난이도 등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40개의 문항 가운데 최종적으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선제된 30개 문항이 예비 검사를 위한 문항으로 선택되었고, 예비 검사가 수행되었다.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위한 최종 문항을 선별하기 전에, 연구진은 예비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문항 정보를 토대로 예비검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검사를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검사에서는 고전검사이론에 의해 난이도, 변별도 등의 문항 특성, 피험자들의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답지 반응 분포(답지들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 빈도와 백분율)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답지 반응 분포에서 정답지의 정답률이 오답지의 백분율보다 낮은 문항의 경우 정답지와 오답지를 모두 수정하였고, 문항 변별도가 없거나 낮은 문항은 제거하고,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수정하거나 제거하였다.

위와 같은 예비 검사 분석을 통해 최종 25개의 문항이 본검사를 위한 문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를 측정하는 문항이 각각 13문항, 9문항, 3문항이었다. 또한 난이도의 경우, 상인 문항이 6문항, 중인 문항이 13문항, 낮은 문항이 6문항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9>는 본검사에 사용된 25문항에 대한 문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9 : 본검사 문항 특성>

하위 요소	실용			교양		
	일상생활	공적생활	미디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사실적 문해	초대장 전입신고서 무통장입금증 일기도 명함 약도 도서소개	부동산정보	안내문 세일전단지	사전활용	포크댄스	
추론적 문해	일기예보 우체국용무 복약설명서 제품보증약관	가정통신문 법령문	세계 시간 공익광고 TV 편성표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비판적 문해	문화센터	구인광고				신기술·통신
문항 수	12	4	5	1	2	1

1.3.3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3.3.1 1차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차 예비 조사는 7월 1일에서 8일까지 1주일간 서울, 경기 지역의 12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와 같은 방법인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은 34문항으로 평균 점수는 66.9점으로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 시 지역, 성별로 볼 때 남성, 연령별로 20~30대, 직업별로는 학생, 소득수준별로는 200~3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요 시간이 평균 50분으로, 60대 이상과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문항수를 축소하고 난이도 및 피조사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9개 문항이 삭제되고 25개 문항이 채택되었는데 문항 삭제 시에는 문항별 변별도 및 난이도, 전문가 의견 등이 기준이 되었다.

삭제된 문항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아래의 삭제 예시 문항 1)의 경우, ②번의 ‘관점’이 정답이지만 나머지 답안들도 명백히 틀린 답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변별도(0.10)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삭제되게 되었다. 또한 삭제 예시 문항 2)의 경우는, 지문 자체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과 지문이 길어서 피조사자들이 읽기를 꺼려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삭제되게 되었다.

삭제 예시 문항 1) 다음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보기에 따라 꽃병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옆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둘 중 하나의 의미가 부각된다.

만약 당신이 흰 꽃병을 본다면, 주변의 검은 공간은 배경 이상의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거꾸로 두 사람의 옆얼굴을 본다면 중간에 하얀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장면을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시각은 하나의 형태 속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 ① 의미 ② 관점 ③ 공간 ④ 형태

삭제 예시 문항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서 아마 ‘발’만큼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1킬로미터를 걷는 동안 발에 실리는 무게는 약 16톤. 인간이 한 살부터 60세까지 걷는 거리는 16만km쯤 된다고 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256만 톤. 항공모함의 만재(滿載) 톤수가 약 10만 톤이므로 발이 60세까지 받는 무게는 항공모함 25대를 한 데 모은 것만큼 엄청나다. 사람의 발은 뼈 26개, 관절 33개, 근육 20개와 인대 10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걸을 때마다 수많은 뼈와 관절 등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인다.

- ① 사람의 발은 한 번에 16톤의 무게를 지탱해 낼 수 있다.
 ② 사람이 60세까지 걷는 거리는 대략 16만km에 이른다.
 ③ 사람이 60세까지 걸을 때 발에 실리는 총무게는 약 256만 톤에 이른다.
 ④ 사람의 발은 뼈 26개, 관절 33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3.3.2 2차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차 예비 조사 결과, 비문해자들의 사례수가 적어 비문해자에 대한 문항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대규모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조사용 25개 문항으로 다시 예비 조사를 실시해서 문항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2차 예비 조사가 실시되게 되었다.

조사는 7월 22일~29일에 이루어졌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137가구 27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4명의 협력을 얻었다. 조사 방법은 1차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방문조사로 이루어졌다.

2차 예비 조사에서는 정확한 문맹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방법론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아래에 1안과 2안 및 최종안을 제시한다.

1안) 표본가구당 1인을 계통추출하여 조사할 경우

- 표본가구당 1인을 생년월일 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 원칙을 준수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한 다는 것이 불가능함.
- 또한, 이 경우 비문해자들의 조사 거부율이 높아져 문맹률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2안) 정확한 문맹률 산출을 위하여 표본가구원 전체를 조사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 조사
- 이 경우 해당가구원의 협조를 통해 비문해자를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문맹률 수치를 추정해 낼 수 있음.

최종안) 표본가구원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부재중인 가구원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조사를 실시함.

- 가. 부재중인 가구원이 문해자인지, 비문해자인지 파악
- 나. 비문해자인 경우 가족의 협조를 통해 한글 교육 관련 및 응답자 특성 작성
- 다. 문해자인 경우 가족의 협조를 통해 가구 재방문하여 조사완료
- ※ 3차례 이상 접촉을 시도해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조사 불가 기록표 작성

최종적으로 설문이 완료된 문해자와 비문해자 합과 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가구원을 모두 합하여 문맹률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하였다.

문해력 점수의 경우, 67.8점으로 1차 예비 조사보다 평균은 0.9점 높아져, 30대 78.1점, 전문직 85.6점, 대졸이 79.8점으로 최고점이었고 최저점은 70대 32.6점, 농어업 51.0점, 초졸 이하 4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요 시간은 29.5분으로 1차 조사 때보다 20.5분 단축되었다.

제2장 비문해자 조사 결과 분석

2.1 조사 결과 개요

‘비문해자’는 완전 비문해자와 부분적 비문해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장(章)에서 비문해자라 함은 완전 비문해자를 가리킨다. 보통 말하는 ‘문맹’ 혹은 ‘까막눈’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 비문해자가 한글을 전혀 못 읽는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글자를 더듬더듬 힘들게 소리 내어 읽기는 하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스스로 혹은 외부 시선을 의식하며 글자 읽기를 아예 피하는 상태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능적(技能的) 비문해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적(機能的)으로도 비문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비문해자로 지칭한다. 여기에는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자, 귀국자 등도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비문해자 판정은 피조사자의 진술과 면접원의 판단에 의거하였다. 곧, 면접원이 방문하였을 때 피조사자(혹은 그 가족)가 스스로 비문해자임을 밝히고 면접원이 간단한 단어 읽기와 쓰기 과제를 통해 그 진술을 확인했을 때 비문해자로 판정하였다. 비문해자로 판정되면 문해력 조사지 대신 비문해자용 조사지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비문해자가 조사지를 읽지 못하므로 가족과 면접원이 조사지를 읽어 주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12,137명 중 2.15%인 261명이 비문해자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모수 추정하면 전 국민의 비문해율은 1.67%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나라 성인(19~79세) 중 약 62만 명이 비문해자임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98.33%라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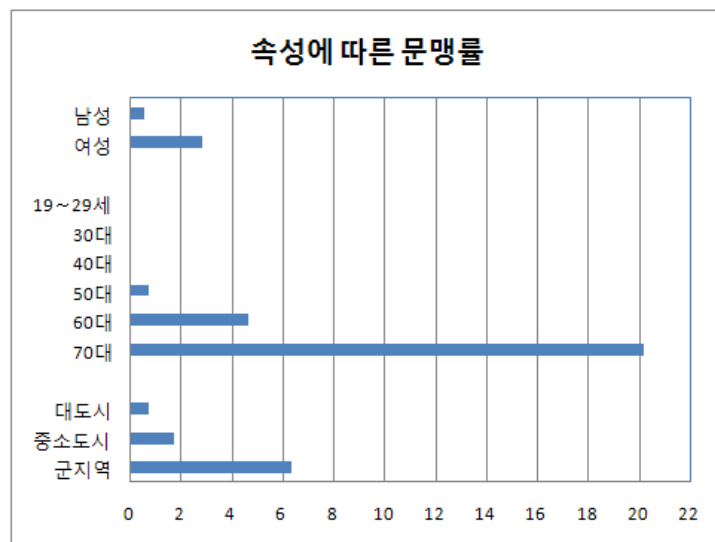
조사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이하의 비문해율 수치는 모두 모수 추정한 결과임)

- ① 성에 따라 비문해율이 차이가 났다. 남성(0.5%)보다 여성(2.8%)의 비문해율이 높았다.
- ② 연령에 따라 비문해율이 차이가 났다. 40대 이하에 비문해자가 거의 없는 데 비해, 50대(0.7%), 60대(4.6%), 70대(20.2%)로 가면서 비문해율이 높아졌다.
- ③ 지역에 따라 비문해율이 차이가 났다. 대도시(0.7%)에 비해 중/소 도시(1.7%)의 비문해율이, 다시 그에 비해 군 지역(6.3%)의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 ④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12.3%)와 단순 노무 종사자(3.8%)의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 ⑤ 학력에 따른 비문해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무학/초중퇴의 경우에만 비문해율이 38.3%로 매우 높았다.

* 국민의 비문해율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에 지역·성별·연령 변수를 모집단(우리나라 성인 인구) 특성에 맞추어 가중치를 두어 추정한 결과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89%이다.

** 37,334,389명(08년 9월 1일 기준 성인 인구)×0.0167=623,626명

- ⑥ 소득 수준에 따른 비문해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계층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⑦ 비문해자 중 82%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비문해자의 10.7%는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로 나타났다.
- ⑧ 비문해자 중 60% 이상이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 사용설명서나 처방전 이해, 편지 쓰기, 신문 읽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 ⑨ 비문해자 중 22.6%만이 기회가 된다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72.8%는 한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
- ⑩ 한글 학습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73.6%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 시기와 교육 장소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림 2-1 : 피조사자 속성에 따른 문맹률(%)〉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비문해율은 매우 낮으며(문해율이 높으며), 비문해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고(261명 중 256명, 98.1%) 40대 이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61명 중 5명). 또한, 비문해자의 대부분이 무학/초중퇴 이하로서(261명 중 247명, 94.6%) 초졸 이상은 소수(261명 중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무교육이 정착된 이후로는 장애우나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문해자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완전 비문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비문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해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문해력 조사 및 문해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해자 조사 결과 분석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2.2 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

2.2.1 성별 비문해율

<표 2-1>에서 보듯이, 성(性)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남성 비문해율에 비해 여성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비문해자 261명 중 남성은 46명(모수 추정에 의한 비문해율 0.5%), 여성은 215명(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다.

<표 2-1 : 성별 비문해율>

	응답자수(명)	비문해자(명)	조사치(%)	모집단수(명)	비문해자수(명)	비문해율(%)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남성	6,070	46	0.8	18,608,369	98,625	0.5
여성	6,067	215	3.5	18,726,020	525,001	2.8

여성 비문해율이 높은 이유는 노년층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사 대상자의 최고령층(79세)이 태어난 1930년의 경우 남성 취학률이 25.8%였던 데 비해 여성 취학률은 5.7%에 불과하여,* 남성의 취학률이 여성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2-2 : 성별/연령별 비문해율>

성 연령	남성			여성			전체		
	Total (명)	비문해자 (명)	비문해율 (%)	Total (명)	비문해자 (명)	비문해율 (%)	Total (명)	비문해자 (명)	비문해율 (%)
19~29세	3,785,066	0	0.0	3,711,949	3,253	0.1	7,497,016	3,253	0.0
30대	4,604,173	1,956	0.0	4,260,231	0	0.0	8,864,404	1,956	0.0
40대	4,407,137	0	0.0	4,247,673	3,316	0.1	8,654,810	3,316	0.0
50대	3,041,805	6,811	0.2	3,018,332	35,648	1.2	6,060,137	42,459	0.7
60대	1,984,046	17,971	0.9	2,449,882	185,562	7.6	4,433,927	203,532	4.6
70대	786,141	71,888	9.1	1,037,953	297,223	28.6	1,824,094	369,111	20.2
계	18,608,369	98,625	0.5	18,726,020	525,001	2.8	37,334,389	623,626	1.7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p.289.

** 표의 '비문해자' 수는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된 수치이다.

<표 2-2>에 따르면 남성의 비문해율은 50대 0.2% → 60대 0.9% → 70대 9.1%로 증가하는 데 비해 여성의 비문해율은 50대 1.2% → 60대 7.6% → 70대 28.6%로 증가한다. 곧,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70대 여성의 경우 28.6%가 비문해자로서, 4명 중 1명이 비문해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높은 비문해율은 교육 기회의 부재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의 요구와 상황을 감안한 문해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교육 수준과 비문해율의 상관도는 다음 항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2.2 연령별 비문해율

<표 2-3>에서 보듯이, 연령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문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의 경우 조사 대상자 261명 중 비문해자가 5명(0.0%)에 불과한데, 50대 20명(0.7%), 60대 85명(4.6%), 70대 151명(20.2%)으로 비문해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특히 70대는 다섯 중 한 사람이 비문해자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비문해율이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년층의 교육 기회가 적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점에 70세인 사람은 1938년 생으로, 초등학교 입학과 8.15 해방, 중학교 입학과 6.25 전쟁이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겹친다. 해방을 전후해서 54%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1977년에 97%까지 올라가고 2007년에는 99.3%에 이르렀지만(통계청 통계 연보), 노년층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이다.

<표 2-3 : 연령별 비문해율>

	응답자수(명)	비문해자(명)	조사치(%)	모집단수(명)	비문해자수(명)	비문해율(%)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19~29세	2,181	2	0.1	7,497,016	3,253	0.0
30대	2,544	1	0.0	8,864,404	1,956	0.0
40대	2,921	2	0.1	8,654,810	3,316	0.0
50대	2,384	20	0.8	6,060,137	42,459	0.7
60대	1,421	85	6.0	4,433,927	203,532	4.6
70대	686	151	22.0	1,824,094	369,111	20.2

한편으로, 노년층의 비문해율이 높은 데에는 고령으로 인한 두뇌 및 신체 기능 저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번 글자를 깨친 뒤에 다시 잊는 경우는 없으나, 지력과 시력 저하로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40대 이하의 비문해자도 질환이나 장애, 이주 노동자와

* 연령별 비문해율과 별도로, 조사된 비문해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전체 261명 중 70대가 57.9%(151명)를 차지하고, 60대가 32.6%(85명), 50대가 7.7%(20명)를 차지한다. 40대 이하는 1.9%(5명)에 불과하다.

국제결혼 등의 언어·심리 외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의 비문해율이 높다는 것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한글 교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노년층에 맞는 교재와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문자 입문기 아동을 위한 교재/교수법을 바탕으로 하여 강사의 경험과 교육기관 자체의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노년층 문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 재정 지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편, 노년층 문해 교육과 별도로 특수 교육으로서의 문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문해 교육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40~50대 이하의 비문해자는 교육 이외의 요인으로 비문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 사회적·언어적 경험 부족 등을 보완할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2.2.3 지역별 비문해율

이번 조사의 경우 지역별 표본수가 적어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얻어진 결과에 한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표 2-4>에서 보듯이, 지역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대도시(0.7%)에 비해 중/소도시(1.7%)의 비문해율이, 다시 그에 비해 군 지역(6.3%)의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여러 요인이 관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을 예로 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은 7.19%인 데 비해 전남은 17.7%로 두 배 이상이고, 경북 역시 2008년에 15.1%를 넘어섰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도 군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6.3%), 제주(5.4%), 강원(5.1%) 지역이 비문해율이 높은 데 비해 서울(0.3%), 인천(0.3%), 울산(0.3%) 지역이 낮은데, 이 역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보여 준다. 광역시 중에 광주(2.2%)가 높다거나 도 지역 중 경기(0.4%)가 낮은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4 : 지역별 비문해율>

		응답자수 (명)	비문해자 (명)	조사치 (%)	모집단수 (명)	비문해자수 (명)	비문해율 (%)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지역별	서울	1,143	3	0.3	7,979,111	24,990	0.3
	부산	959	11	1.1	2,800,382	33,519	1.2
	대구	715	9	1.3	1,880,518	24,416	1.3
	인천	687	2	0.3	2,010,650	6,783	0.3
	광주	644	14	2.2	1,025,689	22,377	2.2
	대전	763	7	0.9	1,091,262	10,566	1.0
	울산	717	2	0.3	812,225	2,494	0.3
	경기	1,293	5	0.4	8,276,675	35,421	0.4
	강원	608	32	5.3	1,142,269	57,960	5.1
	충북	680	11	1.6	1,133,134	17,170	1.5
	충남	790	18	2.3	1,511,389	35,659	2.4
	전북	425	20	4.7	1,384,560	58,980	4.3
	전남	712	43	6.0	1,445,787	90,512	6.3
	경북	728	35	4.8	2,040,400	98,065	4.8
	경남	873	26	3.0	2,393,729	82,811	3.5
제주	400	23	5.8	406,609	21,904	5.4	
지역 크기별	대도시	5,628	48	0.9	17,599,837	125,145	0.7
	중/소도시	4,929	114	2.3	16,308,707	282,762	1.7
	군지역	1,580	99	6.3	3,425,845	215,719	6.3

군 지역의 비문해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문해 교육 서비스가 약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거주지가 밀집돼 있는 도시 지역의 경우 문해 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가정이 많은 경우 문해 교육을 하기가 더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감안한 문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4 직업별 비문해율

<표 2-5>에서 보듯이, 직업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직업에 따른 비문해율의 차이는 농/임/어업 종사자(12.3%)와 단순 노무 종사자(3.8%), 주부(3.0%)를 제외하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업이 지역, 연령, 성, 교육 수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곧, 농/임/어업 종사자는 대부분 군 지역에 거주하고, 연령층이 높으며, 교

육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교육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부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여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 2-5 : 직업별 비문해율>

	응답자수 (명)	비문해자 (명)	조사치 (%)	모집단수 (명)	비문해자수 (명)	비문해율 (%)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관리자	361	1	0.3	1,451,033	2,344	0.2
전문직종사자	606	-	0.0	2,187,522	-	0.0
사무종사자	1,529	-	0.0	5,026,720	-	0.0
서비스종사자	839	1	0.1	2,471,962	1,817	0.1
판매종사자	1,667	3	0.2	5,274,446	6,460	0.1
농/임/어업	690	82	11.9	1,513,758	186,393	12.3
기능종사자	674	1	0.1	1,866,662	1,956	0.1
기계조작/조립	489	1	0.2	1,316,121	2,061	0.2
단순노무종사자	1,483	66	4.5	4,223,560	160,427	3.8
학생	796	-	0.0	2,862,122	-	0.0
주부	2,885	106	3.7	8,807,052	262,168	3.0
무직	44	-	0.0	162,966	-	0.0
무응답	74	-	0.0	170,467	-	0.0

직업군에 따라 문자 활동의 필요성과 비중이 다른 점도 비문해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사무직의 비문해율이 낮은 것이나 농/임/어업,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문해율이 높은 것은 그들의 직무가 문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 준다.

2.2.5 학력 수준별 및 연령별 비문해율

<표 2-6>에서 보듯이, 학력 수준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중졸 이상의 경우에는 비문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미만에서 비문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38.3%), 이는 기초 교육이 문해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의무교육이 급속하게 정착된 점을 고려하면, 초졸 미만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년층의 비문해율이 높은 것과 서로 연계된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98~99%를 오르내리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학력 수준에 따른 비문해율의 편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2-6 : 학력 수준별 비문해율>

	응답자수 (명)	비문해자 (명)	조사치 (%)	모집단수 (명)	비문해자수 (명)	비문해율 (%)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무학 / 초중퇴	603	247	41.0	1,556,892	595,926	38.3
초졸 / 중중퇴	1,006	11	1.1	2,580,942	21,926	0.8
중졸 / 고중퇴	1,229	2	0.2	3,217,312	3,824	0.1
고졸	4,772	1	0.0	14,629,940	1,950	0.0
대학재학 / 중퇴	1,055	-	0.0	3,714,643	-	0.0
전문대졸	890	-	0.0	2,834,694	-	0.0
대졸	2,370	-	0.0	8,048,853	-	0.0
대학원졸 이상	137	-	0.0	513,481	-	0.0
무응답	75	-	0.0	237,632	-	0.0

물론, 취학률이 높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문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200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99%의 문해율을 기록한 데 비해 홍콩(94.6%), 싱가포르(92.5%), 중국(90.9%)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면 문자의 특성, 문자 생활의 양과 질, 문해력의 개념 등에 따라 문해율이 달라짐을 짐작할 수 있다. 음소를 묶어서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한글의 특성 때문에 문해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4년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질 문해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해력이 없는 경우와 문해력이 없어서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초졸 이상의 비문해자를 위한 대책도 같은 맥락에서 수립해야 하는바, 이 경우는 대부분 특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력 수준별 비문해율을 연령과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이것을 통해 보더라도 전 연령에 걸쳐 무학/초중퇴자의 비문해율이 높고, 중졸 이상의 비문해율은 0.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다만 19~29세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 세대이기 때문에 중졸 미만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졸~고졸 수준의 비문해자가 다수 나타났다.

* 실질 문해력은 'document literacy'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서 행위, 학습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문해력 조사 결과 분석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표의 '비문해자' 수는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한 수치이다.

<표 2-7 : 연령별/학력 수준별 비문해>

연령 학력 수준	19~29세			30대			40대			50대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무학 / 초중퇴	25,910	0	0.0	13,999	1,956	14.0	41,329	3,316	8.0	140,318	37,698	26.9
초졸 / 중중퇴	7,366	0	0.0	31,368	0	0.0	141,700	0	0.0	643,547	4,761	0.7
중졸 / 고중퇴	73,235	1,302	1.8	98,927	0	0.0	574,615	0	0.0	1,258,886	0	0.0
고졸	1,512,366	1,950	0.1	3,865,315	0	0.0	4,849,230	0	0.0	2,967,634	0	0.0
대학재학/중퇴	3,247,244	0	0.0	194,450	0	0.0	133,645	0	0.0	73,352	0	0.0
전문대졸	757,566	0	0.0	1,152,972	0	0.0	722,334	0	0.0	161,517	0	0.0
대졸	1,793,494	0	0.0	3,254,049	0	0.0	1,964,964	0	0.0	688,930	0	0.0
대학원졸 이상	49,221	0	0.0	205,435	0	0.0	161,639	0	0.0	71,669	0	0.0
무응답	30,614	0	0.0	47,889	0	0.0	65,354	0	0.0	54,283	0	0.0
	7,497,016	3,253	0.0	8,864,404	1,956	0.0	8,654,810	3,316	0.0	6,060,137	42,459	0.7

연령 학력 수준	60대			70대			전체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Total (명)	비 문해자 (명)	비 문해율 (%)
무학 / 초중퇴	593,864	194,269	32.7	741,473	358,687	48.4	1,556,892	595,926	38.3
초졸 / 중중퇴	1,251,454	6,741	0.5	505,507	10,424	2.1	2,580,942	21,926	0.8
중졸 / 고중퇴	974,206	2,522	0.3	237,443	0	0.0	3,217,312	3,824	0.1
고졸	1,204,949	0	0.0	230,445	0	0.0	14,629,940	1,950	0.0
대학재학/중퇴	35,224	0	0.0	30,729	0	0.0	3,714,643	0	0.0
전문대졸	37,716	0	0.0	2,588	0	0.0	2,834,694	0	0.0
대졸	275,691	0	0.0	71,724	0	0.0	8,048,853	0	0.0
대학원졸 이상	25,516	0	0.0	0	0	0.0	513,481	0	0.0
무응답	35,308	0	0.0	4,185	0	0.0	237,632	0	0.0
전체	4,433,927	203,532	4.6	1,824,094	369,111	20.2	37,334,389	623,626	1.7

2.2.6 소득 수준별 비문해율

<표 2-8>에서 보듯이, 소득 수준을 기본 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를 제외하면 그 차이는 미미하다. 전체 비문해자 261명 중 242명(92.7%)이 100만 원 이하에 분포한 것을 볼 때, 소득 최하위층에서 문해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표 2-8 : 소득 수준별 비문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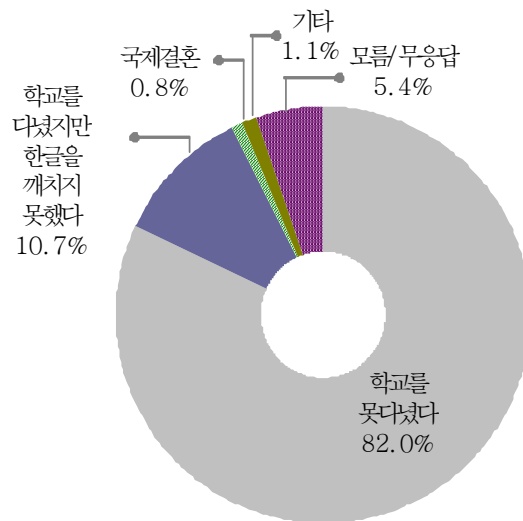
	응답자수 (명)	비문해자 (명)	조사치 (%)	모집단수 (명)	비문해자수 (명)	비문해율 (%)
전체	12,137	261	2.2	37,334,389	623,626	1.7
100만원 이하	5,643	242	4.3	16,651,230	589,400	3.5
101~250만원	4,297	14	0.3	12,709,390	21,269	0.2
251~350만원	994	-	0.0	3,439,603	-	0.0
351~550만원	691	1	0.1	2,612,138	3,392	0.1
551만원 이상	241	-	0.0	1,018,199	-	0.0
모름 / 무응답	271	4	1.5	903,830	9,565	1.1

저소득층에서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과 지역,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60~70대, 군 지역, 농/임/어업 및 단순 노무 종사자, 주부가 비문해율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군 지역도 도시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다. 농/임/어업 및 단순 노무 종사자, 주부의 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곧, 연령, 지역, 직업, 교육 수준, 소득 등의 요인들이 고루 분산되어 문해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비문해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해력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문해력과 소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비문해자의 반응에 대한 기술적 분석

2.3.1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비문해자 261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교를 못 다닌 경우가 82.0%,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가 10.7%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과 같은 기타 이유가 1.9%이고 5.4%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림 2-2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이 결과는 교육 수준 및 연령에 따른 문해율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즉, 초졸 미만의 비문해율이 38.3%(비문해자 중 94.6%를 차지)에 이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문해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된다. 의무교육 확산 및 정착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학교를 못 다녔다.’는 응답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모두 노년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장년층으로서 학교를 못 다닌 사람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비문해의 원인이 대부분 학교 교육을 못 받은 데서 오는 것인 만큼, 학교를 다닌 비문해자와 학교를 못 다닌 비문해자를 위한 대책을 구별해서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를 못 다닌 비문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 대상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고도 비문해자로 남은 경우에는 특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 교육 단계에서 비문해자를 진단하고 문해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이해특아’를 파악하여 집중 지도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에서도 비문해 학생들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수 교육으로서의 문해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학교마다 관련 전문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등을 위한 문해 교육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사람마다 모어가 다르고 본국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문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를 위하여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바, 이 시스템은 입국·적응 단계와 정착·생활 단계로 나누어 전자는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 수준에서, 후자는 각 지자체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1.1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성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이에 따르면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남성 2.2%, 여성 12.6%로 차이가 난다. 이는 노년층 여성들이 ‘학교 문 앞에만 가 본’ 정도를 ‘학교를 다닌 것’으로 진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기 이후 한참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두거나 거의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학교를 다니고도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를 설명하려면 학교 교육의 기간과 질까지 고려하여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2-9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성별>

(%)

구 분	사례수 (명)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국제결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1	82.0	10.7	0.8	1.1	5.4	100.0
▣ 성 별 ▣							
남 자	46	87.0	2.2	0.0	2.2	8.7	100.0
여 자	215	80.9	12.6	0.9	0.9	4.7	100.0

2.3.1.2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연령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여기에서 50~70대를 비교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못 다닌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한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기회 자체를 놓쳐서 비문해자가 된 경우가 많고,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교육 기회 자체를 놓쳤다가보다 교육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비문해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에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일반 지능, 눈과 손의 협응 등 신체 기능, 언어/문자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표 2-10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연령별>

(%)

구 분	사례수 (명)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국제결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1	82.0	10.7	0.8	1.1	5.4	100.0
■ 연령 별 ■							
19 ~ 29세	2	0.0	0.0	50.0	0.0	50.0	100.0
30 대	1	0.0	100.0	0.0	0.0	0.0	100.0
40 대	2	100.0	0.0	0.0	0.0	0.0	100.0
50 대	20	75.0	25.0	0.0	0.0	0.0	100.0
60 대	85	80.0	12.9	1.2	2.4	3.5	100.0
70 대	151	85.4	7.3	0.0	0.7	6.6	100.0

2.3.1.3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지역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학교를 못 다녔다.’는 반응이 대도시와 중/소 도시, 군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수혜 여부가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가 전국적으로 고른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제도 자체보다는 문해 교육이라는 운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표 2-11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지역별>

(%)

구 분	사례수 (명)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국제결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1	82.0	10.7	0.8	1.1	5.4	100.0
■ 지역 별 ■							
서울	3	100.0	0.0	0.0	0.0	0.0	100.0
부산	11	81.8	9.1	0.0	0.0	9.1	100.0
대구	9	66.7	33.3	0.0	0.0	0.0	100.0
인천	2	50.0	50.0	0.0	0.0	0.0	100.0
광주	14	85.7	14.3	0.0	0.0	0.0	100.0
대전	7	100.0	0.0	0.0	0.0	0.0	100.0
울산	2	50.0	0.0	50.0	0.0	0.0	100.0
경기	5	100.0	0.0	0.0	0.0	0.0	100.0
강원	32	46.9	40.6	3.1	3.1	6.3	100.0
충북	11	81.8	0.0	0.0	0.0	18.2	100.0
충남	18	88.9	0.0	0.0	0.0	11.1	100.0
전북	20	80.0	10.0	0.0	0.0	10.0	100.0
전남	43	93.0	2.3	0.0	0.0	4.7	100.0
경북	35	80.0	11.4	0.0	5.7	2.9	100.0
경남	26	92.3	3.8	0.0	0.0	3.8	100.0
제주	23	95.7	0.0	0.0	0.0	4.3	100.0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48	81.3	14.6	2.1	0.0	2.1	100.0
중/소도시	114	82.5	9.6	0.9	1.8	5.3	100.0
군 지역	99	81.8	10.1	0.0	1.0	7.1	100.0

2.3.1.4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소득 수준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이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문해 교육은 교육 기회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문해율이 사회적 자산이듯이, 문해 교육 역시 사회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

<표 2-12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소득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국제결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1	82.0	10.7	0.8	1.1	5.4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242	82.2	10.7	0.8	1.2	5.0	100.0
101~250만원	14	85.7	7.1	0.0	0.0	7.1	100.0
351~550만원	1	0.0	100.0	0.0	0.0	0.0	100.0
모름 / 무응답	4	75.0	0.0	0.0	0.0	25.0	100.0

2.3.1.5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학력 수준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사실상 ‘학교를 다녔다/안 다녔다.’라는 요인과 학력 수준은 같은 변인이기 때문에 초·중졸 미만에서 학교를 안 다녔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이 요인과 관련해서는 앞서 학력 수준별 비문해율 분석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특기할 것은 초졸 이상의 학력자 중에도 비문해자가 있다는 사실로서, 그 숫자로 보아 장애우나 한국어 비모어 화자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문해 상태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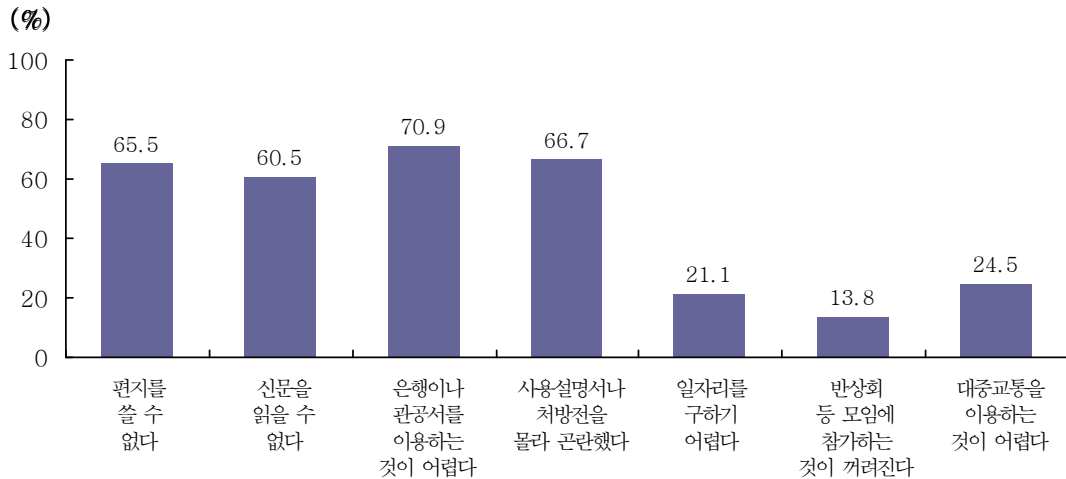
<표 2-13 :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 학력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학교를 못 다녔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국제결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1	82.0	10.7	0.8	1.1	5.4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 / 초중퇴	247	86.2	9.3	0.4	0.4	3.6	100.0
초졸 / 중중퇴	11	9.1	45.5	0.0	18.2	27.3	100.0
중졸 / 고중퇴	2	0.0	0.0	50.0	0.0	50.0	100.0
고 졸	1	0.0	0.0	0.0	0.0	100.0	100.0

2.3.2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261명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는 불편한 점을 물어본 결과 비문해자의 70% 이상이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60% 이상은 편지를 쓸 수 없는 점, 사용설명서나 처방전 등을 읽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복수 응답)>

이 결과로 볼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해력이 필요한 분야를 교육과 직업 외에도 공공생활(공공기관, 마스크 등), 개인생활(편지, 설명서, 대중교통 등), 사회생활(모임 등)로 나누어 그에 적합한 문해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성인을 위해서는 공공생활, 사회생활 등의 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 문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이 교육에 초점을 맞추거나, 청년층의 문해 교육이 직업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비문해가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특성일 뿐이며,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비문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비문해자의 어려움과 문해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문해자의 문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2.3.2.1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성별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2-14>와 같다.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는 하기 어렵고, 신문 읽기에서는 남성이(69.6%), 대중교통에서는 여성이(26.5%) 더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정도가 눈에 띈다. 이는 남녀가 각각 신문과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표 2-14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성별>

(%)

구 분	사례수 (명)	편지를 쓸 수 없다	신문을 읽을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 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반사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전 체	261	65.5	60.5	70.9	66.7	21.1	13.8	24.5
▣성 별▣								
남 자	46	69.6	69.6	69.6	63.0	23.9	10.9	15.2
여 자	215	64.7	58.6	71.2	67.4	20.5	14.4	26.5

2.3.2.2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연령별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40대 이하의 사례 수가 적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50대의 경우 은행/관공서 이용(50%) 및 일자리(35%)가 60~70대보다 의미 있게 높다. 이는 50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에 비해 60대는 신문(67.1%), 70대는 대중교통(26.5%)과 관련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불편을 더 많이 호소한바, 이 역시 60~70대 노년층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표 2-15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연령별>

(%)

구 분	사례수 (명)	편지를 쓸 수 없다	신문을 읽을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 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반사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전 체	261	65.5	60.5	70.9	66.7	21.1	13.8	24.5
▣연령별▣								
19~29세	2	50.0	50.0	50.0	50.0	0.0	0.0	50.0
30 대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40 대	2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50 대	20	70.0	55.0	50.0	70.0	35.0	15.0	20.0
60 대	85	63.5	67.1	76.5	72.9	21.2	11.8	21.2
70 대	151	66.2	58.3	70.2	63.6	18.5	14.6	26.5

2.3.2.3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지역별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사례 수 10 이상인 시도들을 비교해 보면 시도마다 편차가 크고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서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강원, 충북, 경남북, 제주 등 지역은 일자리와 반상회 등의 모임, 대중교통과 관련한 어려움을 적게 호소하는 데 비해(10% 미만) 전남북 지역은 그와 관련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여(15~50%), 국토의 동부 벨트와 서남 벨트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남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차 사회적 특성을 아직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크기별로도 편지, 신문, 은행/관공서, 사용 설명서/처방전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은 대동소이하나, 중/소 도시 지역에서 반상회 등의 모임, 대중교통 관련 비율이 낮고(8.8~11.4%) 군 지역에서는 은행/관공서, 사용 설명서/처방전 관련 비율이 높은 것(70.7~75.8%)이 눈에 띈다. 이는 중/소 도시와 군 지역에 이들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가 더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16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지역별>

(%)

구 분	사례수 (명)	편지를 쓸 수 없다	신문을 읽을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설명 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반상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전 체	261	65.5	60.5	70.9	66.7	21.1	13.8	24.5
▣ 지역별 ▣								
서울	3	33.3	33.3	100.0	66.7	0.0	33.3	33.3
부산	11	54.5	81.8	54.5	63.6	18.2	27.3	18.2
대구	9	77.8	77.8	88.9	44.4	44.4	11.1	22.2
인천	2	50.0	0.0	50.0	0.0	0.0	0.0	0.0
광주	14	57.1	50.0	57.1	64.3	50.0	42.9	35.7
대전	7	71.4	71.4	71.4	100.0	28.6	0.0	42.9
울산	2	100.0	100.0	50.0	100.0	0.0	0.0	50.0
경기	5	60.0	20.0	80.0	60.0	20.0	0.0	20.0
강원	32	68.8	56.3	40.6	50.0	3.1	0.0	3.1
충북	11	36.4	18.2	36.4	27.3	9.1	0.0	18.2
충남	18	55.6	50.0	77.8	77.8	11.1	11.1	16.7
전북	20	90.0	75.0	80.0	85.0	15.0	20.0	15.0
전남	43	79.1	79.1	79.1	74.4	27.9	25.6	51.2
경북	35	54.3	62.9	82.9	54.3	8.6	5.7	14.3
경남	26	80.8	57.7	92.3	73.1	34.6	7.7	42.3
제주	23	43.5	47.8	65.2	87.0	34.8	17.4	8.7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48	62.5	64.6	66.7	64.6	31.3	22.9	29.2
중 / 소 도시	114	64.0	62.3	68.4	64.0	20.2	8.8	11.4
군 지역	99	68.7	56.6	75.8	70.7	17.2	15.2	37.4

2.3.2.4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소득 수준별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사례 수 10 이상인 100만 원 이하 계층과 101~250만 원 계층 공히 편지, 신문, 은행/관공서, 사용 설명서/처방전과 관련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였고, 일자리, 반사회 등 모임, 대중교통과 관련한 불편은 상대적으로 적게 호소하였다. 두 계층을 비교하면 모든 부분에서 100만 원 이하 계층의 불편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사용 설명서/처방전과 반사회 등 모임 부분은 오히려 101~250만 원 계층의 불편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최하위 계층에 비해 설명서/처방전이나 반사회 등 모임 자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소득 수준에 따라 문해력이 필요한 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표 2-17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소득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편지를 쓸 수 없다	신문을 읽을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 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반사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전 체	261	65.5	60.5	70.9	66.7	21.1	13.8	24.5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242	67.8	62.4	72.3	66.1	21.1	13.2	24.8
101~250만원	14	28.6	28.6	50.0	78.6	14.3	14.3	7.1
351~550만원	1	0.0	0.0	0.0	0.0	0.0	0.0	0.0
모름 / 무응답	4	75.0	75.0	75.0	75.0	50.0	50.0	75.0

2.3.2.5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학력 수준별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2-18>과 같다. 사례 수 10 이상인 무학/초중퇴 집단과 초졸/중중퇴 집단을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무학/초중퇴 집단이 불편을 더 많이 호소했다. 이는 같은 비문해자라 하더라도 문자 생활에의 적응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곧, 비문해자라 할지라도 기초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는 비문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이나 맥락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 비문해자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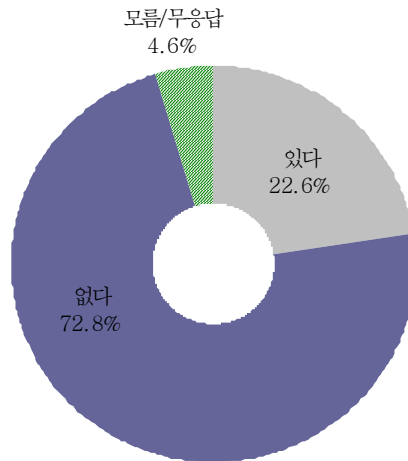
<표 2-18 :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 - 학력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편지를 쓸 수 없다	신문을 읽을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사용 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반사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전 체	261	65.5	60.5	70.9	66.7	21.1	13.8	24.5
■ 학력수준별 ■								
무학/초중퇴	247	66.4	61.9	72.1	67.6	21.9	14.6	25.5
초졸/중중퇴	11	54.5	36.4	54.5	54.5	9.1	0.0	0.0
중졸/고중퇴	2	50.0	50.0	50.0	50.0	0.0	0.0	50.0
고 졸	1	0.0	0.0	0.0	0.0	0.0	0.0	0.0

2.3.3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앞으로 주민 센터나 복지기관 등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면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림 2-4>에 제시되었듯이 비문해자 261명 중 22.6%만이 ‘한글을 배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문해자의 대다수가 연령이 높아서(60대 이상이 전체 비문해자의 90.4%) ‘다 늦게’ 새로 배울 필요를 못 느끼거나, 그동안 한글을 익히는 데 계속 실패해 왔거나(이 경우는 읽기 장애나 쓰기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문해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문해자의 1/5을 조금 넘는다는 사실은 문해 사업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4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2.3.3.1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성별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2-19>와 같다. ‘배울 의향이 있다.’는 반응이 남성(13.0%)에 비해 여성(24.7%)이 두 배 가량 높은데, 이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문해자가 되었다는 의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전쟁기, 경제 개발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문해 교육에서 소외된 데 대한 보상 심리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에도 남성보다 여성 쪽이 문해 교육의 실제 효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성격과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라도 익혀 두면 ‘썩 먹을’ 날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길기 때문이다.

<표 2-19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성별>

(%)

구 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261	22.6	72.8	4.6	100.0
▣ 성 별 ▣					
남 성	46	13.0	78.3	8.7	100.0
여 성	215	24.7	71.6	3.7	100.0

2.3.3.2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연령별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숫자 상 무의미한 40대 이하를 배제하면,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동안 ‘한글을 배울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향이 없다.’는 반응은 계속 증가한다. 이는 비문해자들이 그동안 비문해 상태로 살아 온 시간, 앞으로 문자를 배워서 활용할 시간, 새로 문자를 익히는 데 드는 노력과 자신의 지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을 비문해 상태로 살아 왔고, 이제 와서 새로 배우기는 어려운데다 배워 봐야 활용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에 대한 문해 교육의 접근 방향이 더 세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해력을 단순 기능보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여, 노년층의 학습 의욕을 촉발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문해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표 2-20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연령별>

(%)

구 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261	22.6	72.8	4.6	100.0
▣ 연 령 별 ▣					
19 ~ 29세	2	50.0	0.0	50.0	100.0
30 대	1	100.0	0.0	0.0	100.0
40 대	2	50.0	50.0	0.0	100.0
50 대	20	45.0	55.0	0.0	100.0
60 대	85	25.9	71.8	2.4	100.0
70 대	151	16.6	77.5	6.0	100.0

2.3.3.3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지역별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21>과 같다. 전 지역에서 ‘배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낮다. 사례수 10 이상 지역 중 특히 강원(6.3%)과 충북(9.1%)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한데, 이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문해 교육을 받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부산(36.4%), 광주(35.7%), 전북(35.0%) 지역은 상대적으로 배울 의향이 있다는 반응의 비율이 높았다. 부산과 광주는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으나, 전북 지역이 높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 볼 때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다.

지역 크기별로 보면 대도시가 아무래도 배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33.3%) 중/소 도시(19.3%)와 군 지역(21.2%)은 그보다 낮았다. 이 역시 문해 학습의 편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환경에 따라 문해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표 2-21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지역별>

(%)

구 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261	22.6	72.8	4.6	100.0
▣ 지역별 ▣					
서 울	3	0.0	100.0	0.0	100.0
부 산	11	36.4	54.5	9.1	100.0
대 구	9	44.4	55.6	0.0	100.0
인 천	2	0.0	100.0	0.0	100.0
광 주	14	35.7	64.3	0.0	100.0
대 전	7	28.6	71.4	0.0	100.0
울 산	2	50.0	50.0	0.0	100.0
경 기	5	40.0	60.0	0.0	100.0
강 원	32	6.3	90.6	3.1	100.0
충 북	11	9.1	72.7	18.2	100.0
충 남	18	22.2	66.7	11.1	100.0
전 북	20	35.0	55.0	10.0	100.0
전 남	43	25.6	69.8	4.7	100.0
경 북	35	20.0	77.1	2.9	100.0
경 남	26	15.4	80.8	3.8	100.0
제 주	23	21.7	78.3	0.0	100.0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48	33.3	64.6	2.1	100.0
중 / 소도시	114	19.3	76.3	4.4	100.0
군 지역	99	21.2	72.7	6.1	100.0

2.3.3.4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소득 수준별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2-22>와 같다. 100만 원 이하 계층과 101~250만원 계층 모두 한글을 배울 필요성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21~22%). 이는 소득 수준이 문해 학습에 대한 욕구와 무관함을 말해 준다.

<표 2-22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소득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261	22.6	72.8	4.6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242	22.3	73.6	4.1	100.0
101~250만원	14	21.4	71.4	7.1	100.0
351~550만원	1	0.0	100.0	0.0	100.0
모름 / 무응답	4	50.0	25.0	25.0	100.0

2.3.3.5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학력 수준별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2-23>과 같다. 숫자 상 무의미한 중졸 이상을 배제하면, 무학/초중퇴 집단과 초졸/중중퇴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같이 ‘한글을 배울 의향이 없다.’에 72~73%의 반응을 보였다. 초졸/중중퇴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비문해 상태인 것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배울 생각이 없다.’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모름/무응답’ 반응을 배울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곧,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은 학력 수준과는 무관하다.

<표 2-23 : 앞으로 한글을 배울 의향 - 학력 수준별>

(%)

구 분	사례수 (명)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261	22.6	72.8	4.6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 / 초중퇴	247	23.5	73.7	2.8	100.0
초졸 / 중중퇴	11	0.0	72.7	27.3	100.0
중졸 / 고중퇴	2	50.0	0.0	50.0	100.0
고 졸	1	0.0	0.0	100.0	100.0

2.3.4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비문해자들에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정부가 해 주었으면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 주었으면’, ‘한글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으면’, ‘집으로 찾아와 가르쳐 주었으면’, ‘한글을 가르치는 기관이 많았으면’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매우 소수로서, 대다수의 비문해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글을 배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2.6%에 불과한 것과 관계있는 반응으로, 비문해자들이 문해에 대한 욕구가 적고 정부에 대한 기대도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성인 비문해자의 경우 문해 학습 욕구 부진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 2-24 :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반응 내용	사례수 (명)	%
■ 전 체 ■	261	100.0
가까운 곳에서 공부 배울 수 있게	5	1.9
한글 가르치는 기관 많았으면	3	1.1
면에서 농한기 때 쉽게 가르쳐 주었으면	3	1.1
집으로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으면	3	1.1
복지관을 통해 글을 가르쳐 주었으면	2	0.8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 주었으면	2	0.8
한글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으면	2	0.8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증진	1	0.4
한글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침서 있었으면	1	0.4
간단한 계산 할 수 있게	1	0.4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복지관 시간 조정이 자유로웠으면	1	0.4
없다	192	73.6
모름/무응답	45	17.2

응답자들의 반응은 주로 문해 교육 기관과의 거리, 비용 등 교육 편의성 측면에 집중되었다. 앞서 지역별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도시 지역이 문해 교육에 더 적극적인 것도 이와 관련이 된다. 군 지역은 물론이고 중/소 도시 지역에도 비문해자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장소, 지도 인력의 측면에서 정부와 학교, 민간 기구의 협력을 통하여 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5 비문해자 실태에 관한 논의

조사 결과, 2008년 한국 성인(19~79세)의 비문해율은 1.67%(문해율 98.33%)로 나타났다. 이는 1945년 해방 당시의 비문해율 77.8%는 물론이고 1970년의 7.0%에 비해 비약적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른 OECD 비문해율 평균 2.3%(2007년)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서, 적어도 기초·기본 문해력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이 79세(조사 범위 내 최고령)가 되는 2024년이면 그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완전 비문해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분적인 비문해자, 혹은 실질적 비문해자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장(章)에서는 완전 비문해자만을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이어지는 문해력 점수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 비문해자 실태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문해 교육 체제를 세워야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자는 대체로 여성, 노인층, 군 지역 거주자, 농/임/어업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 저학력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개인의 문해력에 영향을 주고, 문해력이 다시 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개인의 문해력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사회경제적 위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문해자는 공공생활과 개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극적으로 문해 교육을 받겠다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는 노령 등으로 인해 문해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해 교육에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거나, 현실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해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비문해자가 언어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50대 이하의 성인 비문해자는 이주민, 질환·장애를 가진 사람, 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 대부분이다. 보통교육 외에 이들을 위한 문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학교, 민간 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해 교육 불가능 군(질환·장애 등)과 문해 교육 회피 군(연령, 실패 경험, 수치심 등)에 적합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응답자들의 반응을 통해 볼 때, 교재·교사·교실 등의 문해 교육 시스템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일이 문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비문해자를 일종의 실패자로 여기거나 계몽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보다는 비문해를 여러 인간 특성 중 하나로 보고 삶의 질 차원에서 그들을 문해 쪽으로 이끄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응답을 거부하거나, 비문해자임을 밝히지 않거나, 비문해자로 분류된 뒤에 응답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들은 모두 비문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들이다.

다섯째, 문해 교육을 위한 이론 및 기초 연구,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교육, 특수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들 작업을 통하여 성인 비문해자의 수를 줄이고, 남아 있는 비문해자들의 문자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1.67%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문자 습득기 식민지 경험 등의 비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다.

제3장 문해자 조사 결과 분석

3.1 문항 분석

3.1.1 문항별 평가 영역 분석

기초 문해력 조사는 국립국어원과 국어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개발한 질문지에 조사 대상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용적이고 교양적인 글, 서식 등의 다양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읽고 쓰는 능력(기초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총 문항 수는 25문항이며,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실제 문항의 내용은 보고서의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가 문항의 자료들은 크게 ‘교양’과 ‘실용’으로 구분된다. ‘교양’은 제시된 자료가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문항에 포함된 예로는 ‘포크 댄스, 신기술·통신,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세계 시간, 사전 활용’을 들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 평가 문항들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초 문해력에 있기 때문에, 교양적 지식 자체를 평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실용’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빈번하게 경험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예로는 ‘부동산 정보, 초대장, 가정통신문, 일기예보, 전입신고서, 우체국 용무, 복약 설명서, 무통장 입금증, 제품 보증 약관, 일기도, 물품 판매 전단지, 구인 광고, 명함, 약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자료 공익광고, 도서 소개, 텔레비전 편성표’등이다. 이들 문항들은 일반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건강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처리와 수용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 영역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사실적 이해의 문항은 제시된 언어 자료나 도식을 바탕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은 어떤 정보가 제시된 자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보들의 상황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이해의 문항은 제시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정보의 도출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비판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이해 문항은 자칫 지나치게 평가 문항의 난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국민 기초 문해력 평가라는 기본 정신을 벗어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번 평가 문항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도출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까지를 비판적 이해에 포함시켰다. 총 25개 문항 중 사실적 이해는 13문항(52%), 추론적 이해는 9개 문항(36%), 비판적 이해는 3개 문항(12%)이다.

<표 3-1 : 국민 기초 문해력 평가 문항의 주요 내용>

문항 번호	구분	영역	내용
1	교양	사실적 이해	포크댄스
2	실용	사실적 이해	부동산정보
3	교양	비판적 이해	신기술·통신
4	실용	사실적 이해	초대장
5	실용	추론적 이해	가정통신문
6	실용	추론적 이해	법령문
7	실용	추론적 이해	일기예보
8	실용	사실적 이해	전입신고서
9	실용	추론적 이해	우체국 용무
10	실용	추론적 이해	복약 설명서
11	실용	사실적 이해	안내문
12	교양	사실적 이해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13	실용	사실적 이해	무통장 입금증
14	실용	추론적 이해	제품 보증 약관
15	실용	사실적 이해	일기도
16	실용	사실적 이해	세일전단지 일부
17	교양	추론적 이해	세계시간
18	실용	비판적 이해	구인광고
19	실용	사실적 이해	명함
20	교양	사실적 이해	사전 활용
21	실용	사실적 이해	약도
22	실용	비판적 이해	문화센터
23	실용	추론적 이해	공익광고
24	실용	사실적 이해	도서소개
25	실용	추론적 이해	TV 편성표

3.1.2 문항별 난이도 분석

문항의 난이도 분석은 난이도 지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난이도 지수는 전체 응답자 중 정답을 맞힌 응답자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답률과 동일한 개념이다. ‘2008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 정답률이 약 6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5개 문항 중 ‘문9, 문12, 문17’의 정답률이 40%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문1, 문4, 문5, 문7, 문19번’의 경우 정답률이 8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난이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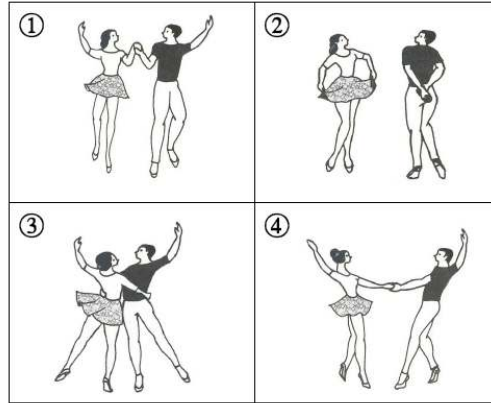
<표 3-2 : 문항별 난이도 분석>

문항번호	문항주제	평가영역	정답률
1	포크댄스	사실적 이해	95.8
2	부동산 정보	사실적 이해	71.2
3	신기술·통신	비판적 이해	48.4
4	초대장	사실적 이해	85.8
5	가정통신문	추론적 이해	80.7
6	법령문	추론적 이해	40.3
7	일기예보	추론적 이해	83.8
8	전입신고서	사실적 이해	53.2
9	우체국 용무	추론적 이해	24.6
10	복약 설명서	추론적 이해	68.3
11	안내문	사실적 이해	67.8
12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사실적 이해	37.2
13	무통장 입금증	사실적 이해	78.2
14	제품 보증 약관	추론적 이해	71.6
15	일기도	사실적 이해	56.1
16	세일 전단지 일부	사실적 이해	70.5
17	세계 시간	추론적 이해	32.3
18	구인 광고	비판적 이해	69.1
19	명함	사실적 이해	84.2
20	사전 활용	사실적 이해	61.9
21	약도	사실적 이해	56.7
22	문화 센터	비판적 이해	43.9
23	공익 광고	추론적 이해	72.6
24	도서 소개	사실적 이해	63.4
25	TV 편성표	추론적 이해	71.8
평 균			63.58

먼저, 문항 1은 정답률이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 1은 포크댄스의 그림과 이를 설명하는 언어 자료를 함께 제시한 후, 이를 상호 관련지어 정확히 이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 사실적 이해의 문항이다. 제시된 문자 언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답률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항은 1차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여 연구진 회의 과정에서 문항으로서의 변별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기초 문해력의 측정이라는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포함되었다.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팔로 상대의 허리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다음의 문항 2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세 정보를 다룬 것으로 도식이나 그래프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식이나 그래프는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예들로서, 다양한 정보들을 도식화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세계 주요 선진국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국제성취도 평가 비교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은 ④번인데 반해 조사 대상자들의 10% 내외가 답지 ②번과 ③번으로 잘못 반응함으로써 상당수가 그래프나 도식에 나타난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 2) 다음 부동산 정보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인 아파트이다.
- ② 시세 정보는 약 1개월 간격으로 갱신된다.
- ③ 3월에서 6월까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모두 변화가 없다.
- ④ 2월과 3월 사이에 매매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했다.

다음의 문항 3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와 관련된 신기술·통신에 대한 것으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이 문항은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 비판과 평가를 통한 창의적 이해와 표현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정답률이 48.4%에 머물러 사실적 이해에 비해 어려운 문항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지문에서 ‘16가지 종류의 기본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조합한 대로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는 진술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휴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신기술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3) 다음 글을 읽고 난 뒤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딩동, 향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로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의 한 이동통신사는 최근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메뉴 중에서 향을 골라 전송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향이 분사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 발생 장치에는 16가지 종류의 기본 향이 들어 있어 마치 프린터 잉크가 조합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조합한 대로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① 전달 가능한 향기가 겨우 16가지밖에 안 됩니까?
- ② 인공적인 향기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 ③ 전달 받은 향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 ④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다음 문항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조문에 대한 문해력을 측정하고자 출제된 것이다. 법조문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와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정답률은 40.3%로 예상대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록 법령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항이라 사실적 이해보다는 어려움이 클 수 있으나, 각종 법령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쉽고 간명한 표현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 6) 다음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 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 있군.
- ②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혈액 채취 결과만 인정이 되는군.
- ③ 음주 운전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은 바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명할 수 있군.
- ④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이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군.

다음 문항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일기 예보와 관련된 것으로, 정답률은 8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기예보 텍스트가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빈번하게 소통되고 있어서 친숙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추론하는 내용 역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로서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문 7) 다음의 날씨 생활 지수를 참고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2008년 ○월 ○일 날씨 생활 지수>

	빨래지수 : 20 잘 마르지 않아요		외출지수 : 30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세차지수 : 20 세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우산지수 : 70 휴대 편리한 우산으로 준비

- ①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 준다.
- ②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
- ③ 먼지가 쌓인 차를 구석구석 닦는다.
- ④ 이불 빨래를 한다.

다음 문항 8은 “전입신고서”에 대한 것으로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행정 서식이다. 문항의 내용도 서식에 나타난 내용이나 서식의 작성과 관련한 사실적인 이해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정답률은 53.2%에 머물러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서식 자체가 갖는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고 다양한 내용과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각종 행정 서식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문 8) 다음 전입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입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신고서 접수 번호: 0227 신고일: 2008년 3월 2일			
새로 살 곳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구성 <input type="checkbox"/> 다른 세대로 편입 <input type="checkbox"/> 세대합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홍길동 서명(인)	홍영희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760420 - 1000000	781212 - 2000000
	전화번호	041-777-1111	세대주와의 관계 아내
주소	충청남도 남산시 사당1동 331번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① 이 서식은 국내 전입신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반드시 세대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 ③ 허위로 신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 문항 9는 “우체국 용무”에 대한 것으로 정답률이 24.6%에 머물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무게, 크기, 배달 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는데, 절반 이상(50.9%)의 대상자들이 무게와 지역만을 고려하여 오답 반응을 보였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이라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문항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도 너무 낮은 정답률을 보여 최종 검사 도구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출제자들 사이에 논의가 분분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국민 기초 문해력에 충분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선택된 것이다.

문 9) 서울에 사는 철수는 울릉도에 사는 영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물의 무게는 5kg 이며,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cm 입니다. 철수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얼마입니까?

<우체국 택배 요금표>

무게 (크기)	2kg까지 (60cm까지)	5kg까지 (80cm까지)	8kg까지 (100cm까지)	10kg까지 (120cm까지)
동양지역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타지역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도서지역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 주의사항 :

-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을 말함.
- 무게와 크기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요금이 적용됨.



- ① 5,000원
- ② 6,000원
- ③ 7,000원
- ④ 8,000원

다음 문항 11은 인터넷 공지 사항의 안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일상적 삶과 관련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적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이해할 수만 있으면 해결 가능한 문항이다. 정답률은 67.8%로서 평균인 63.6을 상회하는 반응을 보였다.

문 11) 다음 공지 사항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	[공지 사항] 봉투 가격 인상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봉투나라' 에서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종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저희 '봉투나라' 에서도 부득이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0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대봉투와 중봉투입니다. 소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이 공지 사항은 '봉투나라'의 관리자가 작성한 것이다.
- ② 봉투 가격은 위의 공지 사항이 작성된 날부터 인상되었다.
- ③ 봉투 가격 인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 ④ 모든 종류의 봉투 가격이 인상되었다.

다음의 문항 12는 2008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와 관련한 ‘투표 확인증’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투표자에 한해 무료 주차 혜택을 부여하는 안내문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37.2%의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문 12) 다음은 2008년 4월 9일의 선거 때 배포된 ‘투표 확인증’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투표 확인증 이용 안내

사용 가능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선거 당일만 이용 가능),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 지역 제외)

유효 기간 2008년 4월 9일 ~ 4월 30일
(시설별 사용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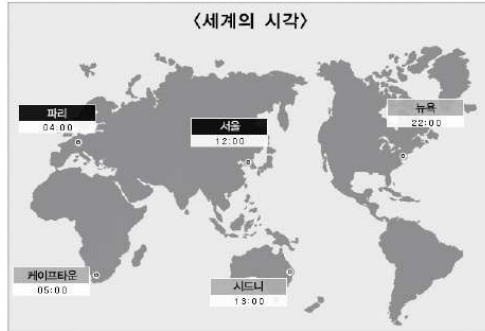
이용 방법

-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 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 ‘투표 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투표 확인증’은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 ① 나는 확인증이 두 장 있으니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겠네요.
- ② 오늘은 4월 30일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 ③ 이 주차장은 할인이 안 될지 모르니 미리 물어봐야 해요.
- ④ 확인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해 주겠지.

다음 문항 17은 세계의 현지 시각을 묻는 것으로 국제화 시대의 국민 기초 문해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된 그림을 통해 서울보다 파리가 8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항인데, 밤 11시를 23시로 환산하지 않고 접근해서인지 답지 ①로 오답 반응한 예가 많았다. 답지 ④로 정답 반응한 비율은 32.3%로 전체에서 “우체국 용무”에 이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문 17)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 ① 오전 3시 ② 오전 6시
- ③ 오후 6시 ④ 오후 3시

다음 문항 19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함 형식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률은 84.2%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문 19) 다음 명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앞면 〉

〈 뒷면 〉

- ① 상품 가격 ② 상점 이름
- ③ 상점 주소 ④ 상품 종류

다음 문항 20은 국어사전 활용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특정 어휘와 관련한 적절한 사전적 개념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정답률은 61.9%로 평균(63.6%)에 조금 못 미치는 반응률을 보여 주었다. 제시된 자료를 충실히 이해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항이었으나, 대체로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활용하는 습관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20) 다음 안내문에 나온 ‘부리’는 아래 국어사전의 몇 번 뜻풀이에 해당합니까?

< 안내문 >

이름	국보 제96호 청자귀형수병(靑磁龜形水瓶)
시대	고려 시대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거북을 형상화했으며, 물을 넣는 수구(水口), 물을 따르는 부리, 몸통,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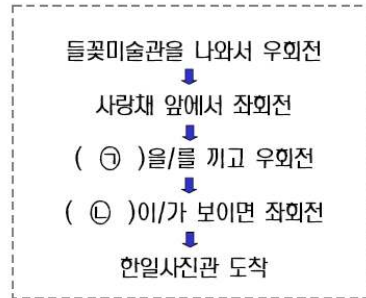
< 국어사전 >

부리 ¹ 명	①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 길고 뾰족하며 보통 뿔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 <예>부리로 쪼다. ②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 <예>소매의 부리/총의 부리. ③병과 같이 속이 막혀 있는 물건에서 한 쪽 끝이 터진 부분. <예>병의 부리/주전자 부리. ④사람의 입을 낚잡아 이르는 말. <예>늘 이놈의 부리가 말썽이다./부리를 닦쳐라.
--------------------------	---

- ① 뜻풀이 ‘①’
- ② 뜻풀이 ‘②’
- ③ 뜻풀이 ‘③’
- ④ 뜻풀이 ‘④’

다음의 문항 21은 약도 이해와 관련한 것으로, 약도를 보고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된 약도는 인터넷에 제시된 실제 약도를 일부 수정하여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다. 답지 ②의 정답에 대한 반응률은 56.7%로서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모름/무응답” 반응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많은 4.9%에 이르렀다. 그만큼 약도를 보고 설명하는 언어활동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약도 자체가 대체로 실제 지리를 반영하여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정답률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랑채 앞에서 좌회전”이 두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뒤이어지는 정보들을 분석하면 정답은 답지 ②로 비교적 명확하게 도출된다. 이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약도 설명도 상당한 문해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해 준다.

문 21) '들꽃미술관'에서 '한일사진관'으로 가기 위한 길을 메모했습니다. ㉠과 ㉡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① 하늬바람 | 모자이크 |
| ② 여우비 | 장난감박물관 |
| ③ 여우비 | 소나무향기 |
| ④ 가을이네 | 장난감박물관 |

다음 문항 22는 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으로, 정답률이 43.9%로 역시 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량과 정보구조가 대체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있으나,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 것에 비하면 정답률이 낮은 편이다.

문 22) 다음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노인복지기관 관련자, 실버산업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 교육 기간: 2008년 1월 10일부터
- 교육 장소: 경기도청 3층 대회의실
- 교육 비: 전과정 5만 원, 개별 파견 각 1만 원, 특강은 무료!!
- 교육 문의: 222-6026

○ 교육 내용

일	교육일시	강의주제	강사	비고
1	1월10일(화) 15:00~17:00	문화 마케팅 전략	김수미(문화부)	특강
2	1월16일(월) 14:00~16:00	'행복도시락' 사례 분석	서진수(행복닷컴)	
3	1월16일(월) 16:00~18:00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유송원(벤처대)	
10	2월12일(금) 16:00~18:00	노인의 눈으로 보는 영화와 방송	김정호(영화감독)	특강
11	2월 중	시업 이메일 발표회	미정	
12	2월 말	해의 사례 탐방		
13	3월 초	해의 탐방 결과 보고회		

* 개별 강의선택 가능

- ①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 ② 교육은 특정 요일에 실시된다.
- ③ '노인의 눈으로 보는 영화와 방송' 특강은 서진수 씨가 강의한다.
- ④ 5만원을 내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1.3 문항별 변별도 분석

문항의 변별도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정답률 차이를 통해 출제된 문항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지수에 해당한다. 즉, 변별도 지수(D)는 상위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집단의 정답률을 뺀 값을 소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변별도는 어떤 문항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맞고 틀리는 경향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좋은 문항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변별도 지수가 '0.4'이상이면 좋은 문항으로 '0.1'이하이면 폐기 대상의 나쁜 문항으로 판단한다. 문항이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변별도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어 적절한 판별도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상위집단(85점 이상 37명)과 하위집단(50점 이하 36명) 사이의 정답률 차이로 변별도 계산

$$D(\text{변별도 지수}) = \text{상위집단의 정답률} - \text{하위집단의 정답률}$$
- 변별도 지수(D)는 반드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 문항이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D=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문항의 변별력을 판단함.

변별도 지수	문 항 평 가
.40 이상	아주 좋은 문항
.30 ~ .39	비교적 좋은 문항.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11 ~ .29	그저 그런 문항. 개선이 필요함
.10 이하	부족한 문항. 폐기하거나 재작성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변별도는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항 1과 문항 19를 제외하고는 모두 0.4 이상의 높은 변별도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항 1은 포크댄스와 관련된 그림과 해당 설명을 연결하는 과제였다. 문항 19는 명함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과제였다. 이들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각각 0.22와 0.28로 나타났는데, 1차 예비조사 과정에서도 문항이 지나치게 쉽다는 지적과 함께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 검사 도구에 포함시킬지 여부로 논의가 분분했다. 그러나 이들 문항 모두가 일상생활과 관련한 국민 기초 문해력 측정의 중요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문항의 난도와 관계없이 최종 검사 도구에 포함되었다. 요컨대 전체적인 문항의 변별도는 0.56으로서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출제진들이 다수의 문항을 출제한 후 논의를 거쳐 선별하고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거치는 등 문항 검토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3 : 문항별 변별도 분석>

문항번호	문항주제	평가영역	상위집단 정답 (명)	하위집단 정답 (명)	변별도 지수
1	포크댄스	사실적 이해	37	28	0.22
2	부동산정보	사실적 이해	37	17	0.53
3	신기술·통신	비판적 이해	32	8	0.64
4	초대장	사실적 이해	37	18	0.50
5	가정통신문	추론적 이해	37	12	0.67
6	법령문	추론적 이해	34	14	0.53
7	일기예보	추론적 이해	37	16	0.56
8	전입신고서	사실적 이해	37	13	0.64
9	우체국 용무	추론적 이해	22	3	0.51
10	복약 설명서	추론적 이해	37	12	0.67
11	안내문	사실적 이해	36	5	0.83
12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사실적 이해	22	4	0.48
13	무통장 입금증	사실적 이해	37	19	0.47
14	제품 보증 약관	추론적 이해	34	14	0.53
15	일기도	사실적 이해	33	11	0.59
16	세일전단지 일부	사실적 이해	34	10	0.64
17	세계시간	추론적 이해	26	4	0.59
18	구인광고	비판적 이해	37	16	0.56
19	명함	사실적 이해	37	26	0.28
20	사전 활용	사실적 이해	36	7	0.78
21	약도	사실적 이해	34	9	0.67
22	문화센터	비판적 이해	34	8	0.70
23	공익광고	추론적 이해	37	21	0.42
24	도서소개	사실적 이해	37	17	0.53
25	TV 편성표	추론적 이해	35	15	0.53
평 균					0.56

3.1.4 문항별 응답자 반응 분포

총 25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은 63.6%로 전체적으로 정답에 대한 반응률이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응답자 반응 분포는 다음의 표에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표 3-4 : 문항별 응답자 반응분포 분석>

(%)

문항 번호	문항 주제	평가 영역	1	2	3	4	모름/무응답	합계
1	포크댄스	사실적 이해	1.7	0.8	95.8	1.3	0.4	100.0
2	부동산정보	사실적 이해	4.1	9.8	12.2	71.2	2.7	100.0
3	신기술·통신	비판적 이해	48.4	14.0	13.1	21.6	2.9	100.0
4	초대장	사실적 이해	2.5	7.2	85.8	3.2	1.4	100.0
5	가정통신문	추론적 이해	3.8	80.7	10.4	3.3	1.7	100.0
6	법령문	추론적 이해	18.9	13.4	23.8	40.3	3.5	100.0
7	일기예보	추론적 이해	83.8	6.1	3.3	5.4	1.5	100.0
8	전입신고서	사실적 이해	11.9	15.8	16.9	53.2	2.2	100.0
9	우체국 용무	추론적 이해	18.1	50.9	24.6	3.3	3.1	100.0
10	복약 설명서	추론적 이해	15.3	68.3	8.1	6.4	1.8	100.0
11	안내문	사실적 이해	67.8	13.7	10.0	5.8	2.7	100.0
12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사실적 이해	6.1	48.0	37.2	5.7	3.1	100.0
13	무통장 입금증	사실적 이해	4.4	78.2	8.4	6.8	2.1	100.0
14	제품 보증 약관	추론적 이해	8.5	8.2	9.3	71.6	2.4	100.0
15	일기도	사실적 이해	10.7	15.4	56.1	14.3	3.6	100.0
16	세일전단지 일부	사실적 이해	70.5	14.4	6.7	5.6	2.8	100.0
17	세계시간	추론적 이해	41.8	11.0	10.6	32.3	4.3	100.0
18	구인광고	비판적 이해	11.5	69.1	11.2	4.5	3.7	100.0
19	명함	사실적 이해	84.2	7.6	4.3	1.9	2.0	100.0
20	사전 활용	사실적 이해	13.9	15.0	61.9	4.8	4.4	100.0
21	약도	사실적 이해	6.6	56.7	9.3	22.5	4.9	100.0
22	문화센터	비판적 이해	26.5	14.6	11.5	43.9	3.5	100.0
23	공익광고	추론적 이해	72.6	15.0	6.5	3.8	2.1	100.0
24	도서소개	사실적 이해	8.7	14.2	63.4	9.8	3.9	100.0
25	TV 편성표	추론적 이해	4.9	71.8	13.4	6.2	3.7	100.0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9번, 12번, 17번 문항은 각각 오답에 대한 반응률이 정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응률이 낮은 문항들은 대체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정보(예: 9번의 우체국 택배 관련 문항, 17번의 세계 시간 문항),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문항(예: 20번의 사전 활용 문항),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항(예: 6번의 도로교통법과 음주 운전 관련 문항, 12번의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안내문 등)들에 해당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문장을 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25문항 중에 직접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두 문제였는데, 이 두 문항이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 정답률 63.6%)

- 택배 요금 계산 문제: 정답률 24.6%
- 시차 계산 문제: 정답률 32.3%

또한 법령문 등 전문적 내용이거나 투표 참여자 우대 안내문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사전 찾기 등 생활에서 자주 겪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명함이나 초대장, 무통장입금증 등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내용을 다룬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문항별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는 앞의 ‘3.1.2 문항별 난이도 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3.2 문해력 점수 분석

3.2.1 문해력 점수 결과 개요

이번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 성인들의 문해력 점수는 평균 63.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 도구는 국민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3학년까지를 마치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기초 문해력 측정을 목표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문해력 조사는 의무교육의 마지막 학년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평균은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들의 평균은 이보다 13.8점 낮은 63.6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특성을 보면,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문항을 특히 어려워하여 25문항 중, 직접 계산을 요구하는 두 문항의 경우 정답률이 24.6%, 3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전문적 내용이나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문항은 정답률이 낮았고,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내용을 다룬 문항은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비문해자(1.7%)와 문장 이해력이 매우 낮은 1수준(5.3%)을 제외한 나머지 93%의 성인은 일상생활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5.3%는 완전 비문해자는 아니더라도 기초 문해력이 상당히 부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은행이나 관공서의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7%의 비문해자와 5.3%에 이르는 문해력 부진자를 합치면 전체 성인의 7%인 약 260여만 명의 사람들이 문해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1.1 문해력 점수 분석

문해력 점수는 크게 ‘문해력 부진’과 ‘기초 문해력 보유’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0수준’, ‘1수준’, 후자를 2~4수준으로 나누어 모두 5단계로 분석하였다.

<표 3-5 : 문항별 점수 분석>

	단계	점수	문해력 정도	비율	비고
문해력 부진 (7%)	0수준 (완전비문해자)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음	1.7%	
	1수준 (반문해자)	24점 이하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은 거의 없음	5.3%	중학생 평균의 30% 이하
기초 문해력 보유 (93%)	2수준	28~48점	-초청장, 명함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 -다소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함	21.1%	중학생 평균의 30~60%
	3수준	52~72점	-신문기사나 광고, 공공기관 서식 등 일상적인 생활문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음 -법령문 등 복잡한 문서의 이해나 추론 능력은 부족함	36.8%	중학생 평균의 70~80%
	4수준	76점 이상	-길고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이 복잡한 문장도 잘 이해할 수 있음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추론할 수 있음	35.1%	중학생 평균 수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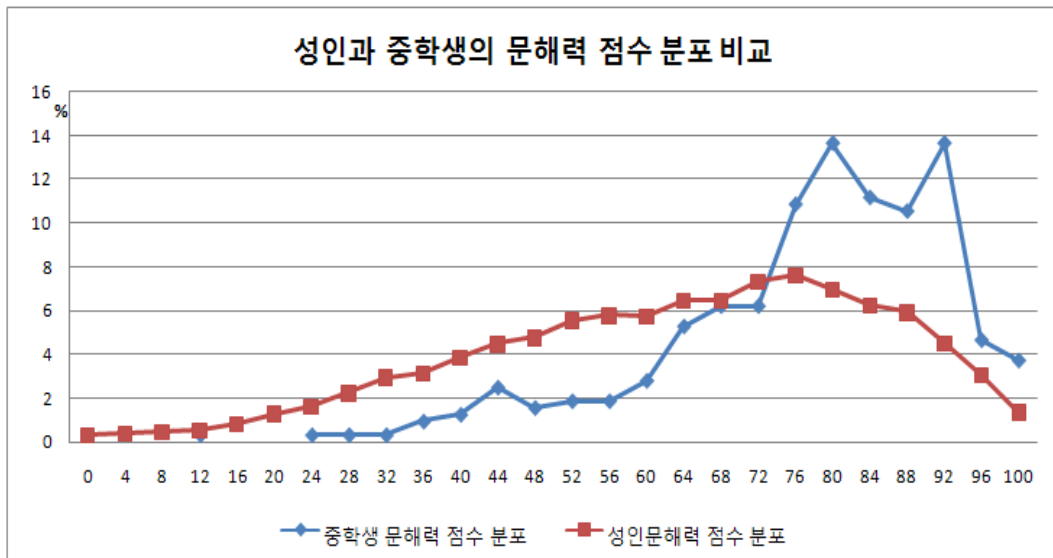
19세~79세 성인의 5.3%는(약 200만 명 추정) 문장 이해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半文解, semi-literacy) 상태로,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남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2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93%의 성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문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8.1%의 성인들이 신문기사, 공공기관 서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0~2수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언어문화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1.2 성인과 중학생의 문해력 점수 비교

성인의 문해력 평균 63.6점은 중학교 3년생 평균 점수인 77.4점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1.6점으로, 중학생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가장 높은 4수준 해당자는 성인의 경우 35.1%에 불과했으나, 중학생들은 68%에 달하였으며, 문장 이해력이 거의 없는 1수준의 경우 성인은 5.3%였으나, 중학생은 0.62%(조사 대상자 중 2명)에 불과하였다.

즉 대체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과정을 수학하면 기초 문해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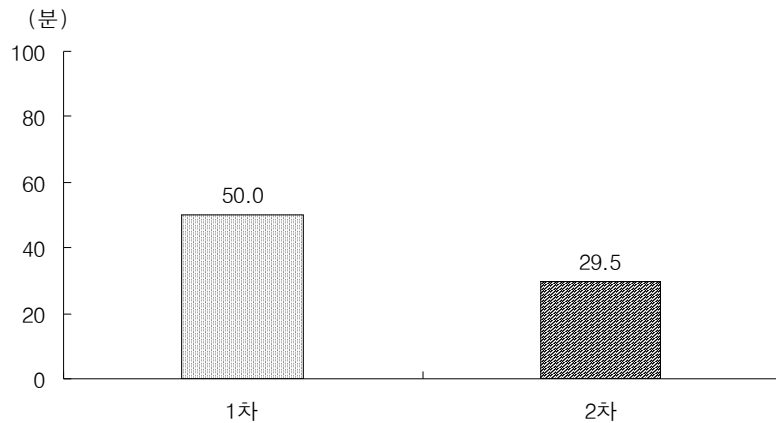


<그림 3-1 : 성인과 중학생의 문해력 점수 분포 비교>

수학적 계산이 포함된 문제는 성인(정답률 24.6%)과 중학생(정답률 36.3%) 모두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의 경우 ‘전입 신고서’,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안내문’, ‘구인 광고’ 등 학생들에게 익숙지 않은 상황 관련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았고, 법령문이나 신문기사 등 길고 복잡한 지문 관련 문항은 성인들보다 정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3.2.2 소요 시간

2차 예비조사의 경우 문해력 문항을 풀어내는 데 평균적으로 29.5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차 조사 대비 20.5분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는 1차 예비조사의 경우 문항이 복잡하고 지문이나 자료의 정보량이 많아서 소요 시간이 50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면대면의 면담식 조사 방식에서 1인당 50분이라는 시간은 면담자나 피면담자 모두에게 상당히 긴 시간이다. 따라서 1차 예비조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소요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대체로 30분 내외에 모든 문항을 풀 수 있도록 각 문항들이 담고 있는 정보량과 복잡성을 조정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평가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림 3-2 : 소요 시간>

1차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문항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검사에서 응답자 특성별로 소요된 시간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직업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소요 시간은 각각 미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25~30분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즉,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29.1분과 29.8분으로 여성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리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따라 각각 28.2분, 29.6분, 30.9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은 읍면 지역의 대상자들이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 3-6>을 보면 연령대별 소요 시간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각 연령대에 따라 평균 23.1분에서 35.4분으로 대체로 연령에 따라 소요 시간이 약 2~3분씩 더 소요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의 효과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연령에 따른 학력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졸 및 중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약 37분, 고졸은 29.3분, 대졸은 26.7분이 소요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학력 변인 역시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학생(대학재학)들이 22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 반면, 대학원졸은 31.3분으로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생을 기점으로 학력과 연령 변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학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서는 학력 변인 소요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서는 연령 변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인지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27세를 기점으로 인간의 기억력이 감소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 : 응답자 특성별 문해력 점수 및 소요 시간>

구 분		소요 시간(분)
전체		29.5
성별	남성	29.1
	여성	29.8
지역크기	대도시	28.2
	중소도시	29.6
	읍면지역	30.9
연령대	20대	23.1
	30대	27.9
	40대	29.7
	50대	34.4
	60대	33.8
	70대	35.4
직업	관리직	31.0
	기계조립직	27.5
	기능직	30.7
	노무직	30.0
	농림어업	38.3
	무직	30.7
	사무직	29.4
	서비스직	26.6
	전문직	29.5
	판매직	28.3
	학생	21.9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30.8
	101~200만원	30.0
	201~250만원	24.1
	251~350만원	29.6
	351~550만원	28.2
	551만원 이상	23.3
학력	무응답	28.0
	초졸이하	36.9
	중졸이하	36.6
	고졸	29.3
	대학재학	22.0
	대졸	26.7
	대학원졸 이상	31.3
무응답	20.0	
평 균		29.25

직업별로는 학생층이 21.9분으로 가장 낮은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농림어업 종사자가 38.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 학력 및 연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수준과 소요 시간과의 관계도 대체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100만원 이하 소득자와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각각 30.8분과 30분으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에 201만~250만원의 소득자는 29.1분, 351만~550만원의 소득자는 28.2분, 551만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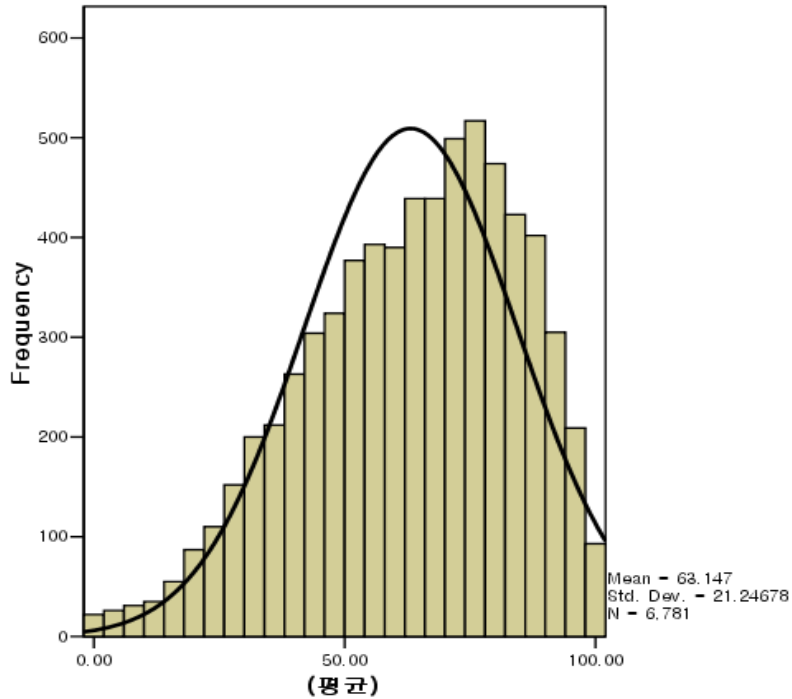
상의 소득자는 23.3분이 소요되었다. 이로써 소득에 따른 문제 해결 소요 시간이 대체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지 하나 201만~250만원의 소득자가 가장 적은 시간을 보여 주기 때문에 소득과 소요 시간 사이에 절대적인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전술한 학력, 연령의 변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3 점수대별 분포 현황

응답자들의 문해력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위 10%는 28점 이하, 상위 10%는 88점 이상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에 제시된 도표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76점을 정점으로 하여 조금 우측(고득점)으로 쏠린 정규 분포의 형태를 보여준다.

<표 3-7 : 점수대별 분포 현황>

점수	사례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0	22	0.32	0.32
4	26	0.38	0.71
8	31	0.46	1.17
12	35	0.52	1.68
16	55	0.81	2.49
20	87	1.28	3.78
24	110	1.62	5.40
28	152	2.24	7.64
32	200	2.95	10.59
36	212	3.13	13.71
40	263	3.88	17.59
44	304	4.48	22.08
48	324	4.78	26.85
52	377	5.56	32.41
56	393	5.80	38.21
60	390	5.75	43.96
64	439	6.47	50.44
68	439	6.47	56.91
72	499	7.36	64.27
76	517	7.62	71.89
80	474	6.99	78.88
84	423	6.24	85.12
88	402	5.93	91.05
92	305	4.50	95.55
96	209	3.08	98.63
100	93	1.37	100
Total	6,7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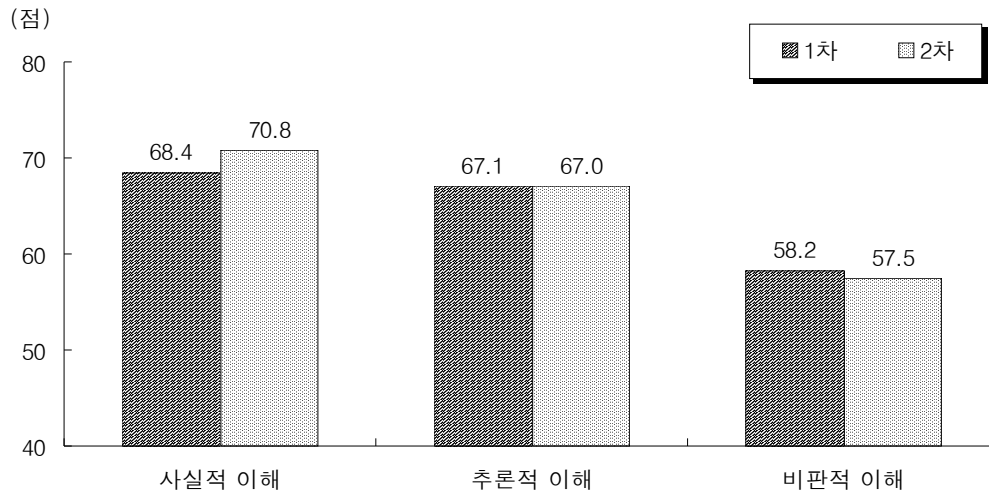
<그림 3-3 : 점수대별 분포 현황>

점수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19.8%가 50점 이하,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전체의 34.1%로 나타났다.

3.2.4 평가 영역별 문해력 점수

평가 영역별로 볼 때 사실적 이해 영역이 7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판적 이해 영역이 57.5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는 1차 예비조사에 비하여 사실적 이해는 약 2점 정도 높아진 반면, 비판적 이해는 1점 정도 낮아진 수치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3개 영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문해력 점수가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문해력 수준이 3개 영역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추론적 이해 부분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3-4 : 평가영역별 문해력 점수>

다음 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문해력 점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 연령대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전문직, 소득 수준별로는 351만~550만원, 학력별로는 대졸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문해력 점수>

(집)

구 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전체		70.8	67.0	57.5
성별	남성	71.4	66.8	58.5
	여성	70.3	67.2	56.7
지역크기	대도시	68.8	62.2	54.7
	중소도시	74.7	73.2	61.7
	읍면지역	68.9	66.3	56.4
연령대	20대	78.4	72.9	64.6
	30대	82.4	75.1	68.9
	40대	71.4	72.5	60.7
	50대	63.5	59.5	49.5
	60대	49.8	49.7	35.3
	70대	40.7	25.4	19.0
직업	관리직	61.5	60.0	66.7
	기제조립직	79.8	68.1	58.3
	기능직	79.2	75.6	50.0
	노무직	50.0	66.7	41.7
	농림어업	54.5	50.9	36.1
	무직	66.4	63.6	54.9
	사무직	78.6	78.6	64.3
	서비스직	68.4	64.9	50.9
	전문직	93.1	76.7	80.0
	판매직	75.8	68.9	68.3
학생	75.4	74.1	64.5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66.9	63.5	53.8
	101~200만원	70.5	65.5	51.8
	201~250만원	79.1	75.4	69.0
	251~350만원	76.9	74.1	68.1
	351~550만원	79.6	75.8	70.6
	551만원 이상	59.0	63.0	55.6
	무응답	63.5	57.0	41.7
학력	초졸이하	48.1	43.0	20.8
	중졸이하	57.7	51.1	28.3
	고졸	69.6	68.1	59.0
	대학재학	76.4	73.8	66.7
	대졸	82.7	77.3	74.8
	대학원졸 이상	78.8	63.9	66.7
	무응답	92.3	100.0	100.0

3.2.5 응답자 특성별 문해력 점수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 기초 문해력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점수 평균인 77.4점을 100으로 볼 때, 국민 기초 문해력의 환산 점수는 81.6점에 해당한다.

응답자 특성별 문해력 점수는 크게 성별, 연령별, 학력 수준별, 직업별, 소득 수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별 문해력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64.5점으로 여성의 61.8점에 비해 2.7점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서 여성 비문해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학력도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문해력 점수는 20대 전후에서 70대에 이르는 구간에서 정확히 연령에 비례함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소요시간’과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소요 시간은 학력, 연령 두 변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술한 바 있다.) 즉, 19~29세에는 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30대에서는 69.8로 역시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반면에서 40대에는 65.1점으로 다소 떨어진다. 50, 60, 70대는 각각 59.2점, 48.8점, 37.3점으로 대체로 10점 정도씩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30대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서 40대 이후에는 연령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대체로 연령에 따라 문해력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연령에 따른 학력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직업별 문해력 점수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이 모두 72점 내외의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농/임/어업과 단순 노문 종사자가 각각 48.2와 55.9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소득 수준별로는 100만 원 이하 소득자와 100만 원 이상 소득자 간의 차이가 5점 이상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들에서는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즉, 100만원 이하 소득자 평균이 59.1점인데 반해, 100만 원 이상은 65점 내외의 다소 미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3-9 : 응답자 특성별 문해력 평균 점수>

(점)

		응답자 수 (명)	문해력 평균 점수	문해력 평균 점수 추정치	중학교3학년 비교점수
■ 전 체 ■		6,781	63.2	63.6	81.6
성 별	남 자	3,417	64.5	64.7	83.3
	여 자	3,364	61.8	62.5	79.8
연 령 별	19 ~ 29세	1,344	71.0	70.2	91.7
	30 대	1,583	69.8	69.5	90.3
	40 대	1,614	65.1	64.9	84.1
	50 대	1,124	59.2	59.2	76.5
	60 대	780	48.8	50.6	63.1
	70 대	336	37.3	39.3	48.2
학 력 수 준 별	무학 / 초중퇴	198	35.8	39.3	46.3
	초졸 / 중중퇴	562	43.0	43.5	55.6
	중졸 / 고중퇴	664	53.2	52.9	68.8
	고 졸	2,696	63.0	63.1	81.5
	대학재학 / 중퇴	654	70.4	69.5	91.0
	전문 대졸	616	70.6	68.9	91.3
	대 졸	1,304	73.2	72.3	94.6
	대학원졸 이상	86	77.0	75.5	99.5
무 응 답	1	40.0	40.0	51.7	
직 업 별	관 리 자	217	71.8	71.1	92.8
	전문직종사자	346	72.3	71.5	93.5
	사무종사자	825	71.7	70.6	92.6
	서비스종사자	578	62.4	62.5	80.7
	판매종사자	1,090	64.9	64.6	83.8
	농/임/어업	335	48.2	48.1	62.3
	기능종사자	371	65.1	65.1	84.2
	기계조작/조립	254	62.2	62.0	80.3
	단순노무종사자	830	55.9	56.1	72.2
	학 생	454	71.0	70.1	91.7
	주 부	1,451	58.5	59.5	75.6
	무 직	23	71.7	70.9	92.6
	무 응 답	7	55.4	52.6	71.6
소 득 수 준 별	100만원 이하	3,013	59.1	60.0	76.4
	101~250만원	2,580	66.3	66.0	85.7
	251~350만원	551	66.4	66.6	85.7
	351~550만원	352	69.4	69.6	89.6
	551만원 이상	115	65.3	64.7	84.4
	모름 / 무응답	170	61.6	60.5	79.6

※ 중학교 3학년 비교점수=(문해력 평균 점수(비추정치) / 77.4(중학교 3학년 문해력점수 평균))×100

지역별 문해력 점수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각각 약 64점 내외와 57점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줄 뿐, 기타 지역별 세부 차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문해력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72.9점) 지역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56.7점)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 지역 특성별 문해력 평균 점수>

(집)

		응답자 수 (명)	문해력 평균 점수	문해력 평균 점수 추정치	중학교3학년 비교점수
■ 전 체 ■		6,781	63.2	63.6	81.6
지역크기별	대 도시	3,100	63.4	64.6	81.9
	중 / 소도시	2,809	64.7	63.9	83.6
	군 지역	872	57.3	56.2	74.1
지역 별	서울	702	67.8	67.8	87.6
	부산	476	58.8	58.9	76.0
	대구	429	57.4	57.6	74.2
	인천	435	66.0	66.0	85.2
	광주	352	67.6	68.0	87.4
	대전	365	66.3	66.8	85.7
	울산	341	57.4	57.7	74.2
	경기	698	62.0	62.1	80.1
	강원	349	72.9	73.5	94.3
	충북	368	60.6	61.4	78.3
	충남	390	60.2	60.6	77.7
	전북	384	67.4	68.3	87.0
	전남	362	59.4	60.1	76.7
	경북	409	56.7	57.4	73.3
	경남	440	63.1	63.2	81.5
	제주	281	67.3	67.5	87.0

※ 중학교 3학년 비교점수=(문해력 평균 점수(비추정치) / 77.4(중학교 3학년 문해력점수 평균))×100

다음 표에 제시된 “국어생활 특성별 문해력 점수” 비교는 각각 모어, 월평균독서량별, 신문 구독 시간별, 인터넷 이용 시간별, TV 시청 시간별, 사전 사용 여부에 따른 독해력 차이를 보여준다.

모어별 차이는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50% 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표 3-11 : 국어생활 특성별 문해력 평균 점수>

(집)

		응답자 수 (명)	문해력 평균 점수	문해력 평균 점수 추정치	중학교3학년 비교점수
■ 전 체 ■		6,781	63.2	63.6	81.6
모 어 별	한 국 어	6,762	63.2	63.6	81.7
	중 국 어	4	44.0	49.0	56.9
	일 본 어	1	48.0	48.0	62.0
	영 어	2	36.0	28.8	46.5
	베트남 어	2	14.0	16.3	18.1
	러시아 어	2	56.0	63.6	72.4
	인도네시아어	2	58.0	58.2	75.0
	말레이 어	1	28.0	28.0	36.2
무 응 답	5	63.2	65.4	81.7	
월 평균 독서량	전혀 읽지 않음	2,985	56.9	57.8	73.6
	1 권	2,319	67.0	66.9	86.7
	2 ~ 3 권	1,044	69.6	69.3	89.9
	4 ~ 5 권	238	69.5	69.3	89.9
	6권 이상	184	70.5	70.2	91.1
	모름 / 무응답	11	53.5	51.8	69.1
하루 평균 신문 구독 시간별	전혀 읽지 않음	2,127	58.1	59.2	75.1
	30분 미만	2,703	65.2	65.1	84.2
	30분~1시간 미만	1,529	66.6	66.9	86.1
	1시간~2시간 미만	326	63.2	62.8	81.6
	2시간이상	89	62.7	59.3	81.0
	모름 / 무응답	7	56.6	55.4	73.1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별	전혀 사용하지 않음	2,190	51.9	53.0	67.0
	30분 미만	961	65.5	64.7	84.7
	30분~1시간 미만	1,169	68.7	68.1	88.8
	1시간~2시간 미만	1,188	69.8	69.5	90.2
	2시간이상	1,269	69.5	68.9	89.8
	모름 / 무응답	4	52.0	48.9	67.2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별	전혀 보지 않음	226	69.4	67.9	89.7
	30분 미만	559	69.8	68.4	90.2
	30분~1시간 미만	1,200	68.0	67.8	87.9
	1시간~2시간 미만	2,041	66.2	66.5	85.5
	2시간이상	2,752	56.9	57.9	73.6
	모름 / 무응답	3	46.7	45.4	60.3
사전 사용 여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	1,828	69.9	68.7	90.3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문맥을 보고 뜻을 짐작한다	2,767	65.7	65.9	84.9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주변사람에게 묻는다	584	58.8	58.1	76.0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	1,585	52.6	54.6	67.9

※ 중학교 3학년 비교점수 = (문해력 평균 점수(비추정치) / 77.4(중학교 3학년 문해력점수 평균)) × 100

월평균 독서량에 따른 문해력 점수 차이는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집단과 1권 이상의 책을 읽는 집단 간에 10점 이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1권 이상 읽는 집단에서는 2~3점 내외로 비교적 적은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신문과 인터넷 사용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는 많이 시청하는 집단일수록 문해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2시간 이상 시청하는 집단(약 57점)과 2시간 이하로 시청하는 집단(약 66~69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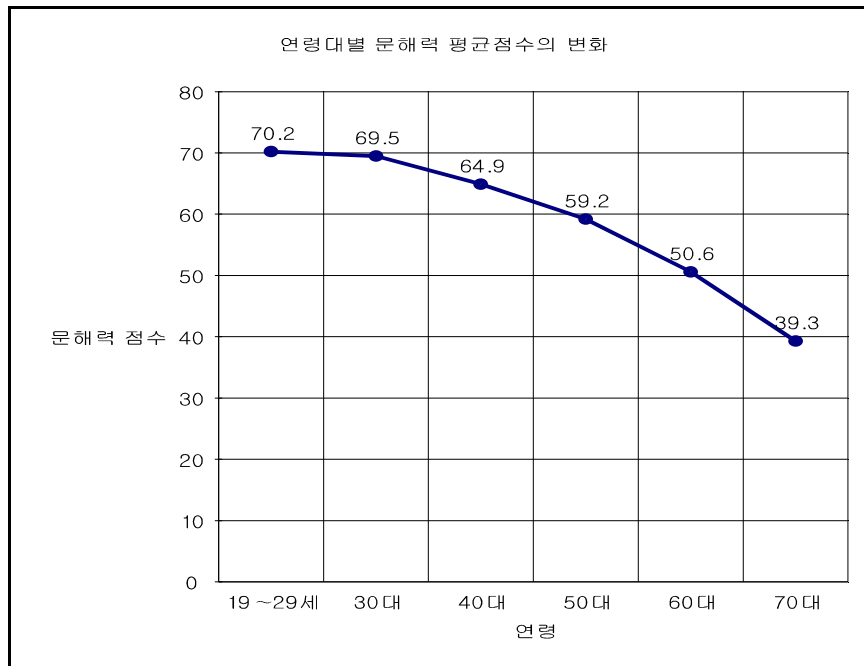
사전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용어가 나올 경우 사전을 찾아보거나(69.9점), 문맥 추론을 하는 경우(65.7점)가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58.8점), 그냥 지나치는 경우(52.6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다음에 제시된 표들은 이들 응답자별 특성을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해 본 것이다.

3.2.6 문해력 평균 점수 교차 분석

3.2.6.1 연령별/학력수준별 문해력 평균 점수

이번 문해력 조사 결과 문해력 점수는 대체로 연령에 반비례하고, 학력 수준에 정비례함을 보여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문해력 점수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나, 학력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문해력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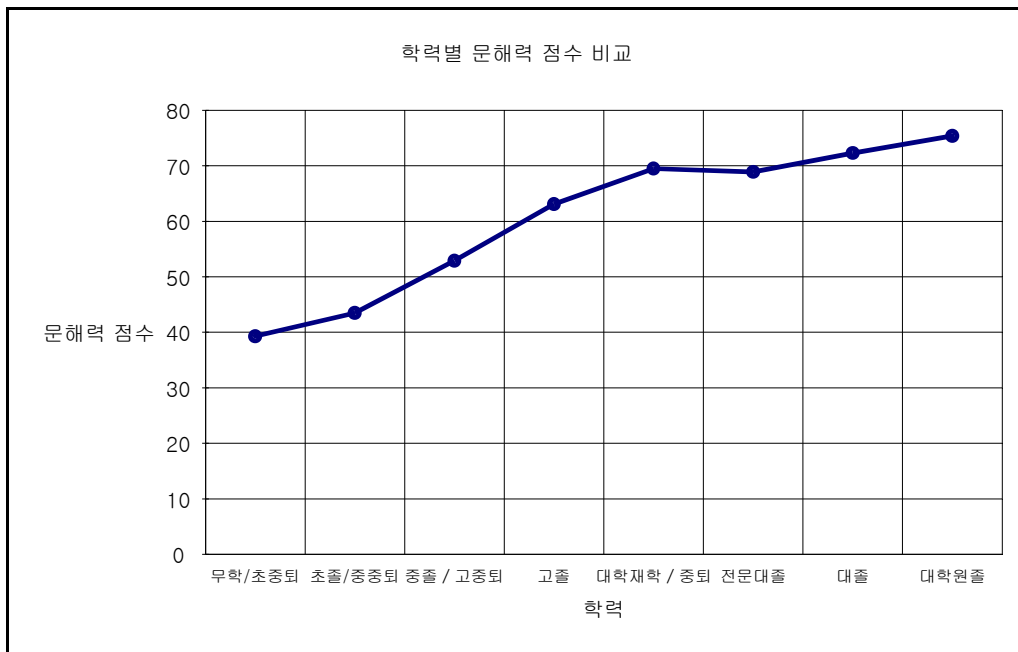


<그림 3-5 : 연령대별 문해력 평균 점수의 변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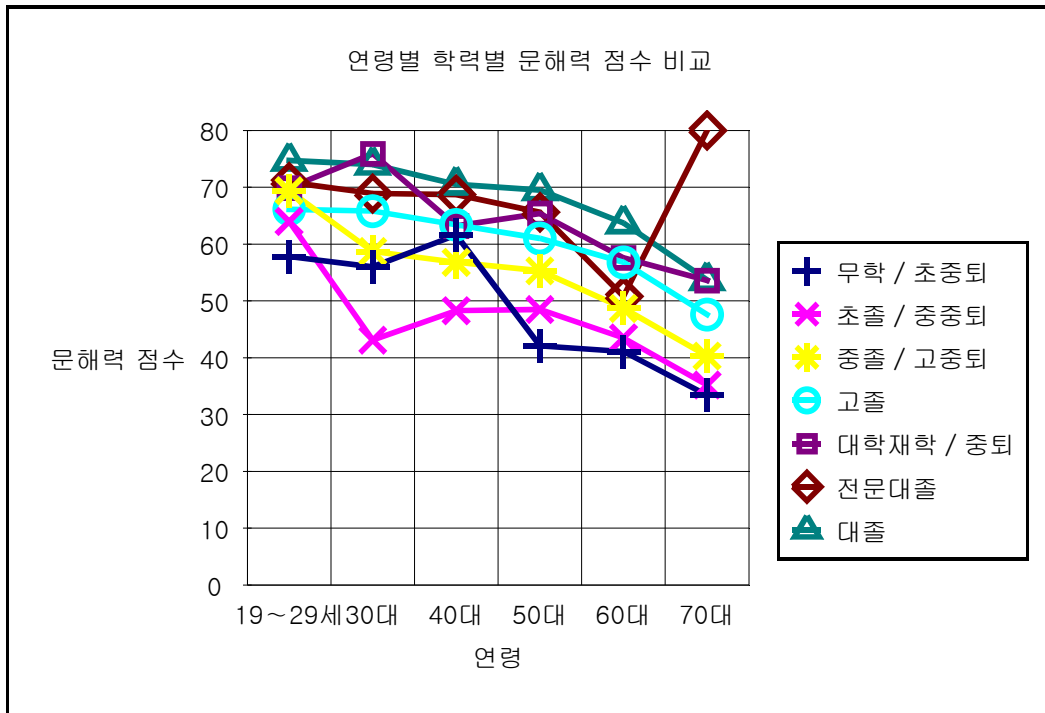
먼저 연령과 문해력 점수의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자. 30세 미만인 19~29세의 평균점수는 70.2점, 30대 미만은 69.5점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20대가 0.7점이 높다. 또한 40대는 64.9점으로 30대에 비해 4.6점이 낮다. 50대는 평균 59.2로 40대에 비해 5.7점이 낮으며, 60대는 50대에 비해 8.6점이 낮다. 70대는 평균 39.3점으로 60대에 비해 무려 11.3점이 낮다. 연령이 높을수록 문해력이 떨어짐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특히 60대를 전후하여 점수는 큰 폭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다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문해력 점수는 거의 비례하여 증가한다. 특히 대학 재학을 전후하여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6 : 학력별 문해력 평균 점수의 변화>

다음 그래프는 각 연령대별로 문해력 점수를 비교·대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문해력 점수가 크게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학/초중퇴자들 중 40대에서 문해력 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전문대 졸업자들의 70대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변인이 작용한 것인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림 3-7 : 연령별/학력별 문해력 점수 비교>

학력 수준별, 연령대별 구체적인 문해력 점수 결과를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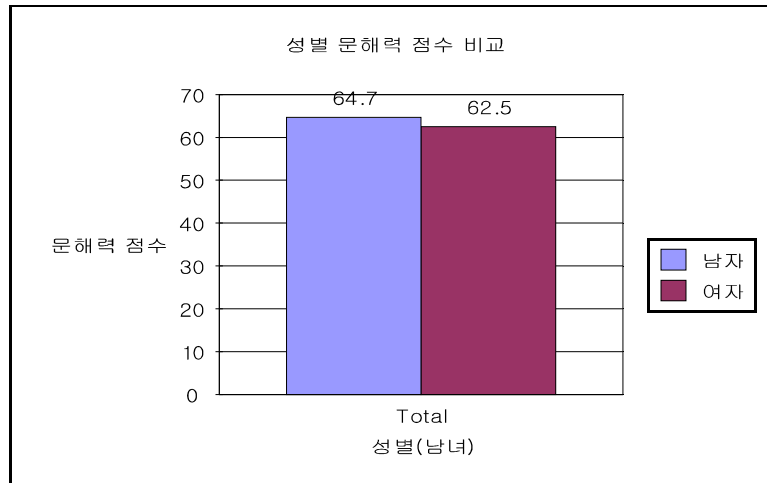
<표 3-12 : 연령/학력수준별 문해력 평균 점수>

(점)

학력수준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무학 / 초중퇴	57.8	56.0	61.6	42.1	41.1	33.4	39.3
초졸 / 중중퇴	64.0	43.1	48.3	48.5	43.5	35.2	43.5
중졸 / 고중퇴	69.4	58.7	56.8	55.3	48.7	40.3	52.9
고졸	66.1	65.8	63.4	61.0	56.8	47.6	63.1
대학재학 / 중퇴	69.9	75.9	63.2	65.4	57.6	53.6	69.5
전문대졸	70.9	68.9	68.7	65.6	50.8	80.0	68.9
대졸	74.7	74.0	70.5	69.5	63.7	53.7	72.3
대학원졸 이상	84.7	77.9	70.5	73.8	73.3	-	75.4
무응답	-	-	-	-	40.0	-	40.0
Total	70.2	69.5	64.9	59.2	50.6	39.3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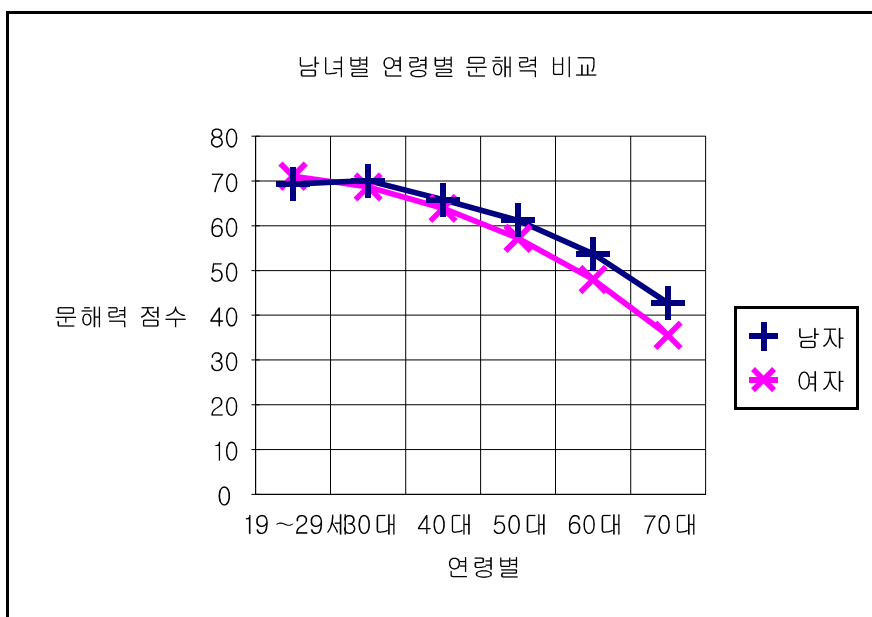
3.2.6.2 성별/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

성별/연령별 문해력 점수에도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남자들의 평균 문해력 점수는 64.7로 여자 평균 62.5에 비해 2.2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 성별 문해력 점수 비교>

그런데 다음의 성별/연령별 문해력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30대 미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30대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적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9 : 성별/연령별 문해력 점수 비교>

성별/연령별 문해력 점수의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3 : 성별/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

(점)

연령 \ 성	남자	여자	Total
19~29세	69.3	71.1	70.2
30대	70.1	68.7	69.5
40대	65.8	63.9	64.9
50대	61.2	57.2	59.2
60대	53.7	48.0	50.6
70대	42.7	35.5	39.3
Total	64.7	62.5	63.6

3.2.6.3 점수대별 교차분석표

다음은 학력/연령별 문해력 점수의 교차분석표이다.

① 24점 이하 응답자 분포 특성

아래 제시된 표는 24점 이하 반응자(문해력 점수 취득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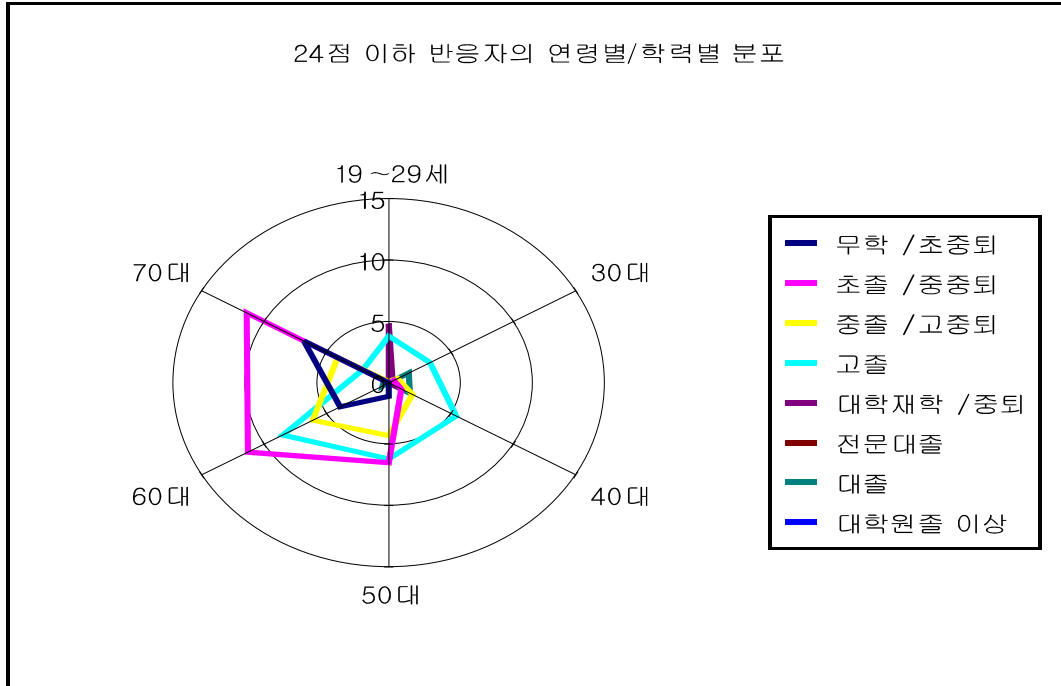
<표 3-14 : 학력/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24점 이하)>

(%)

학력수준 \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무학 / 초중퇴	-	-	-	1.1	3.9	6.8	11.8
초졸 / 중중퇴	-	0.4	1.0	6.5	11.3	11.4	30.7
중졸 / 고중퇴	0.1	0.7	1.9	4.3	6.1	4.1	17.3
고졸	3.8	3.3	5.4	6.2	8.5	2.1	29.3
대학재학 / 중퇴	4.8	0.3	1.1	-	0.1	-	6.2
전문대졸	-	0.3	0.1	0.3	-	-	0.6
대졸	-	1.6	1.7	-	0.5	0.4	4.2
대학원졸 이상	-	-	-	-	-	-	-
무응답	-	-	-	-	-	-	-
Total	8.7	6.6	11.2	18.4	30.4	24.8	100.0

다음의 방사형 그래프는 각 점수대별로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어떤 집단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면적의 크기를 통해 상대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4점 이하의 반응자들은 대부분 50대~70대 사이의 초졸/중중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40~60대 고졸자들과 50~70대의 무학/초중퇴자, 중졸/중퇴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졸자나 대학재학/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 여기에서 무학/초중퇴자들의 비중(면적)이 작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해당 구성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조사 대상 인원 중에서 해당 구성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한국인들 중 가장 문해력이 낮아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전문 활동에서 가장 곤란을 겪거나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대 다수집단은 50~70대의 초졸/중중퇴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0 : 24점 이하 반응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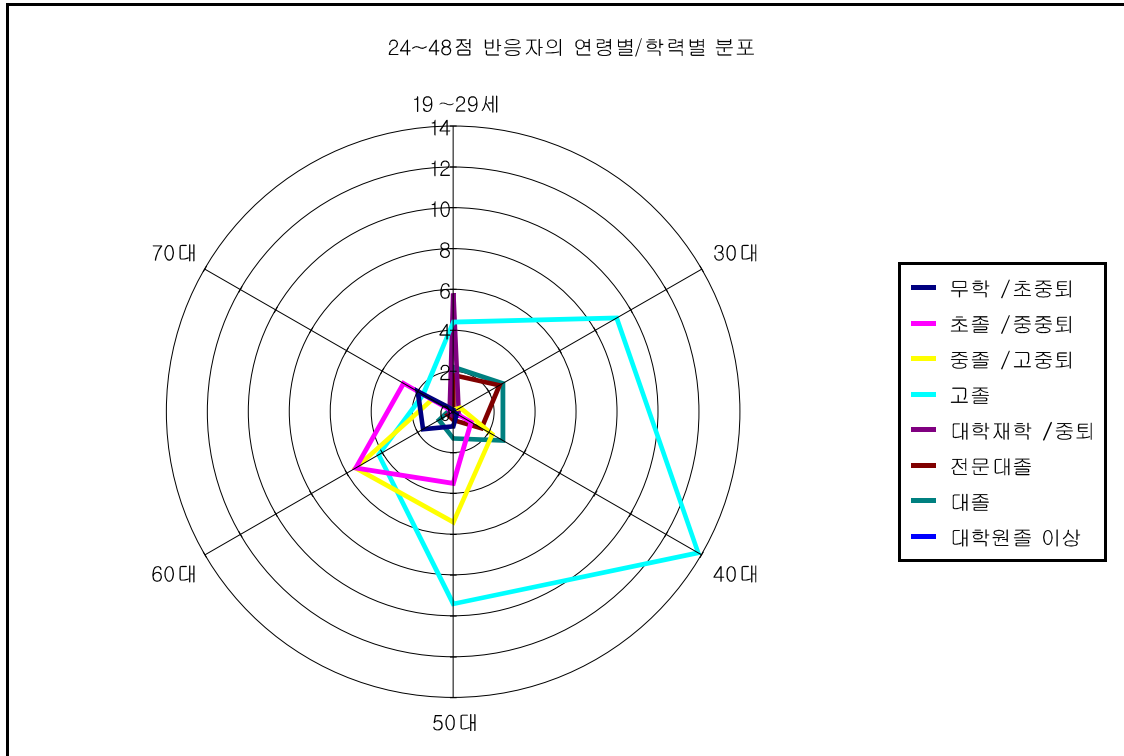
② 28~48점 이하 응답자 분포 특성

문해력 점수가 24~48점인 사람들의 연령별/학력수준별 분포(비율, %)는 다음과 같다.

<표 3-15 : 학력/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28~48점)>

학력수준 \ 연령	(%)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무학 / 초중퇴	0.1	-	0.2	0.7	1.7	2.0	4.7
초졸 / 중중퇴	-	-	1.0	3.5	5.5	2.8	13.0
중졸 / 고중퇴	0.1	0.4	2.2	5.4	5.5	1.2	14.8
고졸	4.4	9.2	13.8	9.4	4.2	1.7	42.7
대학재학 / 중퇴	5.8	0.3	0.3	0.2	0.2	0.2	7.1
전문대졸	1.8	2.6	1.6	0.4	0.3	-	6.8
대졸	2.2	2.8	2.8	1.3	0.8	0.2	10.2
대학원졸 이상	-	0.1	0.4	0.1	0.1	-	0.6
무응답	-	-	-	-	0.1	-	0.1
Total	14.5	15.5	22.2	21.2	18.5	8.1	100.0

24~48점 사이의 문해력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다음 방사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0~50대 사이의 고졸자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70대의 초졸/중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 : 24~48점 반응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

③ 52~72점 이하 응답자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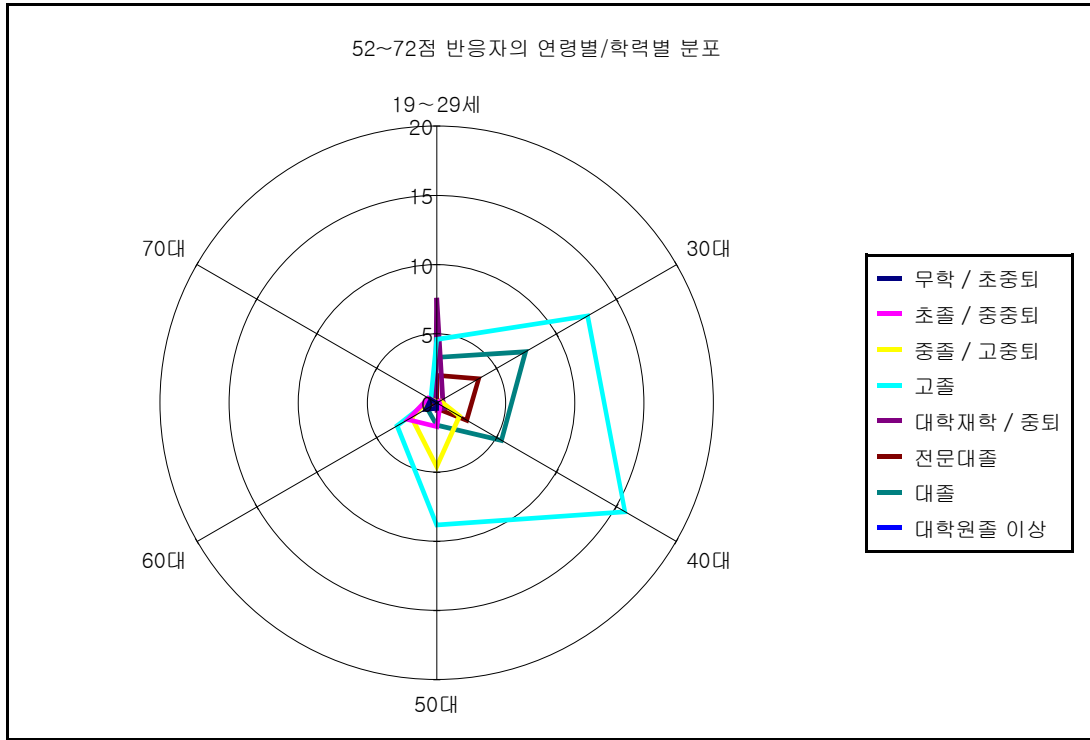
문해력 점수가 52~72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별/학력 수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16 : 학력/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52~72점)>

(%)

학력수준 \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무학 / 초중퇴	-	-	-	0.4	0.9	0.5	1.8
초졸 / 중중퇴	-	0.2	0.3	1.7	2.4	0.7	5.3
중졸 / 고중퇴	0.1	0.3	1.9	4.6	2.1	0.6	9.6
고졸	4.6	12.6	15.7	8.8	3.3	0.5	45.4
대학재학 / 중퇴	7.6	0.5	0.7	0.5	0.1	0.1	9.3
전문대졸	2.0	3.5	2.5	0.4	0.2	-	8.6
대졸	3.3	7.4	5.4	1.6	0.8	0.2	18.7
대학원졸 이상	0.1	0.3	0.5	0.3	-	-	1.2
무응답	-	-	-	-	-	-	-
Total	17.6	24.8	26.9	18.3	9.8	2.6	100.0

52~72점 사이의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다수는 30대~50대의 고졸자들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대 전후와 40대의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30대 미만의 대학재학/중퇴자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 52~72점 반응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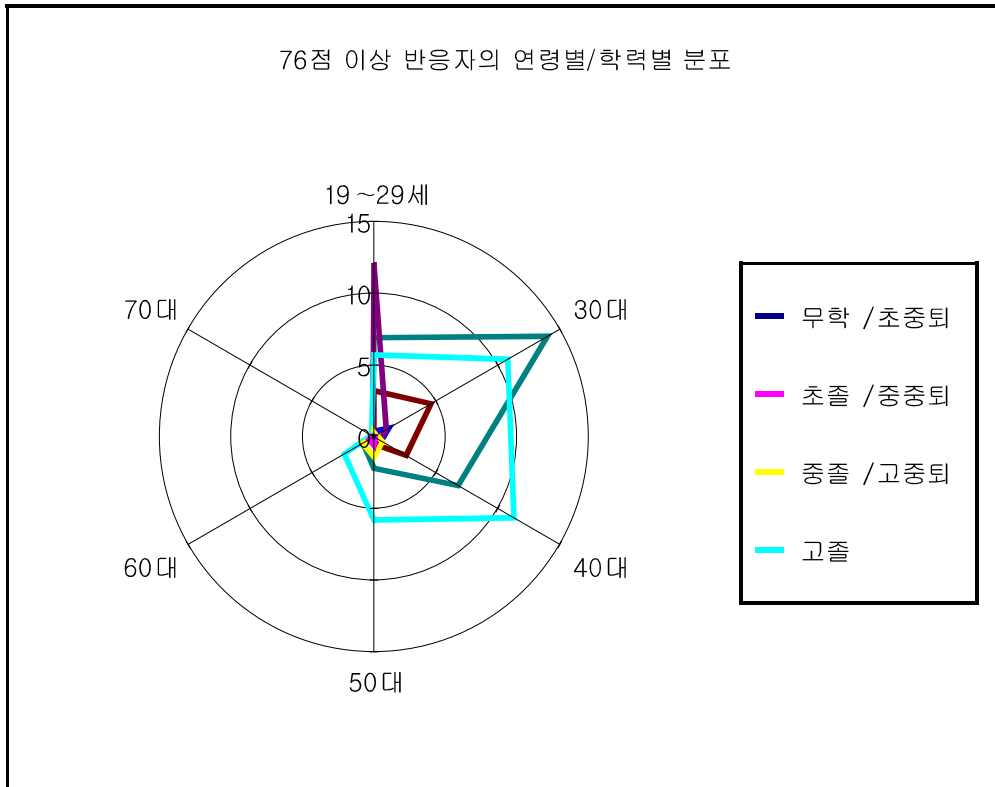
④ 76점 이상 응답자 분포 특성

76점 이상의 고득점을 한 가장 뛰어난 문해력을 보여주는 구성원들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7 : 학력/연령별 문해력 평균 점수(76점 이상)>

		(%)						
학력수준	연령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무학 / 초중퇴		-	-	0.1	-	0.1	-
초졸 / 중중퇴		-	-	0.1	0.6	0.4	0.1	1.3
중졸 / 고중퇴		0.3	0.2	0.7	1.4	0.9	-	3.6
고졸		5.7	10.8	11.3	5.8	2.4	0.2	36.2
대학재학 / 중퇴		12.1	1.0	0.5	0.4	0.0	0.1	14.1
전문대졸		3.2	4.6	2.6	0.5	-	-	11.0
대졸		6.9	14.0	6.8	2.2	0.9	0.1	30.9
대학원졸 이상		0.4	1.2	0.6	0.4	0.1	-	2.7
무응답		-	-	-	-	-	-	-
Total		28.7	31.8	22.8	11.3	4.8	0.6	100.0

76점 이상 반응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는 다음의 방사선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0대~50대의 고졸자, 30대 전후와 40대의 대졸자, 전문대 졸업자, 30대 미만의 대학재학/중퇴자들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국민들 중 문해력이 가장 좋은 집단은 30, 40대 전후의 고졸 이상 졸업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 : 76점 이상 반응자의 연령별/학력별 분포>

3.3 문해자 국어생활 관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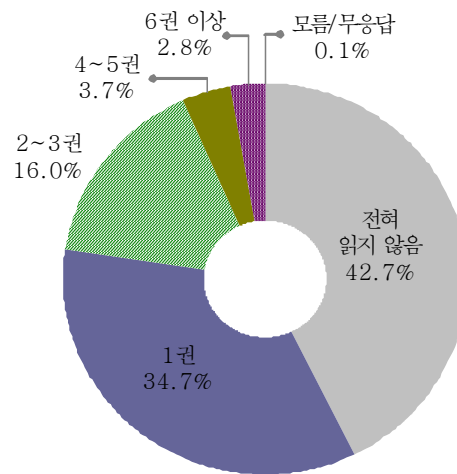
국민의 1.7%가 문맹자라고 하면 98.3%나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해자라고 할 것이다. 이 수치는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문해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국어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국어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국민들의 월평균 독서량, 하루평균 신문 구독량, 하루평균 인터넷 이용량, 하루평균 TV시청량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다 나은 국어생활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갖고 있는 사전은 어떤 것들이며, 국어생활 때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3.3.1 월평균 독서량

문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독서량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책을 얼마나 읽을까? <그림 3-14>에 나타나듯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가 거의 반(42.7%)이나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책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문해 능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몇 권의 책을 읽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읽지 않는 경우가 42.7%, 1권을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4.7%, 2~3권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6.0%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 3-14>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4 : 월평균 독서량>

<표 3-18 : 특성별 월평균 독서량>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읽지 않음	1권	2~3권	4~5권	6권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36,402,974	42.7	34.7	16.0	3.7	2.8	0.1	100.0
■ 지역별 ■								
서울	7,944,125	37.9	38.7	16.2	3.7	3.3	0.1	100.0
부산	2,741,270	45.9	33.1	16.6	2.8	1.7	-	100.0
대구	1,844,402	46.4	28.0	17.9	4.5	3.3	-	100.0
대전	2,001,111	38.6	37.9	16.0	3.7	3.7	0.2	100.0
광주	990,180	41.8	35.0	15.8	3.1	4.3	-	100.0
대전	1,072,809	40.0	36.7	16.0	3.9	3.5	-	100.0
울산	807,695	46.8	33.6	14.8	3.0	1.5	0.3	100.0
경상	8,222,643	41.0	33.5	17.8	4.8	2.9	-	100.0
강원	1,063,450	43.4	35.2	16.2	2.4	2.8	-	100.0
충청	1,103,021	47.6	31.6	12.3	4.3	4.2	-	100.0
전남	1,449,300	43.6	38.5	12.4	3.9	1.6	-	100.0
전북	1,324,302	46.5	32.3	15.2	3.9	1.0	1.0	100.0
경북	1,308,430	49.9	30.4	12.4	3.1	4.2	-	100.0
경남	1,896,106	47.3	33.6	13.9	3.2	2.0	-	100.0
제주	2,254,080	50.6	31.1	14.6	1.8	1.2	0.7	100.0
무응답	380,051	32.5	40.8	19.2	4.7	2.8	-	100.0
■ 지역구별 ■								
대도시	7,401,592	40.9	36.0	16.3	3.6	3.1	0.1	100.0
중/소도시	5,909,233	42.2	34.2	16.8	4.1	2.6	0.1	100.0
군역	3,092,150	55.3	29.2	10.0	2.7	2.3	0.5	100.0
■ 성별 ■								
남자	8,441,168	45.4	32.7	14.9	3.8	3.1	0.2	100.0
여자	7,961,806	39.9	36.7	17.2	3.7	2.5	0.1	100.0
■ 연령별 ■								
19~29세	7,459,309	22.0	38.2	28.6	7.5	3.7	0.1	100.0
30대	8,925,316	33.8	40.2	18.2	3.5	4.2	-	100.0
40대	8,639,459	41.9	38.4	13.5	3.6	2.5	0.2	100.0
50대	5,975,779	57.7	29.4	9.1	1.6	1.8	0.4	100.0
60대	3,929,024	69.1	22.0	7.1	1.0	0.8	0.1	100.0
70대	1,474,087	74.8	16.4	5.8	2.4	0.4	0.2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5,613,713	43.6	32.3	17.4	3.9	2.8	-	100.0
101~250만원	3,333,519	44.1	35.9	14.4	3.0	2.4	0.2	100.0
251~350만원	3,410,376	41.8	36.7	15.1	3.0	3.3	0.2	100.0
351~550만원	2,376,879	34.3	40.1	16.3	7.1	2.2	-	100.0
551만원 이상	772,964	37.9	30.9	21.0	2.5	7.6	-	100.0
모름/무응답	895,522	37.1	38.4	13.9	6.4	3.4	0.8	100.0
■ 직업별 ■								
관리자	1,466,366	28.6	43.3	20.2	5.9	2.0	-	100.0
전문직종사자	1,964,406	26.5	37.2	25.4	5.6	5.2	0.2	100.0
사무종사자	4,518,596	26.3	48.6	18.1	4.3	2.5	0.2	100.0
서비스종사자	3,039,115	48.0	36.1	10.5	1.4	3.6	0.4	100.0
판매종사자	6,210,987	48.5	32.8	13.7	2.8	2.1	-	100.0
농/임/어업	1,172,631	73.5	19.5	5.0	1.3	0.3	0.4	100.0
기능종사자	1,815,570	57.3	25.0	11.1	3.7	2.6	0.4	100.0
기계조작/조립	1,267,591	58.2	29.5	8.6	1.0	2.7	-	100.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59.2	23.3	12.1	3.4	1.9	0.1	100.0
학생	2,771,214	12.2	35.7	37.0	9.3	5.8	-	100.0
주부	7,864,216	44.2	36.4	14.0	3.1	2.3	-	100.0
무응답	136,499	20.8	30.2	20.6	9.0	19.3	-	100.0
무응답	31,886	50.2	11.1	38.7	-	-	-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초중퇴	847,305	89.5	9.3	0.3	0.5	0.4	-	100.0
초졸/중중퇴	2,406,970	82.0	14.6	2.4	0.7	0.2	-	100.0
중졸/고중퇴	3,246,588	69.5	22.3	6.5	0.7	0.6	0.2	100.0
고졸	4,877,648	48.0	35.2	12.4	2.0	2.3	0.2	100.0
대학재학/중퇴	3,792,470	18.5	35.9	30.7	9.8	5.0	0.1	100.0
전문대졸	3,170,670	31.0	41.7	19.8	3.1	4.0	0.3	100.0
대학원졸	7,486,682	22.0	44.6	23.5	6.0	3.9	-	100.0
대학원졸 이상	563,835	13.3	35.6	28.5	16.6	6.0	-	100.0
무응답	10,806	100.0	-	-	-	-	-	100.0

특성별 월평균 독서량을 살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혀 읽지 않음’의 비율을 우선 보는 것이 그 실태 파악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 권 읽는 수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독서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록 표6-1] ‘특성별 월평균 독서량’을 통해서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사이의 월평균 독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서울과 인천이 독서량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이고, 제주도는 다른 곳에 비하여 가장 높은 독서량을 보이고 있다.

둘째,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에 비해서 군 지역으로 갈수록 월평균 독서량이 낮다(40.9% 대 55.3%).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 접근도가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독서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여성이 남성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는 양상을 보인다. 남성은 45.4%가 책을 전혀 읽지 않음에 비해서 여성은 39.9% 비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연령별 성인의 독서량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백분율이 대충 20대가 22.0%인 데 비해서, 30대 33.8%, 40대 41.9%, 50대 57.7%, 60대 69.1%, 70대 74.8%여서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읽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 달에 책을 두 권 이상 읽는 연령에서도 20대와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소득수준별 월평균 독서량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책을 많이 읽는다. 100만원 이하 소득자와 100~250만원 소득자는 각각 43.6%와 44.1%가 책을 전혀 읽지 않고 있음에 비해서, 350만원~550만원 이하, 그리고 551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각각 34.5%와 37.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책을 1권 읽는 사람들까지 고려해 보아도, 절대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수준과 월평균 독서량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업별로 월평균 독서량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관리직, 전문직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독서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이 책을 전혀 읽지 못하는 비율이 각각 28.6%, 26.5%, 26.3%이고, 농/임/어업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73.3%와 59.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무직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낮은 20.8%의 비독서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책 읽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이 12.2%의 완전 비독서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현재 전공 책을 주로 보아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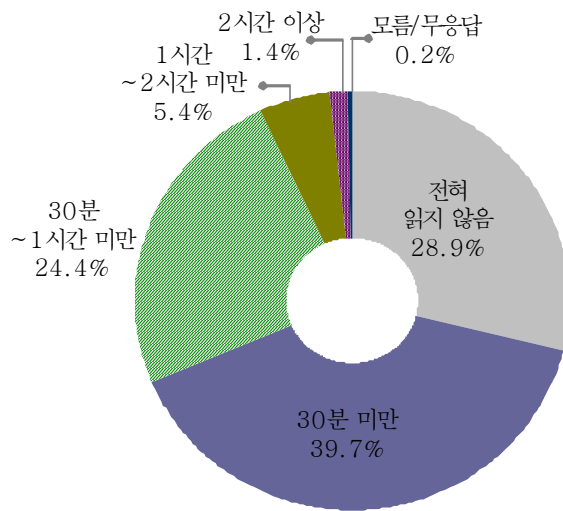
일곱째, 학력수준별로 독서량을 보면 대개 학력이 높을수록 책을 많이 읽고 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 비율을 통해 볼 때, 대학원졸 이상자들이 13.3%임에 비해서 무학/초중퇴자들과 초졸/중중퇴자들은 89.5%와 82.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개략적으로 볼 때 대도시일수록, 성인 가운데 젊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관리직이나 사무직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월평균 독서량이 높다.

3.3.2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

월별 독서량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보다는 신문을 더 많이 읽는다. 전혀 보지 않는 비율이 책은 47.7%이고 신문은 28.9%인데, 이는 사람들이 책보다는 신문을 많이 보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개략적으로나마 보여 준다.

문해 능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신문을 어느 정도 읽는지 물어본 결과, 30분 미만 정도 읽는 경우가 39.7%, 전혀 읽지 않는 경우가 28.9%,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는 경우가 24.4%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3-15>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5 :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

<표 3-19 : 특성별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읽지 않음	30분 미만	30~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전체	36,402,974	28.9	39.7	24.4	5.4	1.4	0.4	100.0
지역별								
서울	7,944,125	18.6	42.7	29.7	7.3	1.4	0.3	100.0
부산	2,741,270	27.4	41.6	24.1	5.5	1.5	-	100.0
대구	1,844,402	34.3	40.9	19.9	4.4	0.5	-	100.0
인천	2,001,111	22.4	44.4	24.4	6.2	2.3	0.2	100.0
광주	990,180	40.2	37.4	17.3	4.0	1.1	-	100.0
대전	1,072,809	27.6	44.3	21.7	4.5	1.9	-	100.0
울산	807,695	31.8	43.3	19.9	2.7	2.4	-	100.0
경상	8,222,643	29.6	34.7	27.9	5.7	1.8	0.4	100.0
강원	1,063,450	25.8	37.7	32.2	3.2	1.1	-	100.0
충청	1,103,021	38.4	41.3	15.3	4.0	1.0	-	100.0
충남	1,449,300	34.9	41.9	17.9	4.1	1.3	-	100.0
전남	1,324,302	34.8	36.7	22.6	4.9	0.8	0.3	100.0
전북	1,308,430	38.1	34.4	20.2	5.9	1.4	-	100.0
경북	1,896,106	35.9	41.6	20.2	2.1	0.3	-	100.0
경서	2,254,080	38.8	39.6	16.0	5.2	0.5	-	100.0
제주	380,051	30.9	39.3	23.3	4.9	1.7	-	100.0
지역크기별								
대도시	7,401,592	24.5	42.3	25.5	6.0	1.5	0.2	100.0
중도시	5,909,233	31.6	37.6	24.5	4.8	1.2	0.2	100.0
소도시	3,092,150	39.8	35.4	18.2	5.2	1.4	-	100.0
성별								
남자	8,441,168	21.5	37.5	30.4	8.1	2.2	0.2	100.0
여자	7,961,806	36.6	42.0	18.3	2.6	0.4	0.1	100.0
연령별								
19~29세	7,459,309	37.2	41.5	16.7	3.5	0.8	0.2	100.0
30대	8,925,316	24.5	45.4	25.3	3.8	0.8	0.2	100.0
40대	8,639,459	19.7	40.1	33.2	5.3	1.5	0.1	100.0
50대	5,975,779	26.7	37.6	24.9	8.6	1.9	0.3	100.0
60대	3,929,024	39.6	30.1	21.0	7.2	1.9	0.3	100.0
70대	1,474,087	48.6	27.4	14.4	6.4	3.2	-	100.0
소득수준별								
100만원 이하	5,613,713	40.3	37.3	17.1	3.9	1.2	0.2	100.0
101~250만원	3,333,519	22.2	43.4	27.2	5.7	1.3	0.2	100.0
251~350만원	3,410,376	16.5	39.8	34.6	7.6	1.0	0.5	100.0
351~550만원	2,376,879	12.9	36.0	38.0	10.0	3.1	-	100.0
551만원 이상	772,964	14.3	35.6	36.5	9.8	3.8	-	100.0
모름/무응답	895,522	32.8	37.6	28.0	1.7	-	-	100.0
직업별								
관리자	1,466,366	11.5	39.9	37.0	9.3	2.3	-	100.0
전문직종사자	1,964,406	25.2	44.0	22.8	6.6	1.4	-	100.0
사무종사자	4,518,596	17.7	45.8	28.9	6.0	1.0	0.5	100.0
서비스종사자	3,039,115	22.1	42.4	27.0	6.0	2.4	-	100.0
판매종사자	6,210,987	21.5	38.6	31.5	6.2	1.8	0.3	100.0
농/임/어업	1,172,631	51.4	33.8	9.4	3.8	1.5	-	100.0
기능종사자	1,815,570	23.6	35.3	34.1	6.1	1.0	-	100.0
기계조작/조립	1,267,591	18.8	45.1	28.1	7.7	0.3	-	100.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34.5	34.2	22.1	6.9	2.3	-	100.0
학생	2,771,214	38.7	39.2	15.9	4.5	1.3	0.4	100.0
주부	7,864,216	41.2	39.0	16.9	2.3	0.4	0.2	100.0
무응답	136,499	29.0	35.0	30.9	5.1	-	-	100.0
무응답	31,886	18.2	29.7	52.1	-	-	-	100.0
학력수준별								
무학/초중졸	847,305	74.3	14.9	8.7	2.1	-	-	100.0
중졸/고졸	2,406,970	62.6	27.7	7.3	1.7	0.7	-	100.0
중졸/고졸	3,246,588	34.7	41.7	17.9	3.9	1.6	0.1	100.0
고졸	4,877,648	24.8	41.4	26.1	5.9	1.5	0.3	100.0
대학재학/중퇴	3,792,470	35.4	39.5	19.4	4.2	1.3	0.3	100.0
전문대졸	3,170,670	24.2	45.2	25.5	5.0	0.1	-	100.0
대학원졸	7,486,682	17.6	40.5	33.0	6.9	1.8	0.2	100.0
대학원졸 이상	563,835	26.7	31.9	27.8	11.5	2.0	-	100.0
무응답	10,806	-	-	100.0	-	-	-	100.0

현대 생활에서 신문을 본다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볼 때, 특성별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에서도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분 미만’ 정도 신문을 본다는 것은 제목 중심으로 신문을 훑어본다는 의미이고, 그 이상 시간을 신문 구독에 투자한다는 것은 비교적 꼼꼼하게 신문 내용을 읽는다는 것을 뜻한다. <표 3-19> ‘특성별 하루 평균 신문 구독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 사람들이 신문을 좀 더 보며, 충북, 전남, 경남 지역 사람들이 약간 덜 본다. 서울은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이 18.6%, 인천은 22.4%이고, 30분 이상 신문을 보는 이들도 각각 38.4%와 32.9%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이 충북, 전남, 경북 각각 38.4%, 38.1%, 38.8%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30분 이상 구독하는 사람들은 각각 20.3%, 27.5%, 21.7%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전혀 읽지 않음’이 30.9%를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역크기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신문을 많이 보고 군지역일수록 조금 본다. 이는 교통수단 등 여러 요인이 있을 터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사는 여러 일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이 대도시 24.5%, 중/소도시 31.6%, 군지역 39.8%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신문을 많이 읽는다.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이 여성이 36.6%이고 남성은 21.5%에 불과하다.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생활을 더 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연령별로는 40대가 신문을 가장 많이 본다. 이는 이 시기가 사회생활에 가장 적극적인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 40대를 좌우로 해서 30대와 50대가 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이, 40대 19.7%, 30대 24.5%, 50대 26.7%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신문을 30분 이상 꼼꼼히 보는 연령대도 40대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신문을 많이 본다. 351~550만원 고소득자는 30분 이상 신문을 보는 이가 51.1%나 되는데, 1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2.2% 밖에 안 된다. 551만원 이상 최상위 소득자들도 50.1%나 되는 많이 사람들이 30분 이상 신문을 본다. 반대로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은 351만원~550만원 소득자가 12.9%, 100만원 이하가 40.3%, 551만원 이상 소득자가 14.3%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별 신문 구독률에서는 관리자, 사무종사자일수록 신문을 더 많이 본다. 관리자는 ‘전혀 읽지 않음’ 비율이 11.5%인데 비해, 농/임/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51.4%이다. 거꾸로 30분 이상 신문을 보는 비율을 보면, 관리자가 48.6%이고 농/임/어업 종사자는 14.7% 밖에 안 된다. 특이한 것은 주부와 학생은 각각 41.2%와 38.7%가 신문을 전혀 읽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부는 가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회생활에 관심이 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생은 신문 이외의 매체를 통해서 사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일곱째, 학력이 높을수록 신문을 더 많이 본다. 대졸인 사람은 17.6%만이 신문을 보지 않

지만 무학/초중퇴인 사람과 초졸/중중퇴인 사람은 74.3%와 62.6%가 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30분 이상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도, 대졸 41.7%, 대학원졸 41.3%로 높은 데 비해, 무학/초중퇴 10.8%, 초졸/중중퇴 9.7%로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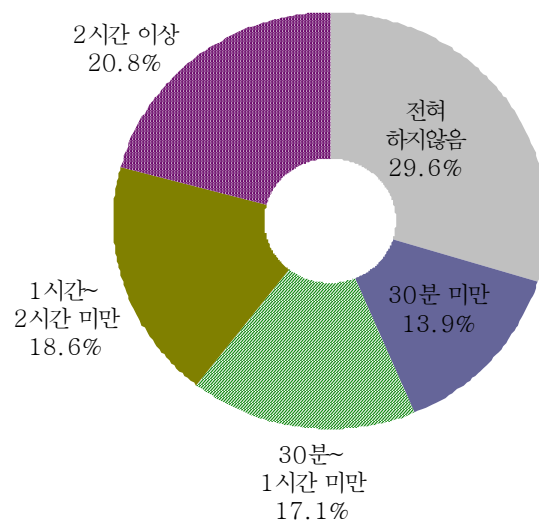
요컨대, 대체로 대도시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관리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신문을 보는 경향이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일수록 신문 구독률이 높다.

3.3.3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양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어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을 물어본 결과, 전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29.6%, 1시간~2시간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18.6%,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17.1%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 3-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산골에도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29.6%라는 것은 결국 그 수치만큼 컴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분 이상 인터넷을 한다는 사람들이 56.5%라는 것은, 그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3-16 :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

<표 3-20 : 특성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

(%)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36,402,974	29.6	13.9	17.1	18.6	20.8	0.0	100.0
지역별								
서울	7,944,125	25.8	12.7	19.2	20.0	22.4	-	100.0
부산	2,741,270	33.5	12.9	17.2	20.9	15.5	-	100.0
대구	1,844,402	37.7	17.2	14.9	15.4	14.9	-	100.0
인천	2,001,111	22.9	14.3	16.9	15.0	30.2	0.7	100.0
광주	990,180	32.2	16.1	22.1	15.9	13.8	-	100.0
대전	1,072,809	22.5	16.4	23.7	15.0	22.4	-	100.0
울진	807,695	27.8	13.0	15.9	19.8	23.5	-	100.0
경남	8,222,643	25.0	13.8	14.5	20.3	26.4	-	100.0
강릉	1,063,450	33.8	12.3	16.9	21.5	15.2	0.3	100.0
충주	1,103,021	36.3	15.9	16.5	15.4	15.9	-	100.0
충남	1,449,300	33.4	16.4	17.2	17.7	15.2	-	100.0
전주	1,324,302	40.9	12.7	14.7	18.4	13.3	-	100.0
경북	1,308,430	35.3	15.8	17.3	14.8	16.8	-	100.0
경서	1,896,106	32.9	12.7	13.6	17.1	23.8	-	100.0
경남	2,254,080	35.3	14.4	19.3	17.8	13.2	-	100.0
제주	380,051	33.7	13.8	22.6	17.7	12.2	-	100.0
지역크기별								
대도시	7,401,592	28.2	13.8	18.4	18.5	21.0	0.1	100.0
중도시	5,909,233	28.3	14.3	16.4	19.6	21.4	-	100.0
소도시	3,092,150	43.3	12.8	12.8	14.3	16.7	0.1	100.0
성별								
남자	8,441,168	24.7	11.4	15.7	21.3	26.9	-	100.0
여자	7,961,806	34.5	16.6	18.4	15.9	14.5	-	100.0
연령별								
19~29세	7,459,309	2.5	7.9	17.6	30.7	41.3	-	100.0
30~39세	8,925,316	8.0	18.7	23.3	26.2	23.8	-	100.0
40~49세	8,639,459	26.4	18.9	21.6	16.5	16.5	0.2	100.0
50~59세	5,975,779	53.2	14.7	12.5	9.2	10.5	-	100.0
60~69세	3,929,024	77.0	6.9	4.9	4.2	7.0	0.1	100.0
70세 이상	1,474,087	93.4	2.5	1.5	0.8	1.8	-	100.0
소득수준별								
100만원 이하	5,613,713	38.7	13.3	15.3	16.4	16.2	-	100.0
101~250만원	3,333,519	25.2	14.2	17.4	18.9	24.3	0.1	100.0
251~350만원	3,410,376	17.0	12.4	22.4	21.5	26.7	-	100.0
351~550만원	2,376,879	16.3	15.1	17.6	27.6	23.2	0.2	100.0
551만원 이상	772,964	14.2	26.8	22.1	15.9	21.0	-	100.0
모름/무응답	895,522	30.4	12.6	17.3	20.6	19.2	-	100.0
직업별								
관리자	1,466,366	12.2	14.1	22.2	20.4	31.1	-	100.0
전문직종사자	1,964,406	15.5	15.0	22.0	22.1	25.4	-	100.0
사무종사자	4,518,596	5.2	11.9	17.9	29.5	35.5	0.1	100.0
서비스종사자	3,039,115	36.8	18.4	13.7	14.3	16.7	-	100.0
판매종사자	6,210,987	26.3	15.3	17.3	17.4	23.6	0.1	100.0
농/임/어업	1,172,631	72.9	9.1	7.2	5.5	5.3	-	100.0
기능종사자	1,815,570	27.6	10.6	21.3	21.4	19.2	-	100.0
기계조작/조립	1,267,591	29.1	16.5	20.7	15.7	18.1	-	100.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56.7	7.8	8.9	10.9	15.5	0.1	100.0
학생	2,771,214	0.7	5.9	15.6	35.3	42.5	-	100.0
주부	7,864,216	40.3	19.3	19.8	13.9	6.7	-	100.0
무응답	136,499	5.4	9.0	39.5	12.3	33.8	-	100.0
무응답	31,886	35.5	-	38.7	-	25.8	-	100.0
학력수준별								
무학/초중퇴	847,305	92.5	0.9	2.1	2.6	1.9	-	100.0
초졸/중중퇴	2,406,970	90.4	5.9	1.8	0.4	1.6	-	100.0
중졸/고중퇴	3,246,588	74.5	9.9	4.9	5.3	5.1	0.3	100.0
고졸	4,877,648	29.8	18.4	17.9	16.3	17.6	-	100.0
대학재학/중퇴	3,792,470	4.1	8.1	18.0	31.3	38.4	0.1	100.0
전문대졸	3,170,670	5.7	18.3	27.6	21.9	26.5	-	100.0
대졸	7,486,682	8.2	12.5	22.0	27.7	29.6	-	100.0
대학원졸 이상	563,835	-	8.7	21.7	33.6	36.1	-	100.0
무응답	10,806	-	-	-	-	100.0	-	100.0

현대를 가리켜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국어생활이라는 측면에서 특성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역시 ‘전혀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수치가 할 줄 안다 혹은 모른다는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첫째, 지역별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면 역시 도시지역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으며, 경기도는 수도권이어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혀 하지 않음’ 비율이 대전 22.5%, 인천 22.9%, 경기 25.0%, 서울 25.8%인데, 전북은 40.9%나 되어 최고로 높아서 그 다음 순위인 충북 36.3%와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하루에 30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인천 62.1%, 서울 61.6%, 경기 61.2%, 대전 61.1%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첫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도시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30분 이상 이용률이 대도시가 57.9%, 중/소도시가 57.4%, 군 지역이 43.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혀 하지 않음’ 비율은 대도시 28.2%, 중/소도시 28.3%, 군 지역 43.3%이다.

셋째,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인터넷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30분 이상 이용률을 보면 남성이 63.9%, 여성이 48.8%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혀 하지 않음’의 비율은 남성이 24.7%, 여성이 34.5%이다. 이는 인터넷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넷째, 연령대별로 인터넷 이용자를 보면, 젊을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20대(19~29세를 가리킴. 이하 동일)는 2.5%, 30대는 8.0%, 40대는 26.4%, 50대는 53.2%, 60대는 77.1%, 70대는 93.4%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히 연령대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전혀 하지 않음’ 비율을 소득자 순서대로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소득이 높은 551만원 이상이 14.2%, 그 다음인 351~550만원이 16.3%, 251~350만원이 17.0%, 101~250만원이 25.2%, 100만원 이하가 38.7% 순이다. 이는 곧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 정보 수집 및 교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편 인터넷에 할애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30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았을 때, 중간 소득자인 251~350만원 소득자가 70.6%, 351~550만원 소득자가 68.4%임에 비해서 551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자는 59.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1시간 이상 이용량만 비교해 본다면, 각각 48.2%, 50.8%, 36.9%로 나타나서, 무조건 인터넷에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고소득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섯째, 직업에 따라서 보면 대체로 사무직이나 관리자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 30분 이상 이용률을 보면, 사무종사자가 82.9%이고 관리자가 73.7%임에 비해서, 농/임/어업종사자는 18.0%, 단순노무종사자는 35.3%이다. ‘전혀 하지 않음’ 비율에서도 이런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무종사자와 관리자가 각각 5.2%, 12.2%임에 비해서, 농/임/어업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각각 72.9%, 56.7%의 높은 비율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학생은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데에 인터넷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직인 사람도 85.6%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젊은이들이 구직 등 다양한 이유로 해서 정보 수집이나 시간 죽이기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생과 무직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각각 0.7%, 5.4% 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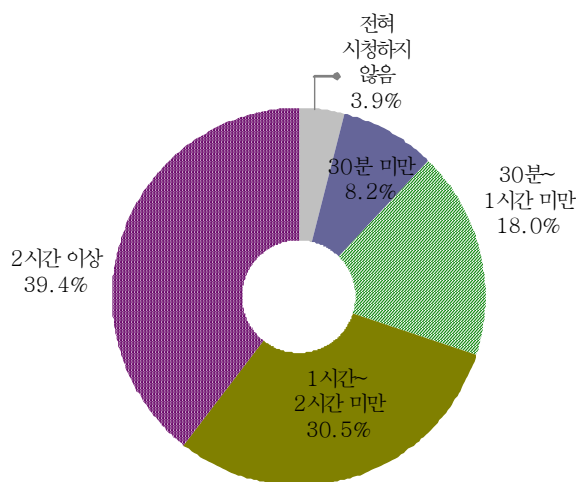
일곱째,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 30분 이상 이용하는 이들을 비교해 보면, 대학원졸 이상 91.4%, 대학재학/중퇴 87.7%, 대졸 79.3%, 전문대졸 76.0%, 고졸 51.8%, 중졸/고중퇴 15.3%, 초졸/중중퇴 3.8%, 무학/초중퇴 6.6% 순이다. ‘전혀 하지 않음’ 비율을 보면 대학원졸 이상 0%, 대학재학/중퇴 4.1%, 전문대졸 5.7%, 대졸 8.2%, 고졸 29.9, 초졸/중중퇴 90.4%, 무학/초중퇴 92.5%로 나타났다. 그 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원졸 이상의 사람들은 100%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량도 압도적으로 높다.

요컨대, 현대 생활에서 인터넷은 거의 필수적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상대적으로 남성)일수록, 도시일수록,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무종사자나 관리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량이 높다. 단 소득수준별에서 절대 이용량 그대로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과 무직자가 인터넷을 매우 많이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3.4 하루 평균 TV 독서량

우리의 국어생활에서 TV는 막강한 영향을 끼쳐왔다. TV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바른 글 바른말이 국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개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행어나 비속어는 국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평균 TV시청량을 따져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루 평균 TV 시청량을 질문조사 시에 물어본 결과 2시간 이상 시청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청하는 경우가 30.5%,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청하는 경우가 18.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7>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TV를 통해서는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TV에 노출된 우리들의 언어 삶의 모습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 3-17 : 하루 평균 TV 시청량>

<표 3-21 : 특성별 하루 평균 TV 시청량>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보지 않음	30분 미만	30~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계
전체	36,402,974	3.9	8.2	18.0	30.5	39.4	0.0	100.0
지역별								
지서부	7,944,125	5.4	7.7	19.6	31.7	35.4	-	100.0
시	2,741,270	2.3	6.6	13.8	31.4	45.9	-	100.0
군	1,844,402	3.8	9.7	18.7	26.5	41.3	-	100.0
자치	2,001,111	5.3	9.4	18.4	28.2	38.7	-	100.0
광역시	990,180	3.1	9.0	17.1	36.6	34.3	-	100.0
광역시	1,072,809	3.6	8.4	18.7	30.9	38.5	-	100.0
광역시	807,695	2.4	7.1	14.1	28.3	48.1	-	100.0
광역시	8,222,643	5.0	8.8	19.4	30.9	35.7	0.1	100.0
광역시	1,063,450	3.2	9.8	18.7	31.8	36.5	-	100.0
광역시	1,103,021	1.8	10.9	15.6	29.4	42.3	-	100.0
광역시	1,449,300	2.6	7.3	19.3	30.7	40.1	-	100.0
광역시	1,324,302	1.5	7.1	24.6	27.5	38.8	0.4	100.0
광역시	1,308,430	4.2	10.9	18.3	26.0	40.7	-	100.0
광역시	1,896,106	2.3	9.8	14.7	27.6	45.5	-	100.0
광역시	2,254,080	1.8	2.7	10.7	32.0	52.9	-	100.0
광역시	380,051	3.3	10.1	24.3	35.9	26.3	-	100.0
지역크기별								
대도시	7,401,592	4.4	8.0	18.0	30.8	38.8	-	100.0
중도시	5,909,233	3.6	8.5	18.2	31.0	38.7	0.1	100.0
소도시	3,092,150	3.2	7.6	17.3	25.8	46.1	0.1	100.0
성별								
남자	8,441,168	4.7	9.3	20.4	31.5	34.1	-	100.0
여자	7,961,806	3.1	7.0	15.6	29.4	44.8	0.1	100.0
연령별								
19~29세	7,459,309	6.3	13.9	21.6	32.6	25.6	-	100.0
30~39세	8,925,316	5.0	9.2	20.7	35.1	30.1	-	100.0
40~49세	8,639,459	4.0	7.9	19.2	31.7	37.1	0.1	100.0
50~59세	5,975,779	1.4	4.8	14.4	27.6	51.8	-	100.0
60~69세	3,929,024	1.9	2.6	11.9	22.0	61.5	0.1	100.0
70세 이상	1,474,087	0.6	3.4	8.5	18.8	68.6	-	100.0
소득수준별								
100만원 이하	5,613,713	3.7	7.9	15.3	26.2	46.8	0.1	100.0
101~250만원	3,333,519	3.8	8.1	18.4	33.7	35.9	-	100.0
251~350만원	3,410,376	4.8	9.9	24.1	32.6	28.5	-	100.0
351~550만원	2,376,879	5.6	9.0	23.6	33.5	28.3	-	100.0
551만원 이상	772,964	2.1	10.5	23.3	33.8	30.3	-	100.0
모름/무응답	895,522	3.9	4.3	16.4	36.5	38.9	-	100.0
직업별								
관리자	1,466,366	6.2	8.9	21.2	39.4	24.2	-	100.0
전문직종사자	1,964,406	5.8	10.8	23.4	33.9	26.1	-	100.0
사무종사자	4,518,596	4.6	12.3	22.7	37.4	23.1	-	100.0
서비스종사자	3,039,115	3.8	5.9	17.4	31.9	41.1	-	100.0
판매종사자	6,210,987	3.9	7.5	17.6	28.7	42.3	-	100.0
농/임/어업	1,172,631	1.3	4.6	15.0	26.6	52.3	0.2	100.0
기능종사자	1,815,570	3.3	6.5	20.1	36.3	33.8	-	100.0
기계조작/조립	1,267,591	2.3	6.4	18.0	34.9	38.5	-	100.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3.5	5.3	13.9	25.7	51.6	-	100.0
생업	2,771,214	6.8	17.5	25.4	28.7	21.5	-	100.0
주부	7,864,216	2.6	5.5	13.6	26.6	51.5	0.2	100.0
무응답	136,499	17.4	19.6	22.7	18.8	21.5	-	100.0
무응답	31,886	-	38.7	-	14.5	46.7	-	100.0
학력수준별								
무학/초중졸	847,305	1.6	2.9	11.5	19.8	64.2	-	100.0
중졸/고졸	2,406,970	1.0	4.4	6.6	16.8	71.0	0.1	100.0
중졸/고졸	3,246,588	1.3	4.4	10.8	21.5	61.9	0.1	100.0
고졸	4,877,648	3.0	5.5	15.8	31.4	44.3	0.1	100.0
대학재학/중퇴	3,792,470	8.4	16.3	24.9	28.5	21.9	-	100.0
전문대졸	3,170,670	4.9	10.9	23.0	33.5	27.6	-	100.0
대학원졸	7,486,682	5.0	11.5	23.5	37.6	22.5	-	100.0
대학원졸 이상	563,835	10.8	11.8	31.7	32.9	12.8	-	100.0
무응답	10,806	-	-	-	-	100.0	-	100.0

TV가 우리 국어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하루 평균 TV시청량을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TV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가적 기능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점에서 특성별 하루 평균 TV시청량을 몇 가지 살펴도록 한다.

첫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곳에 비해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 ‘전혀 보지 않음’ 항목에서 서울 5.4%, 인천 5.3%, 경기 5.0%인데 비해서, 전북 1.5%, 경남 1.8%, 충북 1.8%이어서, 서로 대조되는 감이 없지 않다.

둘째, 지역크기별로는 대도시가 TV를 많이 보지 않고 군 지역이 더 많이 보는 편이다. ‘전혀 보지 않음’ 비율이 대도시는 4.4%, 중/소도시는 3.6%, 군 지역은 3.2%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앞의 지역별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TV를 더 보는 편이다. 1시간 이상씩 TV 보는 비율을 보면, 남성이 65.6%, 여성은 74.2%이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이 사회생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남성들에 비해서 TV를 더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TV를 전혀 보지 않는 비율이 남성은 4.7%, 여성은 3.1%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연령이 들수록 TV를 많이 보며, 젊을수록 TV를 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1시간 이상씩 TV를 보는 층이, 70대 87.4%, 60대 83.5%, 50대 79.4%, 40대 68.8%, 30대 65.2%, 20대 58.2%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2시간 이상 TV를 보는 층이, 70대가 68.6%, 60대가 61.5%, 50대가 51.8%, 40대가 37.1%, 30대가 30.1%, 20대가 25.6%인 데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전혀 보지 않음’의 비율을 보면 70대가 0.6%, 60대가 1.9%, 50대가 1.4%임에 비해서, 40대가 4.0%, 30대가 5.0%, 19~29세는 6.3%이다. 여기서도 세대에 따른 TV시청량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는 대개 TV를 많이 볼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비율을 보면 351~550만원의 소득자는 61.8%, 251~350만원의 소득자는 61.1%, 101~250만원의 소득자는 69.6%,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73.0%이다. 이는 TV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 비율이 351~550만원 소득자가 5.6%, 251~350만원 소득자가 4.8%, 101~250만원 3.8%,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3.7%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550만원 이상 소득자는 1시간 이상 TV시청량이 64.1%이고, 전혀 TV를 보지 않는 비율이 2.1%로 나타나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최고소득자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편안히 TV 시청을 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직업별로 관리직이나 사무직일수록 TV를 적게 본다. TV를 전혀 보지 않는 비율이 관리자와 전문직종사자가 각각 6.2%와 5.8%인데 비해, 농/임/어업 종사자는 1.3%이다. 이는 반대로 1시간 이상 TV시청량에서 농/임/어업 종사자가 78.9%, 주부가 78.1%로 높으며, 학생 50.2%, 관리자 63.6%를 보이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이들이 각각 하는 일로 보아서 일일 TV시청량 차이가 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만하다. 그런데 무직인 사람이 TV시청량이 40.3% 밖에 안 되고, TV를 전혀 보지 않는 비율이 17.4%나 되는 것은 약간 의외이다. 아마도 무직 사람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혼자서 인터넷을 즐기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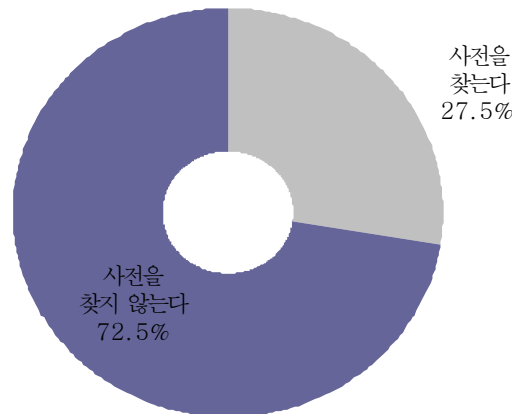
일급제, 학력수준별로 보면, 하루 1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초졸/중졸이 87.8%, 무학/초졸이 84.0%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45.7%만을 보이고 있다. TV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은 대학원졸 이상이 10.8%, 대학재학/대퇴가 8.4%로 높으며, 초졸/중졸이 1.0%로 낮다.

요컨대 하루평균 TV시청량을 특성별로 보면, 도시보다는 군지역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농/임/어업 종사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TV시청량이 높다.

3.3.5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 이용 여부

국어생활을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사전을 찾아봐야 할 텐데,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사전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 사전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을 이용하는지 물어본 결과, 사전을 찾아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27.5%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72.5%였다<그림 3-18 참조>.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사전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왜 27.5% 밖에 사전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림 3-18 :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 이용 여부>

<표 3-22 : 특성별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 이용 여부>

(%)

구 분	사례수 (명)	사전을 찾는다	사전을 찾지 않는다	계
전 체	36,402,974	27.5	72.5	100.0
▣ 지역별 ▣				
지서부	7,944,125	27.0	73.0	100.0
대인	2,741,270	22.1	77.9	100.0
광산	1,844,402	24.0	76.0	100.0
대울경	2,001,111	30.5	69.5	100.0
강릉	990,180	26.0	74.0	100.0
충주	1,072,809	32.8	67.2	100.0
전산	807,695	25.3	74.7	100.0
경기	8,222,643	30.5	69.5	100.0
강원	1,063,450	35.2	64.8	100.0
충북	1,103,021	28.1	71.9	100.0
충남	1,449,300	27.6	72.4	100.0
전북	1,324,302	31.5	68.5	100.0
경북	1,308,430	25.4	74.6	100.0
경서	1,896,106	24.3	75.7	100.0
제주	2,254,080	21.5	78.5	100.0
체	380,051	25.4	74.6	100.0
▣ 지역크기별 ▣				
대도	7,401,592	26.5	73.5	100.0
중/소	5,909,233	29.1	70.9	100.0
군/지	3,092,150	24.6	75.4	100.0
▣ 성별 ▣				
남	8,441,168	29.8	70.2	100.0
여	7,961,806	25.1	74.9	100.0
▣ 연령별 ▣				
19 ~ 29세	7,459,309	40.3	59.7	100.0
30 대	8,925,316	33.2	66.8	100.0
40 대	8,639,459	26.6	73.4	100.0
50 대	5,975,779	17.1	82.9	100.0
60 대	3,929,024	11.8	88.2	100.0
70 대	1,474,087	16.6	83.4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5,613,713	25.4	74.6	100.0
101 ~ 250만원	3,333,519	28.2	71.8	100.0
251 ~ 350만원	3,410,376	31.9	68.1	100.0
351 ~ 550만원	2,376,879	29.4	70.6	100.0
551만원 이상	772,964	30.7	69.3	100.0
모름 / 무응답	895,522	29.1	70.9	100.0
▣ 직업별 ▣				
관리자	1,466,366	30.9	69.1	100.0
전문직종사자	1,964,406	44.9	55.1	100.0
사무종사자	4,518,596	37.3	62.7	100.0
서비스종사자	3,039,115	20.6	79.4	100.0
판매종사자	6,210,987	27.0	73.0	100.0
농/임/어업	1,172,631	12.5	87.5	100.0
기능종사자	1,815,570	20.0	80.0	100.0
기계조작/조립	1,267,591	22.6	77.4	100.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22.5	77.5	100.0
학생	2,771,214	45.1	54.9	100.0
주부	7,864,216	20.7	79.3	100.0
무직	136,499	48.9	51.1	100.0
응답	31,886	38.7	61.3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 / 초중퇴	847,305	6.0	94.0	100.0
초졸 / 중중퇴	2,406,970	4.3	95.7	100.0
중졸 / 고중퇴	3,246,588	10.2	89.8	100.0
고졸	4,877,648	23.4	76.6	100.0
대학재학 / 중퇴	3,792,470	43.5	56.5	100.0
전문대졸	3,170,670	32.9	67.1	100.0
대학원졸	7,486,682	40.7	59.3	100.0
대학원졸 이상	563,835	52.1	47.9	100.0
무응답	10,806	-	100.0	100.0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때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볼 것이고, 꼭 그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찾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평상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사전을 찾아볼 것이다. 몇 가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자.

첫째, 사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대도시와 도지역의 차이를 확실하게 발견하기 어렵다. 사전을 이용한다는 지역을 보면, 강원도가 35.2%, 대전이 32.8%, 전북이 31.5%, 인천이 30.5%로 비교적 높게 나오고, 경남이 21.5%, 부산이 22.1%, 대구가 24.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역크기별로 사전 이용 여부를 조사해 보아도, 대도시 26.5%, 중/소도시 29.0%, 군 지역 2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군 지역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첫째의 지역별 내용을 염두에 본다면, 이것만으로 지역에 따른 사전 이용 여부의 차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셋째, 남성이 여성보다 사전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29.8%, 여성이 25.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성이 정확성을, 여성이 감수성을 그 성격으로 갖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넷째, 젊을수록 사전을 더 많이 찾는다. 20대가 40.3%, 30대가 33.2%, 40대가 26.6%, 50대가 17.1%, 60대가 11.8% 비율을 보여서, 젊을수록 정확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더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70대가 16.6%의 비율을 보여서 60대의 11.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60대에 비해 70대가 한결 한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 사전 이용 여부를 보면, 대체로 고소득자일수록 사전을 찾는 경향이 있다. 월 소득이 551만원 이상인 경우 30.7%로 사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251~350만원인 경우 31.9%로 비교적 높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별로 사전 이용 여부를 보면, 대체로 전문직종사자일수록 사전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종사자가 44.9%이고 사무직종사자가 37.3%, 관리자가 30.9%로 높은 편이다. 물론 학생이 45.1%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업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무직인 경우 가장 높은 48.9%의 비율을 보여서 매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아마도 무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직업을 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해 본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직업상 농/임/어업 종사자는 사전 이용률이 12.5%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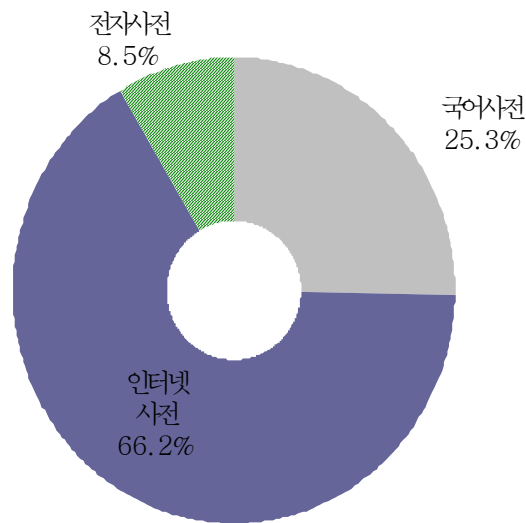
일곱째, 학력수준별로 보면 역시 대학원졸 이상이 52.1%로 가장 높은 사전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재학/대퇴가 43.5%, 대졸이 40.7%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원졸 이상일 경우 계속 연구하는 직종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재학일 경우도 계속 학업을 쌓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리라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초졸/중중퇴가 4.3%, 무학/초중퇴가 6.0%의 낮은 사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지역별 혹은 지역크기별로는 사전 이용률이 별로 변별성을 찾을 수 없으나, 굳이 찾자면 군지역일수록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종사자일수록, 고학력수준일수록 사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3.3.5.1 사전을 찾는 경우 찾아보는 사전 종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전을 갖고 있을까? 어떤 사전을 이용할까? 사전은 국어사전(책), 인터넷사전, 전자사전 등이 있다.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사전(책)은 25.3%, 전자사전은 8.5%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에 내장되어 있는 국어사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그림 3-19 : 사전을 찾는 경우 찾아보는 사전 종류〉

<표 3-23 : 특성별 사건을 찾는 경우 찾아보는 사전 종류>

(%)

구 분	사례수 (명)	국어사전	인터넷 사전	전자사전	계
전 체	10,003,938	25.3	66.2	8.5	100.0
▣ 지역별 ▣					
서부	2,148,558	23.1	67.5	9.5	100.0
울산	604,744	28.5	57.9	13.6	100.0
대구	442,762	29.0	60.2	10.8	100.0
인천	609,734	25.3	70.1	4.6	100.0
광주	257,390	40.2	52.0	7.8	100.0
대전	352,031	24.8	64.2	10.9	100.0
울진	204,025	17.5	74.2	8.4	100.0
경상	2509,433	23.8	68.3	7.9	100.0
강원	374,276	31.9	63.8	4.3	100.0
충청	310,429	23.4	70.5	6.1	100.0
전남	400,587	29.0	66.2	4.8	100.0
전북	417,017	24.8	69.3	5.9	100.0
경북	332,062	19.5	73.8	6.7	100.0
경남	460,115	29.8	62.0	8.2	100.0
제주	484,100	24.6	63.1	12.3	100.0
체	96,675	27.8	60.7	11.5	100.0
▣ 지역크기별 ▣					
대도	4,619,244	25.5	65.0	9.5	100.0
중/소도	4,623,598	24.6	67.8	7.5	100.0
군지	761,097	28.4	63.7	8.0	100.0
▣ 성별 ▣					
남	5,497,744	23.1	69.5	7.4	100.0
여	4,506,194	28.0	62.2	9.8	100.0
▣ 연령별 ▣					
19 ~ 29세	3,008,058	5.2	79.8	15.0	100.0
30 대	2,967,414	15.5	77.2	7.3	100.0
40 대	2,299,688	33.0	61.0	6.0	100.0
50 대	1,018,983	60.7	36.0	3.3	100.0
60 대	464,424	68.5	29.4	2.1	100.0
70 대	245,370	89.1	10.9	-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3,959,905	30.5	58.3	11.2	100.0
101 ~ 250만원	3,760,039	22.7	70.8	6.4	100.0
251 ~ 350만원	1,086,941	22.4	71.4	6.1	100.0
351 ~ 550만원	698,700	17.2	74.8	8.0	100.0
551만원 이상	237,315	12.1	80.1	7.8	100.0
모름 / 무응답	261,037	29.6	62.5	7.9	100.0
▣ 직업별 ▣					
관리자	453,572	20.2	77.7	2.1	100.0
전문직종사자	882,576	12.5	81.7	5.8	100.0
사무종사자	1,686,396	13.0	80.1	6.9	100.0
서비스종사자	625,740	36.8	55.8	7.4	100.0
판매종사자	1,674,352	27.4	66.4	6.2	100.0
농/임/어업	146,155	60.8	37.0	2.2	100.0
기능종사자	363,577	20.0	73.6	6.4	100.0
기계조작/조립	286,410	37.0	56.0	7.0	100.0
단순노무종사자	932,740	43.7	48.6	7.7	100.0
학생	1,248,937	3.9	73.3	22.8	100.0
주부	1,624,411	42.9	50.4	6.7	100.0
무직	66,718	-	86.5	13.5	100.0
응답	12,353	-	100.0	-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 / 초중퇴	51,247	71.9	13.1	15.0	100.0
초졸 / 중중퇴	103,022	77.5	21.2	1.3	100.0
중졸 / 고중퇴	331,551	72.9	26.2	0.9	100.0
고졸	3,487,172	38.1	55.6	6.3	100.0
대학재학 / 중퇴	1,649,015	9.1	71.3	19.6	100.0
전문대졸	1,043,721	18.0	75.4	6.6	100.0
대졸	3,044,424	15.5	77.5	6.9	100.0
대학원졸 이상	293,786	11.6	84.5	3.9	100.0

최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종이사전보다는 인터넷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컴퓨터 보급률이 사전 사용의 기준이 되고 있다.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특성별 사전을 찾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사전을 사용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결국 컴퓨터 보급 비율에 따라서 종이사전과 인터넷 사전의 사용 비율을 알려줄 뿐이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는 비율이 울산이 74.2%로 가장 높고, 인천이 70.1%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이 73.8%로 약간 높게 나타나서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컴퓨터 보급에 따른 인터넷 사전 사용 비율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종이 국어사전 사용 비율은 광주가 40.2%이고 강원도가 31.9%로 비교적 높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종이사전은 25.3%인 데 비해서 인터넷 사전은 66.2%여서, 컴퓨터의 힘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한편 전자사전의 사용 비율은 8.5%로 미미하다. 부산이 13.6%, 경남이 12.3%, 대전이 10.9%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지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둘째, 지역크기별로 볼 때, 지역별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전 이용률이 대도시는 65.0%, 중/소도시는 67.8%임에 비해서 군지역은 6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로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남성이 69.5%, 여성이 62.2%이다. 물론 종이 국어사전 사용 비율로 보면, 여성이 28.0%이고 남성은 23.1%이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자사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8% 대 7.4%).

넷째,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전 이용률을 보면, 20대가 79.8%로 가장 높고, 30대 77.2%, 40대 36.0%, 50대 36.0%, 60대 29.4%, 70대 10.9% 순이다. 물론 종이 국어사전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70대가 89.1%로 가장 높고, 60대 68.5%, 50대 60.7%, 40대 33.0%, 30대 15.5%, 20대 5.2%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사전은 그리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20대가 가장 많은 15.0%를 사용하고 있고, 역시 나이 순서대로 해서 70대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월 수입 551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80.1%로 가장 높게 인터넷 사전을 사용하고 있고, 351~550만원 74.8%, 251~350만원 71.4%, 101~250만원 70.8%, 100만원 이하 58.3% 순이다. 반대로 종이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높고, 101~250만원 22.7%, 251~350만원 22.4%, 351~550만원 17.2%, 551만원 이상 12.1%이다. 한편, 전자사전 이용자가 100만원 이하 소득수준인 사람들이 가장 높은 11.2%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여섯째, 직업별로 사전 이용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직종사자, 사무종사자, 관리자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한다. 각각 81.7%, 80.1%, 77.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무직인 사람들이 86.5%로 가장 높은 인터넷 사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학생과 기능종사자도 73.3%와 73.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종이 국어사전 이용률은 농/임/어업 종사자가 60.8%로 가장 높고, 이어 단순노무종사자 43.7%, 주부 42.9%, 서비스종사자

36.8%를 보이고 있다. 전자사전 이용률은 학생이 22.8%로 월등히 높는데, 이는 학업을 위해서 휴대용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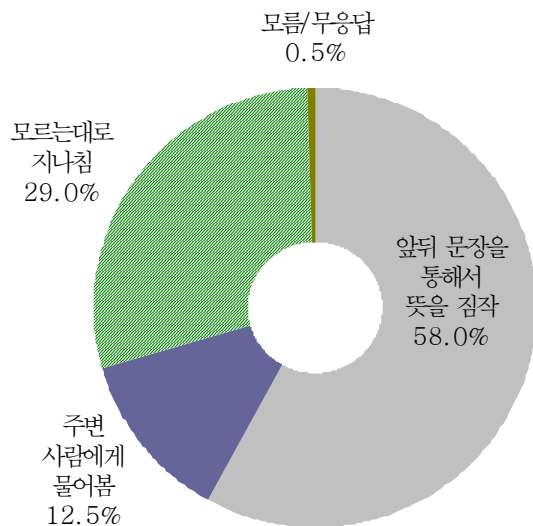
일곱째, 학력수준별로 볼 때, 고학력자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원졸 이상이 84.5%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졸 77.5%, 전문대졸 75.4%, 대학재학/대중퇴 71.3%, 고졸 55.6%, 중졸/고중퇴 26.2%, 초졸/중중퇴 21.2%, 무학/초중퇴 13.1% 순이다. 이에 비해 종이 국어사전 사용 비율은 무학/초중퇴, 초졸/중중퇴, 중졸/고중퇴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자사전은 대학재학/중퇴가 19.6%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사람들이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일수록, 사무직/전문직/관리직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보급이 잘 된 곳일수록 인터넷 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자사전은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학생층에서 약간이나마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3.3.5.2 사전을 찾지 않는 경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이해 방법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나올 경우 사전을 찾는 경우가 27.5%이고 사전을 찾지 않는 경우가 72.5%로 나와 있었다(<표 3-22> 참조). 그렇다면 어려운 사전을 찾지 않는 한자어나 외국어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

사전을 찾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5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대로 지나치는 사람은 29.0%,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결국 많은 경우 대충 의미를 짐작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3-20 : 사전을 찾지 않는 경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이해 방법>

<표 3-24 : 특성별 사건을 찾지 않는 경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이해 방법>

(%)

구 분	사례수 (명)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집착한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26,399,036	58.0	12.5	29.0	0.5	100.0
▣ 지역별 ▣						
서부	5,795,567	58.5	15.3	25.2	1.0	100.0
울산	2,136,526	52.6	15.0	32.1	0.3	100.0
대구	1,401,639	50.8	9.3	39.9	-	100.0
인천	1,391,377	62.2	10.9	26.5	0.3	100.0
광주	732,791	60.8	11.9	27.0	0.4	100.0
대전	720,779	62.1	11.7	25.7	0.4	100.0
울진	603,670	58.1	10.6	30.9	0.4	100.0
경남	5,713,210	63.1	14.0	22.3	0.6	100.0
충북	689,173	57.8	10.3	31.8	-	100.0
충남	792,592	41.0	16.7	42.0	0.4	100.0
전북	1,048,713	48.5	13.1	38.3	-	100.0
전남	907,285	53.5	8.9	36.7	0.9	100.0
경북	976,368	52.6	10.6	36.8	-	100.0
경서	1,435,991	56.1	6.0	37.6	0.3	100.0
경남	1,769,980	67.2	7.5	25.3	-	100.0
제주	283,376	49.1	13.6	37.4	-	100.0
▣ 지역크기별 ▣						
수도	2,782,349	57.4	13.5	28.5	0.6	100.0
대중	1,285,635	62.3	11.6	25.7	0.4	100.0
군지	2,331,053	40.3	11.7	47.9	0.2	100.0
▣ 성별 ▣						
남	2,943,425	63.3	9.2	27.1	0.4	100.0
여	3,455,612	52.8	15.7	30.9	0.5	100.0
▣ 연령별 ▣						
19~29세	4,451,251	60.6	16.8	22.0	0.6	100.0
30대	5,957,901	70.7	9.9	19.1	0.3	100.0
40대	6,339,771	65.5	11.4	22.6	0.4	100.0
50대	4,956,796	51.3	11.7	36.6	0.3	100.0
60대	3,464,600	38.4	14.1	46.5	1.0	100.0
70대	1,228,717	29.8	14.4	55.5	0.3	100.0
▣ 소득수준별 ▣						
100만원 이하	1,653,808	50.1	14.6	34.7	0.5	100.0
101~250만원	9,573,480	62.8	11.5	25.3	0.4	100.0
251~350만원	2,323,435	64.3	11.5	23.7	0.6	100.0
351~550만원	1,678,179	71.4	7.4	20.2	1.0	100.0
551만원 이상	535,649	65.9	8.6	25.4	-	100.0
모름/무응답	634,485	64.5	9.6	25.9	-	100.0
▣ 직업별 ▣						
관리자	1,012,795	57.3	14.0	27.6	1.1	100.0
전문직종사자	1,081,830	65.8	16.0	18.3	-	100.0
사무종사자	2,832,200	69.6	11.3	18.6	0.6	100.0
서비스종사자	2,413,375	64.3	13.1	21.9	0.7	100.0
판매종사자	4,536,634	60.6	10.2	29.2	-	100.0
농/임/어업	1,026,476	41.2	5.0	53.8	-	100.0
기능종사자	1,451,993	60.4	11.6	27.5	0.5	100.0
기계조작/조립	981,181	61.1	7.5	31.4	-	100.0
단순노무종사자	3,211,157	48.4	10.7	39.8	1.2	100.0
대학생	1,522,278	64.1	18.4	16.0	1.5	100.0
주부	6,239,804	52.1	15.7	32.0	0.2	100.0
직업	69,781	89.9	-	10.1	-	100.0
무응답	19,533	-	-	100.0	-	100.0
▣ 학력수준별 ▣						
무학/초중퇴	796,057	18.1	11.7	70.3	-	100.0
초졸/중중퇴	2,303,948	29.1	11.3	59.4	0.2	100.0
중졸/고중퇴	2,915,036	43.0	16.2	40.8	0.1	100.0
고졸	1,390,476	57.5	13.7	28.2	0.6	100.0
대학재학/중퇴	2,143,455	65.7	15.7	17.9	0.7	100.0
전문대졸	2,126,949	71.2	11.4	17.4	-	100.0
대졸	4,442,259	78.9	7.7	12.8	0.5	100.0
대학원졸 이상	270,050	95.1	3.2	1.7	-	100.0
모름/무응답	10,806	-	-	-	100.0	100.0

사전을 찾지 않는 경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간다는 응답이 29.0%나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하며, 특히 58.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특성 별로는 어떤 식으로 뜻을 파악할까?

첫째,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았으나 어떤 큰 원칙을 찾기는 어려웠다. 앞뒤 문장을 통해서 안다는 대답에서 경남이 67.8%로 가장 높고 경기와 인천, 대전이 각각 63.1%, 62.2%, 62.1%의 비율을 보이고, 이와 반대로 충북이 41.0%, 제주가 49.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만 갖고 본다면 도시일수록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둘째 질문에서 지역크기별로 볼 때 중/소도시가 62.3%로 비율이 높고, 군지역이 40.3%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응답이 서울 15.3%, 부산 15.0%, 경기 14.0%로 비교적 높고, 경북 6.05, 경남 7.5%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둘째 지역크기별 조사에서 나타난 대도시 13.5%, 중소도시 11.6%, 군 지역 11.7%에서도 미세하지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에 응답을 많이 한 충북이 42.0%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크기별 항목에서 군지역이 47.9%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셋째, 성별로 보면 여성일수록 모르는 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여성 30.9% 대 남성 27.1%),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적다(여성 52.8% 대 남성 63.3%).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15.7% 대 9.2%).

넷째,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일수록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70대 55.5%, 60대 46.5%, 50대 36.6%, 40대 22.6%, 30대 19.1%, 20대 22.0%), 비교적 젊을수록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30대 70.7%, 40대 65.5%, 20대 60.6%, 50대 51.3%, 60대 38.4%, 70대 29.8%).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으나, 20대가 16.8%로 약간 높고, 30대가 9.9%로 가장 낮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는 대체로 고소득자일수록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351~550만원 71.4%, 550만원 이상 65.7%). 이는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50.1%로 상대적으로 조금임에 비해서, 모르는 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34.7%로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데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자일수록 그 비율이 낮다(351~550만원 이하 7.4%, 550만원 이상 8.6%).

여섯째,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는 제일 낮고(41.2%) 모르는 대로 지나치는 비율은 제일 높다(53.8%). 이에 비하여 무직인 경우는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89.9%), 모르는 대로 지나치는 비율은 아주 낮다(10.1%). 이는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며, 무직인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도 찾고 잘 모르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무직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비율이 전혀 없는 것은 따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거나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학력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대학원졸 이상이 95.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대졸이 78.9%, 전문대졸이 71.2%, 대학재학/중퇴가 65.7%, 고졸이 57.5%, 중졸/고중퇴가 43.05, 초졸/중중퇴가 29.1%, 무학/초중퇴가 18.1%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무학/초중퇴 70.3%, 초졸/중중퇴 59.4%, 중졸/고중퇴 40.8%, 고졸 28.2%, 대학재학/중퇴 17.95, 전문대졸 17.4%, 대졸 12.85, 대학원졸 이상 1.7%).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의견은 대학원졸 이상과 대졸이 3.2%와 7.7%로 각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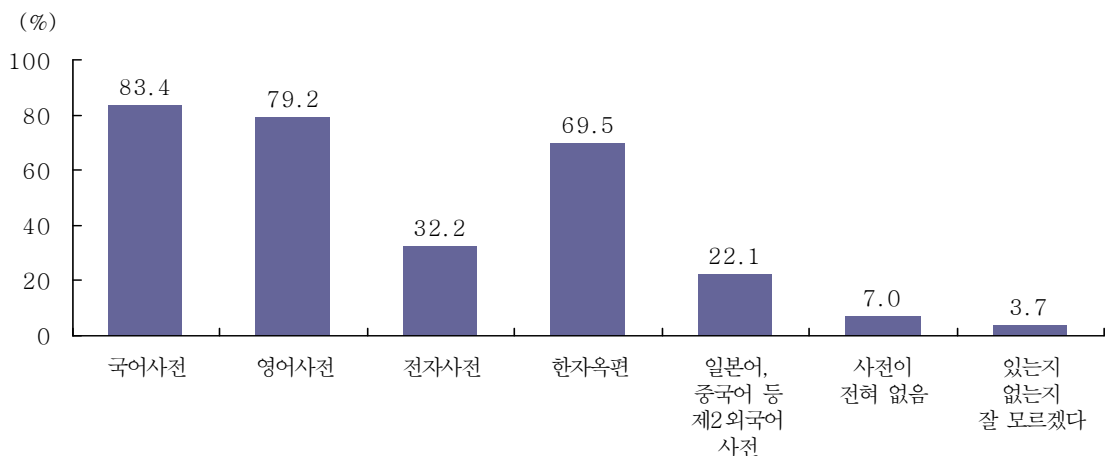
요컨대 사전을 찾지 않고 모르는 한자어나 외국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한다는 경우를 살펴볼 때, 지역별로는 일정한 원칙을 분명하게 찾기 어려우나, 대개 도시일수록 높고 지방일수록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크기별로 볼 때, 군지역이 모르는 대로 지나간다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개 무직과 관리직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3.3.6 보유하고 있는 사전 종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사전은 어떤 것들인가? 사전이 전혀 없거나(7.0%),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3.7%)는 응답을 통해 보면 결국 10.7%나 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문해 능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전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어사전의 경우 83.4%, 영어사전 79.2%, 한자옥편 69.5%의 응답자가 해당 사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사전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22.1%는 영어사전은 물론이고, 다른 사전들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21 : 보유하고 있는 사전 종류(복수응답)〉

<표 3-25 : 특성별 보유하고 있는 사전 종류(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명)	국어사전 (종이)	영어사전 (종이)	전자사전	한자 옥편	일본어, 중국어 등 제2 외국어사전	사전이 전혀 없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전체	36,402,974	83.4	79.2	32.2	69.6	22.1	7.0	3.7
지역별								
지서부	7,944,125	89.3	85.3	35.7	72.9	21.4	3.0	3.0
대인	2,741,270	84.1	78.1	34.9	68.1	19.9	9.7	3.0
광명	1,844,402	84.2	81.6	30.4	74.4	19.8	6.4	4.5
대울	2,001,111	83.1	79.0	35.8	70.1	31.3	6.3	4.4
경강	990,180	83.8	81.1	26.4	73.2	19.8	8.0	3.0
중충	1,072,809	82.4	80.9	38.3	71.4	25.4	7.4	1.6
전전	807,695	81.8	79.1	26.3	76.5	18.1	7.7	2.2
정경	8,222,643	86.7	83.0	40.6	69.3	29.7	4.1	4.4
체	1,063,450	80.2	71.3	24.4	61.2	12.2	11.9	1.3
	1,103,021	75.0	71.2	25.5	63.5	16.6	10.3	4.3
	1,449,300	75.6	71.9	24.1	60.9	19.3	12.3	2.5
	1,324,302	76.4	67.9	26.4	64.0	17.9	9.7	3.8
	1,308,430	77.5	71.2	18.2	70.3	14.0	13.0	3.7
	1,896,106	81.7	76.9	21.5	72.5	16.4	10.4	2.9
	2,254,080	70.5	69.6	20.4	65.8	14.6	13.7	6.5
	380,051	78.8	69.5	26.1	57.6	26.7	7.4	5.2
지역크기별								
대도	7,401,592	86.1	82.2	34.2	72.1	22.1	5.6	3.2
중/소	5,909,233	82.5	78.4	33.3	68.2	24.2	7.3	4.1
군지	3,092,150	72.9	66.6	15.8	62.3	11.4	13.9	4.3
성별								
남	8,441,168	82.2	77.9	31.6	68.4	22.0	7.4	4.0
여	7,961,806	84.6	80.6	32.9	70.7	22.3	6.6	3.4
연령별								
19~29세	7,459,309	83.7	83.4	46.1	67.9	26.2	6.2	1.8
30대	8,925,316	84.1	83.6	27.9	66.3	21.7	6.0	2.2
40대	8,639,459	90.8	87.8	41.8	78.5	25.4	3.4	2.6
50대	5,975,779	86.1	77.9	28.8	73.0	22.9	6.2	4.1
60대	3,929,024	71.1	59.1	10.1	60.0	12.5	13.8	9.6
70대	1,474,087	56.9	40.6	5.8	56.8	6.4	24.2	11.3
소득수준별								
100만원 이하	5,613,713	80.7	74.6	30.7	67.4	20.8	8.8	4.6
101~250만원	3,333,519	83.9	81.4	29.8	69.6	21.7	6.7	2.8
251~350만원	3,410,376	87.2	82.2	35.5	71.1	23.6	4.3	3.9
351~550만원	2,376,879	90.8	89.7	45.0	77.2	25.3	3.5	3.1
551만원 이상	772,964	92.7	87.9	44.5	78.6	40.1	1.4	2.3
모름/무응답	895,522	82.0	82.6	37.7	71.0	21.4	5.4	2.3
직업별								
관리자	1,466,366	90.5	89.0	48.3	78.7	26.3	2.1	2.7
전문직종사자	1,964,406	89.3	89.9	41.1	73.8	33.1	4.4	1.3
사무종사자	4,518,596	87.6	86.2	36.5	71.7	23.5	4.0	1.8
서비스종사자	3,039,115	84.5	79.0	27.2	68.5	22.6	5.4	4.0
판매종사자	6,210,987	86.1	83.2	33.0	74.0	22.6	6.1	3.1
농/임/어업	1,172,631	60.7	50.1	9.1	55.6	6.5	23.8	6.3
기능종사자	1,815,570	80.5	78.5	24.3	67.5	16.4	8.9	4.3
기계조작/조립	1,267,591	77.6	70.9	30.4	60.5	15.9	10.4	5.0
단순노무종사자	4,143,897	75.5	65.6	17.7	63.4	17.0	10.2	7.3
단순노무생	2,771,214	91.2	90.8	60.5	75.0	36.6	1.9	0.3
주부	7,864,216	82.4	77.0	29.2	67.8	19.1	8.3	4.1
무응답	136,499	73.7	68.3	38.3	68.4	35.2	10.6	13.1
무응답	31,886	77.7	77.7	11.1	64.4	38.7	7.6	14.7
학력수준별								
무학/초중퇴	847,305	35.4	24.6	3.2	28.7	1.0	35.2	24.1
초졸/중중퇴	2,406,970	58.5	43.2	6.5	46.1	5.0	26.0	11.4
중졸/고중퇴	3,246,588	77.3	66.3	15.2	66.9	12.0	11.2	5.6
고졸	4,877,648	86.5	80.8	27.0	69.3	19.2	5.6	2.8
대학재학/중퇴	3,792,470	89.5	89.4	54.1	74.5	32.8	2.2	1.2
전문대졸	3,170,670	84.8	85.9	32.6	73.7	21.7	4.2	2.6
대학원졸 이상	7,486,682	89.4	90.4	47.9	78.0	33.0	2.8	1.9
무응답	563,835	89.0	97.1	65.7	82.1	46.6	2.2	-
무응답	10,806	-	-	-	100.0	-	-	-

<표 3-25>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사전을 종류별로 제시한 것이다. 국어사전 83.4%, 영어사전 79.2%, 한자옥편 69.5%로 중요한 사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 갖고 있는 사전 종류를 보인 <표 3-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특별시와 광역시일수록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전자사전, 한자옥편, 제2외국어사전 등 거의 모든 사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서울 89.3%, 대구 84.2%, 부산 84.1% 등). 경기도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86.7%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지역크기별로 보면 군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모든 종류의 사전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자사전이나 제2외국어사전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 준다(각각 15.8%, 11.4%). 대체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순으로 사전 보유율을 보인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전에 해당하는데, 상대적으로긴 하지만 꼼꼼하게 뜻을 알고자 하는 여성의 성격이 나타난 것이라 본다.

넷째, 연령별로 보면, 국어사전과 한자옥편의 경우 4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유 비율을 보인다(국어사전: 90.8%, 86.1% ; 한자옥편: 78.5%, 73.0%). 이는 실용적 차원에서 이들이 국어사전과 한자옥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영어사전과 전자사전과 제2외국어사전은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젊을수록 많은 보유 비율을 보인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 보면, 예외 없이 소득이 높을수록 사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어사전만 예로 들어보면, 551만원 이상 92.7%, 351~550만원 90.8%, 251~350만원 87.2%, 101~250만원 83.9%, 100만원 이하 80.7%로 순서대로 비율이 보인다. 영어사전, 전자사전, 한자옥편, 제2외국어사전도 비율은 조금씩 차등이 있지만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정신적 세계에서 삶의 의지도 높아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직업별로 보면, 모든 사전에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일수록 사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도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을 다른 직업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국어사전 91.2%, 영어사전 90.8%, 전자사전 60.5%, 한자옥편 75.0%, 제2외국어사전 36.6%). 이에 반해서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사전을 별로 갖추고 있지 않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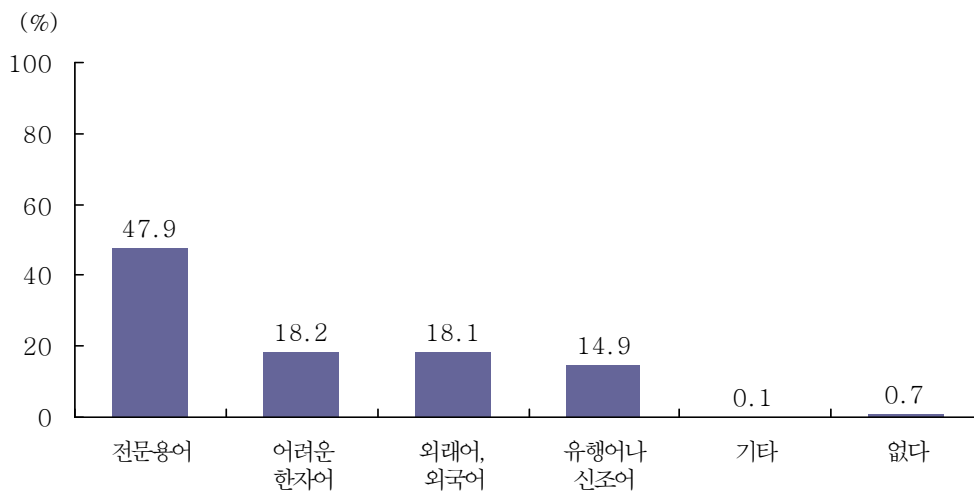
일곱째, 학력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국어사전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은 89.0%이고 무학/초중퇴 35.4%로 나타나 있으며, 제2외국어사전은 대학원졸업 이상은 46.6%인데 비해서, 무학에서는 1% 정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요컨대,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를 보는 직업(관리직)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사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일수록, 도시일수록, 수도권 중심 지역 일수록 많은 사전을 보유하고 있다.

3.3.7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

국어생활을 하다가 뜻을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림 3-22>에도 나타나듯이 우리 국민은 말의 뜻을 몰라서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0.7%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단어의 뜻을 주로 모를까?

문해 능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문용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한자어 18.2%, 외래어, 외국어 18.1%, 유행어나 신조어 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다음 <그림 3-22>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림 3-22 :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

<그림 3-22>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은 전문용어가 가장 많았고,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유행어(신조어) 순으로 나왔다. <표 3-26>은 각각의 모르는 말들을 해당 단어 차원에서 얼마나 몰라서 곤란을 느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문용어는 73.0%를 몰랐고, 외래어·외국어는 47.9%, 한자어는 40.2%, 유행어·신조어는 31.9% 알지 못했다. 이것들에 대해서 특성별로 기준을 나누어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로 볼 때, 전문용어는 특별한 원칙을 발견할 수 없다. 몰라서 곤란을 느낀 용어가 부산 78.6%, 대전 78.나타났다, 충남 77.7%, 제주 76.1%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래어·외국어는 대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에 비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이 40.1%로 곤란도가 낮고, 경남은 58.4%로 가장 높다. 특이하게 제주는 37.9%로 곤란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관광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 전국이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도시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해 곤란도가 서울이 47.1%로 가장 높고, 충남은 30.2%로 가장 낮다. 경북, 경남도 똑같이 32.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유행어나 신조어는 절대적은 아니나 도시가 도에 비해서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 곤란도가 강원도가 39.5%이나 부산은 20.7%이다.

둘째, 지역크기별로 볼 때, 전문용어는 미세하지만 도시 지역이 군지역보다 이해 곤란도가 높으며, 외래어·외국어는 군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곤란도가 높다. 어려운 한자는 대도시일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으며, 유행어나 신조어는 군지역일수록 곤란도가 높다.

셋째, 성별로 볼 때, 전문용어는 여성이 이해 곤란도가 높으며, 외래어·외국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어려운 한자어는 여성이 이해 곤란도가 높으며, 유행어나 신조어는 남성이 이해 곤란도가 높다.

넷째, 연령별로 볼 때, 전문용어는 젊을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20대 79.2%, 30대 71.8%, 40대 72.3%, 0대 71.나타났다, 60대 69.4%, 70대 69.2%). 다른 연령대는 곤란도가 거의 고르게 나타나는데, 20대만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외래어·외국어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이해 곤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20대 29.9%, 30대 40.0%, 40대 51. 나타났다, 50대 58.나타났다, 60대 63.9%, 70대 79.3%). 이러한 현상은 유행어나 신조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새로운 문물이나 용어를 도입하는 데 젊은이들이 빠른 세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한자어는 젊을수록 이해 곤란도를 많이 나타낸다. 20대는 69.0%로 가장 높고, 30대 47.7%, 40대 32.나타났다, 50대 25.나타났다, 60대 18.8%, 70대 10.9%로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전문용어의 이해 곤란도 비율과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 소득수준별로 볼 때, 전문용어의 이해 곤란도 비율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7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50만원 이상 소득자로 73.6%이다. 그리고 101~250만원 소득자가 72.4%, 251~350만원 소득자가 69.0%, 351~550만원 소득자가 62.9%이다.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너무 부자라서 전문용어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소득이 적을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래어·외국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다(100만원 이하 49.7%, 101~250만원 48.8%, 251~350만원 42.나타났다, 351~550만원 40.나타났다, 551만원 이상 40.나타났다). 어려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을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

다(100만원 이하 41.6%, 101~250만원 40.나타났다, 251~350만원 39.0%, 351~550만원 33.1%, 551만원 이상 26.3% 순). 유행어나 신조어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100만원 이하 27.2%, 101~250만원 32.0%, 251~350만원 40.6%, 351~550만원 45.6%, 551만원 이상 49.3% 순).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외래어·외국어를 잘 이해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유행어나 신조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업별로 보면, 전문용어는 곤란도에서 특별한 규칙을 보여 주지 않는다. 기능종사자가 75.1%나 되는 높은 곤란도를 보이고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68.나타났다, 농/임/어업 종사자는 68.0% 곤란도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학생이 83.8%나 되는 높은 곤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공부를 계속하는 처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특이하게 주부가 76.1%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제품 등에 접하는 주부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가 된다. 외래어·외국어는 농/임/어업 종사자가 71.1%를 가장 높은 곤란도를 보이고,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59.5%, 서비스종사자가 57.6%를 보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서, 무직 14.8%, 학생 26.2%, 전문직종사자 28.2%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한자어는 학생이 70.7%로 높은 곤란도를 보이는 데 비해서, 농/임/어업 종사자는 19.4%, 단순노무종사자가 29.7%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문직종사자, 사무종사자, 관리자도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각각 51.9%, 46.2%, 42.2%). 결국 전혀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자어 이해가 필요조차 없으나, 한자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무직이 83.0%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데, 계속 직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자어를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유행어나 외국어는 학생이나 무직인 사람들에게는 곤란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각각 10.9%, 14.1%). 그러나 관리자, 전문직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해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다(각각 45.3%, 39.5%, 38.7%).

일곱째, 학력수준별로 보면, 전문용어는 대학원졸 이상이 56.9%로 이해 곤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대학재학/중퇴가 79.6%, 무학/초퇴가 74.7%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할 정도라면 해당 분야에서는 일정한 단계에 올라간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외래어·외국어는 고학력자일수록 이해에 곤란을 느끼는 말이 별로 없다(대학원졸 이상 24.2%, 대졸 30.1%, 전문대졸 36.4%, 대학재학/중퇴 30.5%, 고졸 53.6%, 중졸/고중퇴 66.9%, 초졸/중퇴 78.2%, 무학/초퇴 82.8%).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이해 곤란도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무학/초퇴가 14.8%로 가장 낮는데, 이는 모두 한자어를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접할 일이 없어서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듯하다. 대학재학/중퇴가 65.3%로 가장 높는데, 이것 역시 한자어를 잘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렵고 새로운 한자어를 접할 일이 많아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유행어나 외국어는 고학력자일수록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이 58.0%로 가장 높고, 대졸이 42.1%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무학/초중퇴가 26.6%로 낮은 수치를 보여 준다. 대학재학/중퇴가 14.9%로 나타나 유행어나 신조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계층이 유행어나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제4장 결론

4.1 국어 기초 문해력 조사의 의의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것은 국어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국어능력 실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능력 향상의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비문해율과 문해력 수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의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이후 의무 교육 취학률의 비약적인 증가로 우리나라 국민의 비문해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6년과 1970년에 실시된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서는 비문해율이 각각 8.9%와 7.0%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이후 의무교육 취학률이 97%에 달해 비문해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식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노인, 여성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해 왔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비문해율과 기초 문해력 수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의 일환으로 비문해율 및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성인 12,137명(19세~79세, 16개 시도 5,212가구)을 대상으로 비문해율과 기초 문해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문해율은 흔히 문맹률이라고 일컬어져 온 것으로,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실증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6년과 1970년에 실시된 비문해율 조사는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를 하면서 덧붙여서 한 것이고, 2003년에 UNESCO에서 조사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미취학률을 그대로 보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하면서 나온 문해력의 실태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증적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사실 과거의 조사 방법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비문해율을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1966년의 조사 결과는 비문해율이 8.9%이고 1970년의 조사 결과는 7.0%이었다. 그리고 2003년에 시행된 UNESCO에서의 미취학률을 통한 비문해율 조사 결과는 2.1%이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에 조사 결과된 비문해율이 1.7%로 나타난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문해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2008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문해율은 98.3%라고 공식적으로 보여 준 셈이 된다. 이 수치는 세계의 선진국 평균 수준인 1.4%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특히 70대가 20.2%이고 20~40대는 거의 0%에 이르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1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문해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비문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의 1.7%(62만 명 추정)가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문해율은 여성(2.7%)이 남성(0.5%)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커 70대는 비문해율이 20.2%에 이르러 다섯 명 중 한 명이 비문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대~40대는 비문해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0.7%)나 중소도시(1.7%)보다 군 지역(6.3%)의 비문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을 둔 것은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번 문해력 조사는 국립국어원과 국어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개발한 질문지에 조사 대상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기초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익광고·TV 프로그램 편성표·신문기사·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항목들을 지역별, 지역크기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학력수준별로 나누어서 그 문해력을 조사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국어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향후 국가의 국어 정책 방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전체 국민의 소통 능력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2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제시

문해력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고 개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 각 사람의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조사한 비문해율과 문해력 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의 국어 정책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크게 조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문해력과 관련된 앞으로의 국어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4.2.1 비문해율,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의 활용

우리의 삶 자체가 언어생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한 비문해율 및 문해력 실태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문해율, 즉 문맹률이 1.7%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국민이 62만 명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60~70대에 속하는 이들 문맹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명 중 1명 꼴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비문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서 무료 한글 학교(혹은 성인 학교) 개설은 물론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맹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음지에서 문맹인으로서의 서러움을 겪어온 이들에게 ‘문해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문해자를 포함해서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2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국어 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문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즉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 능력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에서도 말했지만, 문맹자들은 물론이고 문해력 부진자들을 위해서도 국가적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조사의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문해력이 낮으면 학업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반대로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문해력을 높이면 학업 성취도까지 올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들에게 참여하게 하면,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교육 현장에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그 실태 조사의 의의와 방법까지도 모두 제공하여 각 학교, 혹은 각 교실에서 조사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교육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넷째, 이번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의 문해력도 조사하고자 했었다. 비록 그 숫자적 제한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그 결과가 보고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의 평균 문해력 점수가 드러난 마당에, 이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의 국어 능력 신장에도 이번 조사 결과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능력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그런 점들을 보충하려고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주어서 그 프로그램에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연구와 실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동안 국어 생활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들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특히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읽기 영역에 집중된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양한 국어 생활의 면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넓게 보면, 언어와 무관한 기관은 없으므로 모든 국가·사회·교육 기관 등에 조사 결과를 배포하여 그것을 응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사회단체나 언어치료 관련 기관 등에도 배포하도록 한다.

일곱째,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는 객관적인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UNESCO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비문해자 비율 및 문해력 점수를 국가 공식 통계로 제공하도록 한다.

여덟째, 그동안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자랑을 해 왔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보여줄 수는 없었다. 선진국 평균 비문해자가 1.4%인데 우리는 1.7%이니, 우리의 비문해자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되면 한글이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비문해자가 대부분 60~70대이니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비문해율이 떨어질 것으로만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비문해자들을 문해자로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2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비문해율은 1.7%였지만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인 5.3%까지 더하면 무려 7%나 되는 사람들이 국어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립국어원은 각 기관들과 공조하여 문해력 부진 계층을 위한 국어능력 향상 대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평생교육진흥원, 국어문화원 등이 공조하여 문해 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문해 교사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연수, 비문해자 대상 문해력 향상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력 부진 계층을 위한 문해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문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 학습지를 개발하고 방문 교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개 국어 초급 한국어 교재(말하기, 읽기), 부부 공동 학습 교재 개발,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기관(국어문화원, 지역문화원 등) 지원 강화, 쓰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에서는 국민들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어문화 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공무원반, 교사반, 군인반, 새터민반 등)한다거나,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를 개발·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②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부처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③ ‘국어 전문 감수단’을 운영하여 교과서의 언어 표현·표기 감수, ④ 전국 16개 지역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기능 강화, ⑤ 독서운동 전개 및 글쓰기대회·토론대회 등 바른 국어사용 장려 행사를 지원하고, ⑥ 공공언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공공기관 서식, 안내문 등 대상 국어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책 마련), ⑦ 한글문화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민의 국어의식을 고양하며, ⑧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때 국어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의 언어지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의 웹서비스 보완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CD 제작 및 원하는 이들에게 무한정 무료로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국가 언어지식 총괄

사이트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도 있다. 외래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넷째,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군별 문해력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예컨대 2008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군 간부를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본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손님을 상대하는 상인들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 각종 사람들의 사회 방언 및 그 능력을 조사해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향후 국어능력 조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있는 어휘력, 어문규범 지식,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영역별 국어능력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계획 이후에도 각 사회계층의 국어능력과 각 직업별·집단별 국어능력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각양 국어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국어능력 실태조사에 이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낮은 문해력을 보인 법령문이나 우체국 이용 안내, 전입신고서, 투표 참가자 우대 공지 등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건 등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리적 문항에서 낮은 문해력을 보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실용적 교수 학습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쪽 방면에서도 실용적 수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문광부와 교육부는 물론이고 이론적 학계와 실천적 교육계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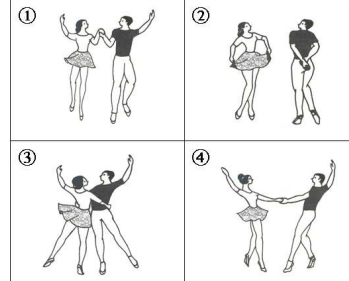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2.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 김수업(2000). 『국어 교육의 길』. 나라말.
- 김혜숙(2001). “광고 언어의 국어 교육적 수용 방안과 실제-특히 문법 교육에 광고 언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105.
- 노명완(2008). “문식성과 삶, 그리고 교육.”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 출판부.
-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출판부.
- 박영목(2008). “21世紀 文識性의 特性과 文識性 教育의 課題.”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박영목·한철우·윤희원(2003). 『국어 교육학 원론』. 박이정.
-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의 관계 맺기.”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서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송현정(2006).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왕문용(2004). “국어능력과 삶의 질.” 『국어교육』 113.
- 윤준채(2008). “문식성 교육과 양적 연구 방법론.”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8). “국어 능력, 문식 능력, 통합적 국어 교육.”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이동석(2006). “뉴스 자막 언어의 오류 상태 연구.” 『어문논집』 54.
- 이성영(1995). 『국어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출판부.
- 이종철(2002). 『우리말의 화용적 양상과 지도 방법』. 박이정.
- 이주행(2006).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1.
-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2003),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3.
- 이희수, 이지혜, 안도희, 변종임, 박상옥, 이현석(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한유경, 박현정, 이세정, 이정희, 권재현(2001),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 및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언, 최동선, 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 최운실, 백은순(1990), *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 백은순, 최상근(1989),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1차년도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u, K. H. & Raphael, T. E.(2000), Equity and literacy in the next millennium, *Reading Research Quarterly*, 35, 170-188.

- Boyarin, J.(1993), Palcing reading: Ancient Israel and Medieval Europe, In J. Boyarin (Ed.), *The ethnography of reading*(pp. 10–37),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lley, W.B. (1994). Voluntary reading activities. In W.B. Elley (Ed.), *The IEA study of reading literacy: Achievement and instruction in thirty–two school systems* (pp. 65–148). Tarrytown, NY: Author.
- Larry Andrew(2006). *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A Resource Book for Teachers(Third Ed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cNeil, J. D.(1978), *Reading comprehension: New directions for classroom practi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 Company.
- Morrow, L.M. (1991). Promoting voluntary reading. In J. Flood, J.M. Jensen, D. Lapp & J.R. Squire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pp. 681–690). New York: Macmillan.
-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2002), Reading framework for the 2003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U.S.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Author.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5). Highlights from the 2003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ALL),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03), The PISA Assessment Framework, Paris: Author.
- Smith, N. B.(2002), *American reading instruction*, Newark, De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Straw, S. B., & Sadowy, P.(1990), Dynamics of communication: Transmission, translation, and interaction in reading comprehension, In A. Bogdan & S. B. Straw (Eds.), *Beyond communicat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criticism*(pp. 21–47). Portsmouth, NH: Boyton/Cook.
- Ur. Penny.(2002).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Practice and Theory. Cambridge Teacher Training & Development Series*. Cambridge Univ. Press.

국립국어원
2008년
문해력 조사 질문지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쪽으로 상체의 어귀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문 2) 다음 부동산 정보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정보	시세 정보	매물 정보	아파트 소식
연적 정보 연적 112.39㎡ 전용 면적 95.64㎡ 방/욕실 3개 / 2개 현관 구조 계단식	과거시세 (유료) [1.55] 실거래가 보기 [1.55]		
시세 정보 매매가 9,000 - 11,000만 원			

-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인 아파트이다.
- 시세 정보는 약 1개월 간격으로 갱신된다.
- 3월에서 6월까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모두 변화가 없다.
- 2월과 3월 사이에 매매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했다.

문 3) 다음 글을 읽고 난 뒤 알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동, 향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로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의 한 이동통신사는 최근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와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메뉴 중에서 향을 골라 전송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향이 분사되도록 해준다 것이다.

이 발생 장치에는 16가지 종류의 기본 향이 들어 있어 마치 프린터 잉크가 조합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조합한 대로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전달 가능한 향기가 겨우 16가지밖에 안 됩니까?
- 인공적인 향기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 전달 받은 향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문 4) 다음 청첩장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중열 김명림, 김석구, 김서경 의 장녀 김서경 한재영

일시: 2007년 12월 15일 (토) 낮 12시 15분
장소: 한마음예식장

교통편 안내: 버스 6630, 6340, 640, 143번 버스
지하철: 6630, 6340, 640, 143번 버스
차량: 6630, 6340, 640, 143번 버스
주차: 한마음예식장에서 주차

음식: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음주: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음료: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5인 5부

- 관친기 최외 김서경 씨가 결혼한다.
- 결혼식은 12월 15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다.
- 한마음예식장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6630번 버스를 타면 한마음예식장에 갈 수 있다.

문 5) 다음 가정통신문을 읽고 말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통신 08-12호

환시를 조심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환시는 예년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키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 자제
- 환시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신체의 정소로 환시를 신속하게 제거
- 실외로 돌아오는 창문 및 출입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 차단

2008. 3. 7.
OO초등학교장

-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손을 씻게 한다.
- 채소 등 농산물은 익혀 먹는다.
- 거실 바닥을 자주 물걸레로 닦는다.
-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한다.

문 6) 다음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 조서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일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자가 옆자리가 없을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혈액 채취 결과만 인정된다.
- 음주 운전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은 바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명할 수 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이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문 7) 다음의 날씨 생활 지수를 참고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2008년 ○월 ○일 날씨 생활 지수>

빨래지수 : 20 잘 마르지 않아요	외출지수 : 30 가끔씩 외출을 피하세요
세차지수 : 20 세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우산지수 : 70 휴대 편리한 우산으로 준비

-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 준다.
-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
- 먼지가 쌓인 차를 구석구석 닦는다.
- 이불 빨래를 한다.

문 8) 다음 전입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입신고서 (국외이주 □ 세대특) 신고서
 접수 번호: 0227 신고일: 2008년 08월 02일

주거지 주소	주소	주거지 종류	주거지 면적
□ 새주택 □ 다른 세대로 전입 □ 세대합가	주소	□ 아파트 □ 단독주택 □ 기타	□ 100㎡ 이하 □ 100㎡ 초과
주거지 소재지	주거지 소재지	주거지 소재지	주거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주거지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사남동 337번지

주거지 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기타

주거지 면적: □ 100㎡ 이하 □ 100㎡ 초과

주거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주거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주거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권 □ 수도권 □ 기타

- ① 이 서식은 국내 전입신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반드시 세대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 ③ 허위로 신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9) 서울에 사는 철수는 울릉도에 사는 영의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물의 무게는 5kg 이며,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cm입니다. 철수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얼마입니까?

〈우체국 택배 요금표〉

무게 (kg)	2kg까지 (60cm까지)	5kg까지 (80cm까지)	8kg까지 (100cm까지)	10kg까지 (120cm까지)
동일지역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타지역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도서지역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 주의사항:
-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을 말함.
 - 무게와 크기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 하는 요금이 적용됨.



- ① 5,000원
- ② 6,000원
- ③ 7,000원
- ④ 8,000원

문 10)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 복용 시 알아야 할 기초 상식〉

(가) 약은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나) 기침약, 콧물약, 종합 감기약의 효과는 다 다르다. 어떤 약이든 자신의 증상에 맞는 구체적인 약효를 알고 복용해야 한다.

(다) 약은 물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우유나 주스와 먹는 것은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보관하면 된다. 약에 따라서는 냉장고 안에 둘 경우 습기 때문에 변질되기도 한다.



- ① 모든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한다.
- ② 약은 우유나 주스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기침 감기에 종합 감기약을 먹으면 기침약을 먹은 것과 효과가 같다.
- ④ 남은 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문 11) 다음 공지 사항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 [공지 사항] 봉투 가격 인상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봉투나라’에서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종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저희 ‘봉투나라’에서도 부득이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0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대봉투와 중봉투입니다. 소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이 공지 사항은 ‘봉투나라’의 관리자가 작성한 것이다.
- ② 봉투 가격은 위의 공지 사항이 작성된 날부터 인상되었다.
- ③ 봉투 가격 인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 ④ 모든 종류의 봉투 가격이 인상되었다.

문 12) 다음은 2008년 4월 9일의 선거 때 배포된 ‘투표 확인증’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투표 확인증 이용 안내

사용 가능 시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선거당일 이용 가능),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사건기록원

유효 기간: 2008년 4월 9일 ~ 4월 30일 (시설편 사용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월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 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 ‘투표 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투표 확인증’은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 ① 나는 확인증이 두 장 있으니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겠네요.
- ② 오늘은 4월 30일이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 ③ 이 주차장은 일인이 안 됩니다. 모르니 미리 물어봐야 해요.
- ④ 확인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해 주겠지.

문 13) 다음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통장 입금증 (고객용)

입금 일자	2008년 3월 31일	
은행명	세계은행	송금 수수료: 500원
계좌번호	802-07458-77893	금액: 30,000원
받는 분 (예금주)	김영자	*상기와 같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내는 분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행복은행

- ① 이 서식은 통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② 홍길동 씨는 김영자 씨에게 송금을 하고 있다.
- ③ 홍길동 씨가 보내려는 돈은 30,500원이다.
- ④ 홍길동 씨는 세계은행에서 송금을 하고 있다.

문 14) 다음은 탁상용 전자시계에 대한 제품 보증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품 보증서

• 보증의 대상: 우리전자(주)는 ‘탁상용 전자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제품의 결함에 대한 보증을 해 드립니다.

• 보증의 범위: 고장 난 부분은 모두 수리에 드리며, 수리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 것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주의한 취급이나 건전지와 같은 소모품의 교체, 또는 코팅의 인하여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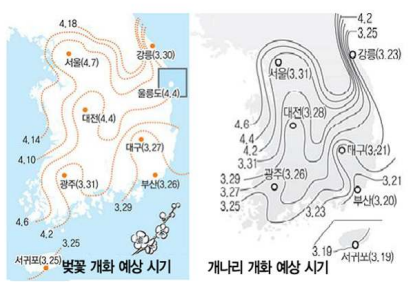
• 보증의 기간: 보증 기간은 구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입일: 년 월 일

우리전자(주)

- ① 사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고장에 대해서도 수리에 준다.
- ② 보증 기간 동안에는 견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③ 고장 난 제품은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 ④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은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

문 15)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요 도시의 꽃이 피는 날짜를 표시한 지도다.
- ② 동남쪽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 ③ 벚꽃이 개나리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핀다.
- ④ 강릉이 대전보다 꽃이 더 일찍 핀다.

문 16) 다음 안내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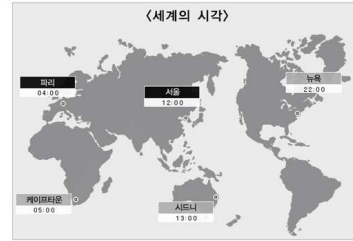
벼치 구입 사은품 안내
5월 1일 ~ 5월 31일

- 모든 구매 고객에게 대걸레를 드립니다.
- 2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증정
- 3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증정 (무료 배송)
- 5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 고급 액자 증정 (무료 배송)
- 10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 고급 액자 + 락스 증정 (무료 배송)

사은품 조기 품절 시에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①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5만 원이상을 사야 된다.
- ② 벼치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대걸레를 준다.
- ③ 10만 원이상을 사면 네 종류의 사은품을 준다.
- ④ 조기 품절 시에는 사은품이 다른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문 17)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 ① 오전 3시
- ② 오전 6시
- ③ 오후 6시
- ④ 오후 3시

문 18) 다음 구인 광고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원 모집〉

모집 기간	2008년 2월 10일 ~ 2008년 3월 9일
모집 대상	신 입
모집 부문	품질관리 0명
지원 자격	대졸(예정)자로서 자연계열 관련 전공자
선발 방법	서류 전형 후 면접(면적자에 한해 개별 후보)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부착) 2. 자기 소개서 3. 고교 및 대학 성적 증명서 4.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 및 주 5일 근무
제출처	㈜영원실업 (우)120-345 강원도 영월군 우리면 산 2번지 전화번호: 033-667-6754

- ① 내 전공이 화학이니 지원 가능하겠군.
- ② 남녀를 차별 대우하더니 한심하네.
- ③ 아니, 월급이 얼마쯤인지도 모르고 지원해야 하디니.
- ④ 일주일에 이틀은 쉴 수 있겠군.

문 19) 다음 명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면〉

수리간 떡집
홍길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산 90-1
TEL : (053) 2340-5678

〈뒷면〉

- ▶ 생일 케이크 ▶ 고급 영양액
 - ▶ 바구니 선물 세트 ▶ 백일, 돌떡
 - ▶ 중추, 수떡 ▶ 개살, 이사떡
 - ▶ 떡, 레터 ▶ 채사, 고사음떡
 - ▶ 한과 세트 ▶ 개별 포장떡
- 부자은행: 321-01-002-4567 (수리간 떡집)

- ① 상품 가격
- ② 상점 이름
- ③ 상점 주소
- ④ 상품 종류

문 20) 다음 안내문에 나온 '부리'는 아래 국어사전의 몇 번 뜻풀이에 해당습니까?

〈안내문〉

이름 국보 제96호 청자귀령수병(靑磁龜形水甁)
시대 고려 시대

고려청자의 정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거북을 형상화했으며, 물을 넣는 수구(水口), 물을 따르는 부리, 몸통, 손잡이로 구성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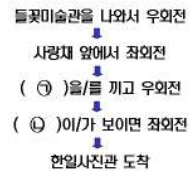
〈국어사전〉

- 부리** ①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 길고 뾰족하며 보통 털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 (예) 부리코. ②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 (예) 소매의 부리/총의 부리. ③ 병과 같이 속이 막혀 있는 물건에서 한쪽 끝이 터진 부분. (예) 병의 부리/주전자 부리. ④ 사람의 입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늘 이놈의 부리가 말썽이다./부리를 다쳐라.

- ① 뜻풀이 '①'
- ② 뜻풀이 '②'
- ③ 뜻풀이 '③'
- ④ 뜻풀이 '④'

문 21) '들꽃미술관'에서 '한일사전관'으로 가기 위한 길을 메모했습니다. ㉠과 ㉡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악도〉



- | | |
|--------|--------|
| ㉠ | ㉡ |
| ① 아니바람 | 모자이크 |
| ② 여우비 | 장난감박물관 |
| ③ 여우비 | 소나무정기 |
| ④ 가을이내 | 장난감박물관 |

문 22) 다음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노인복지기관 운영자, 일반인(단체)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 교육 기간: 1000년 (총 10회 분기)
- 교육 장소: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원
- 교 육 비: 전과목 5만 원, 개별 과목 2만 원, 특강은 무료임
- 교육 문의: 222-6006

○ 교육 내용

구분	교육명	연차구분	강사	비고
1	1월(10월) 19:00~11:00	문화 복지실 연구	고수희(문화복지)	
2	1월(10월) 14:00~16:00	영북도시부 사례 분석	서진숙(영북지방)	
3	1월(10월) 19:00~19:30	문화관광정책의 이해	윤영희(영남대)	
4	1월(10월) 19:00~19:30	노년적 호스텔로 보는 문화관광 정책	김현희(영남대)	특강
5	2월 19:00	시정 시제 발표회	김현	
6	2월 19:00	특강 시제 발표		
7	3월 19:00	특강 시제 발표회		

* 7월 10일까지

- ①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 ② 교육은 특정 요일에 실시된다.
- ③ '노인의 눈으로 보는 문화와 방송' 특강은 사전수 취가 강요된다.
- ④ 5만원을 내면 모든 강의들 들을 수 있다.

문 23) 다음 공익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그곳이 바로 어딘 우리나라입니다.

- 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 ②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③ 공공장소에서는 전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 ④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

문 24) 다음은 신간 안내 기사입니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신간 안내 >

만화 16권으로 읽는 원고지 3만장

▲ 만화 '토지'...오세영 글·그림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만화로 만들어졌다. 소설 '토지'는 조선왕조의 붕괴, 일제 침략과 식민 통치, 근대화 과정 등 방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만도 700여 명에 이른다.

만화 '토지'는 만화가 오세영이 전 16권으로 그려냈다. 소설이 완간되기 전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도 있으나, 만화가 주는 맛은 따로 있다. 거칠고 투박한 소설 속 인물들의 표정과 말투가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너무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았다면, 원작을 읽기 전에 먼저 만화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총 5부 16권 가운데 1부 7권이 먼저 나왔다.

- ① 만화 '토지'의 글은 박경리 씨가 썼다.
- ② 소설 '토지'는 만화 '토지'의 출간과 동시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 ③ '토지'에는 7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 ④ 16권의 만화 '토지'가 한꺼번에 출간되었다.

문 25)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편성표입니다. 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 TV프로그램 안내 >

시간	채널	시청대상	다중채널
2009년 4월 5일 토요일			
06:00	KBS 뉴스광장	전체	HD
07:40	피노키오	7세	
08:10	홍도스-하늘을 나는 집	전체	HD
08:30	아침드림	전체	HD
09:30	KBS 뉴스	전체	HD
10:00	결혼서 세계속으로	전체	HD
10:30	TV행동 변화한 세상	전체	HD
11:00	TV행동 사랑가 데스크	전체	HD
오후			
12:00	KBS 뉴스	전체	HD
12:10	로망인디안	전체	HD
13:00	열린채널	전체	HD
13:30	TV는 사랑을 싣고	전체	HD
14:25	KBS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전체	HD

- ① '피노키오'는 7세 이상이면 모두 시청할 수 있다.
- ② 보 12시 뉴스는 지막 방송을 하지 않는다.
- ③ 'TV는 사랑을 싣고'는 다시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야구 중계는 오후 2시 25분에 시작한다.

공동 집필진: 김창원(경인교대)
서 혁(이화여대)
윤준채(대구교대)
이관규(고려대)
정건지(한국개발조사연구소)
김순임(국립국어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발행인 이상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8년 12월 26일

발행일 2008년 12월 29일

인쇄 우영기획